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행기

중국을 주께로



1995년. 1, 2
격월간

특집/국내에서의 중국선교

방한 중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거든
캡틴 예수
한국 교회, 중국선교에 앞선 연구와
훈련사역이 필요하다
소리없는 말이 만리장성을 넘는다
하늘에서 전하는 복음

Wedding Photo

행복한 순간의 모습을 담아드립니다.



임백천 · 김연주 커플

사랑과 축복속에 이루어지는 결혼!
언제보아도 환한 웃음이
배어나오는 사진을...

연출사진의 名家[®]
동승스튜디오
PHOTO STUDIO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72-2(방송대학 앞)
대악포본점 : 743-6266~8 FAX:743-6268
▲공동지점 : 775-7767~8 FAX:754-9100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동화

AFKN 방송을 듣다보면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We’re here for you” 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로고에는 성경의 이른바 ‘섬김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 좋다. 이것은 AFKN방송의 존재 이유가 주한 미군과 그 군속들을 위로함에 있으며, 따라서 방송 종사자 모두가 이들 청취자들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같은 자세는 중국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절실히 요청된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중국선교에 열심을 내었다. 중국선교에 투입된 물질만 하더라도 엄청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선교적 발판을 구축하지 못한 것은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떻게 돕는 것이 중국 교회에 유익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교회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관점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질 있는 교역자의 절대 부족 현상의 해소가 아닌가 싶다. 이것은 공인교회와 비공인 교회를 막론하고 다 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앞으로 중국 교회가 계속 부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신학교 건축 지원 사역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2000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지난 10여 년 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하나님께 열납되는 중국선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역의 첫걸음부터 마지막 사역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우리는 과연 중국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계속 던져봐야 할 것이다.



특집/국내에서의 중국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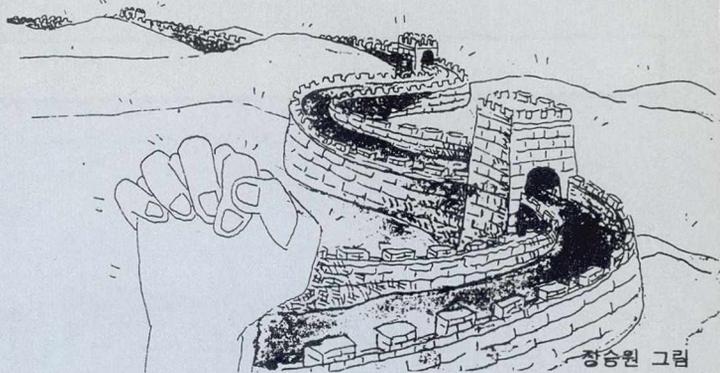
- 10 방한 중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 / 전호진
- 15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거든 / 권수영
- 20 캡틴 예수 / 임화평
- 25 한국 교회, 중국선교에 앞선 연구와 훈련사역이 필요하다 / 함태경
- 28 소리없는 말이 만리장성을 넘는다 / 석은혜
- 33 하늘에서 전하는 복음 / 석은혜

선교·전략

- 1 발행인 칼럼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 이동화
- 4 선교일언 선교지에서의 리더십, 이렇게 하라 / 김성복
- 8 목상의 샘 영적전쟁
- 38 중국선교 돋보기① 중국선교를 위해 필요한 사람 / 문상철
- 42 중국선교 돋보기② 중국선교의 새로운 창조적 사역 기회 / 양영학
- 45 현지에서 온 소식 안전리포트 / 오대선
- 80 중국선교의 발자취 기성교회들 / 방지일

선교정보

- 52 중국교회 현주소 삼자교회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黃恩炬
- 53 오늘의 중국 세계의 지붕이 더욱 높아지다
- 56 중국 소수민족을 알아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와 풍속(III) 중남 및 동남지역
- 66 중국유학 안내 중국 화북·화동 지구의 주요 대학 / 박명수
- 94 중국선교 참고도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 외 2권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96 중국은 지금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102 중국대사기 중국의 이런 일 저런 일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인물·간증

- 74 최근 중국교회 인물 심양 서탑교회의 오애은(吳愛恩) 목사 / 유관지
 76 중국기독교 인물소전 대륙의 큰 별, 왕명도 목사 / 김성태
 82 중국선교사의 간증 구원의 큰 능력 / 허드슨 테일러
 86 대륙성도의 간증 “저에게 아버지가 생겼어요”

선교마당

- 65 중국어 퍼즐 填字遊戲
 85 중국어로 찬양을 親愛主, 牽我手
 90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가장 큰 계명
 92 내가 사랑하는 선교도서 밀림 속의 십자가 / 박안나

기도·선교단신

- 110 중국을 주께로 기도 캘린더
 113 선교단신

선교자료실

- 116 100가지 문답(종교법규정책 학습자료) (II)

표지 설명

실날(春節) 아침, 화려한 의상을 입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전통놀이 축제인 양가(秧歌)를 즐기는 중국인들의 모습. 이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춤출 그 날은 언제일까?

[양가(秧歌)는 중국 북방의 농촌지역에서 널리 유행하는 민간가무의 일종. 징이나 북으로 반주하며 어떤 지방에서는 일정한 줄거리를 연출하기도 한다]

선교지에서의 리더십, 이렇게 하라

김성복

들어가는 말

주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을 통해 되듯이 지도자 역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훈련에 의하여 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7, 8)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력은 일반적인 지도력에다 영적 지도력(Spiritual Leadership)까지 겸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반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지도력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교회의 구성원은 일반 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신앙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반적인 지도자 자질에 관한 훈련과 영적 지도자의 자질 두 가지를 모두 간략하게나마 다루고자 한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된 훈련 속에서 탁월한 지도자로 양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보다는 실

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지도력이란 한 마디로 지도자의 삶을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를 “삶의 전달(Life transference)”이라고 한다. 지도자의 올바른 삶의 전달에서 지도력(Leadership)이 나오는 것이다.

함께 삶을 나누며 본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다. 모세 역시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 ‘본을 보임(Example Setting)’은 지도력을 유지하고 강하게 하는 기초적인 권위(Authority)이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딤후 4:12)

헌신적인 삶이 지도력이다.

헌신적인 생활은 부지런하게 하며 정열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또한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참된 지도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

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행 20:24)고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였다.

순수함(성결함)이 지도력이다.

지도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 이것이 지도력의 바탕이 된다.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는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利)를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벧전 5:2)

사람 자체를 사랑함이 지도력이다.

가진 자의 재물, 명예, 지위, 수준, 신분 에 관계없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지도력의 기초이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3)

지도자의 자질 계발

지도자는 책망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한다.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도록 생활해야 한다. 도전을 받았을 때 이겨내는 삶보다는 악으로 비난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서 안된다. 이는 지도자의 자질을 계발하고 실천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

다. 포기하지 말고 자질향상을 위해 계속 도전해야 한다.

성실과 근면의 자질을 계발하라

주님께서 자기 종들이 봉사할 때 부지런할 것을 요망하신다. 태만은 지도자에게 흔히 찾아 올 수 있는 결점이다. 이러한 사람은 일거리를 찾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 치고, 불성실한 사람 치고 지도자가 된 일이 있는가? 유능한 지도자는 시간이나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항상 경계하며 그지없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마 25:26, 게으른 종에 대한 책망).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의 옥중서신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영적 유산을 산출했던가?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킴을 계발하라

내가 지도자로서 하는 일이 수고롭다고 느껴지지 않고, 남을 위하여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아낌없이 기쁘게 바칠 수 있는 인격이 될 때까지 쉬지 말고 훈련을 쌓아야 한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전 9:25)라고 했다. 이는 지도자의 삶에 엄격한 자기 통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경기자가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기 훈련에 전심전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몸을 친다”는 의미는 죄악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친다는 뜻이다.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 공

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즐겁게 선택했다는 뜻이다. 즉 주님을 위하여 곤경을 견디어 낼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외부 환경이 좋으나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진정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가 확립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다. 평안할 때도 늘 고난을 각오하면서 준비하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

말을 절제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계발하라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말할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남의 말을 듣는 태도를 훈련해야 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약 1:19)

듣는 자세는 이렇게 하라.

주관적인 선입견을 갖지 말고 들어야 한다.

주의 깊게 듣고, 방심하지 말라.

타인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기 배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메모하라.

진리를 고수하는 자세를 계발하라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진리는 힘이 있다. 지도자가 진리를 거스리면 지도자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타인들 앞에서 진실하기를 훈련하라.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를 자유케 하리라.”

엡 6: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 진리를 고수하는 자는 매사에 자연스럽고 당당하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과 상담을 나누면서 “세계는 너무 상처가 많아요. 왜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물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은 “상처도, 고통도 전혀 없는 세계가 한 곳 있기는 있지요. 공동묘지로 가십시오. 상처도 고통도 없는 곳은 바로 그 곳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No Cross, No Crown)’는 것이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주의할 사항

지도자가 항상 사람 앞에 나서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조심할 사항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도자는 늘 자신의 삶의 약점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신을 먼저 점검하라

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확인하라.

② 말할 내용을 충분히 준비했는가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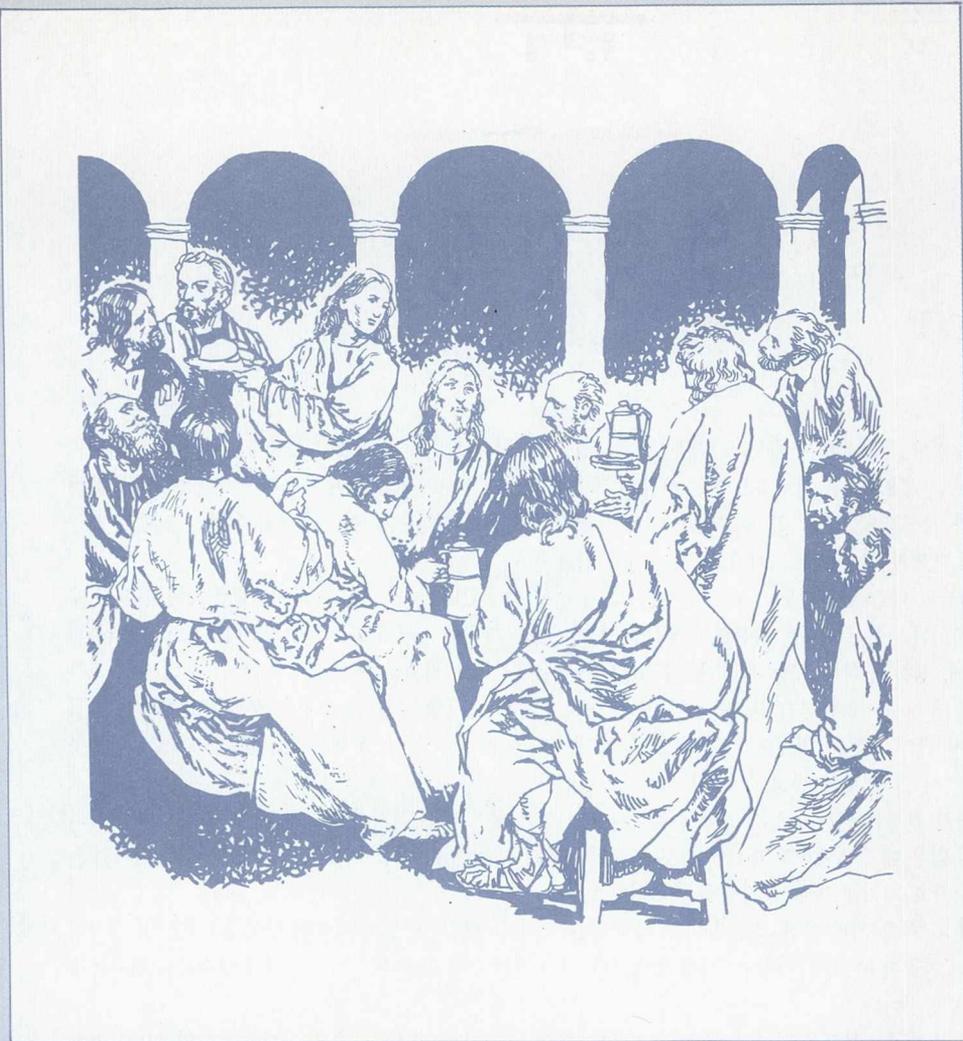
③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을 받았는가?

지도 방법을 결정하라

①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라.

② 학습목표를 세우라.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목표)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본을 보여줌으로써 지도력을 나타냈다.

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고전 9:26)라고 말하였고 내가 “뿔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다.

③ 자기에게 좋은 인상을 모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④ 멤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라.

이성관계를 조심하라

이성으로 보지 말고 형제·자매와 같이 생각하고 대하라

금전거래를 깨끗이 하라

현대 교회나 신앙공동체 지도자들의 약점 중의 하나가 금전문제이다. 당신이 지도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짓밟고 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후 8:20, 21 딤페전 6:10)

94년 한 해 동안 당신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살펴보면서 장점을 더욱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란다.

김성복/갈릴리세계선교회 탐사역 대표
주사랑교회 팀 목회자

영적 전쟁

교과, 도로, 공항,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 어느 전쟁에서나 전략적인 지역은 적들로부터 지켜지기 위하여 매우 강화된다. 전략요충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전투에서도 이긴다. 우리의 삶에는 공격에 대하여 강화되어야 할 세 가지 전략요충지가 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와 같이 우리는 호흡이 다 할 때까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생각 :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은 세 가지 원천이 있다. 첫째, 생각은 우리 자체 내에서 생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원천과는 상관없이 생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우리로 창조하였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둘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에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가 계시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들의 생각에 직접 말씀하신다. 세 번째 원천은 적이다. 어둠의 세력 역시 우리에게 말을 한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의 말을 들어서 그 영향을 받고 그 결과 고통스러워한다.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인간의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때가 언제인지 깨닫는 것도 포함된다. 모든 악한 생각들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촉발시키고 거기에 악한 생각들을 더한다.

마음(Heart) :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잠 4:23) 성경이 ‘마음’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영적 전쟁에 관하여 나는 두 가지 성경적 의미를 취하는데 그것은 태도와 감정이다.

성경은 우리 몸의 중요부분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방어하라고 말한다. 머리와 가슴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이며 공격당하기 쉬운 부분이다. 전투에서 팔이나 다리를 잃을 수는 있지만 머리와 가슴의 부상은 거의 확실한 죽음을 가져온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은 똑같이 취약한 부분이며 동일한 보호가 요망된다.

에베소서 4:26~27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한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잘못된 태도가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입 : 말이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는 놀라운 도구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마음의 자세와 결합되어있다. 입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는 계시를 보여 주는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설교자의 말과 정의로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열어놓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됨으로써 말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입에는 힘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적인 능력을 갖는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더럽힐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규율 - 우리의 마음이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려고 타오를 때 우리의 입술을 그저 굳게 다문다는 규율을 필요로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 15:18)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입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영적 전쟁, 딘 셔만 지음, 예수전도단』에서 발췌.



특 집

국내에서의 중국선교

흔히 중국선교라 하면 선교사가 직접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선교가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시각은 좀 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도 복음전파에 정치적 장애가 엄존하고 있는 중국 현지의 사정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의 중국선교는 점차 그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

중국의 개방 정책으로 국내로 밀려들기 시작한 중국인 노동자, 인천·부산 등 항만에 정착하는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복음전파는 중국 현지에서의 선교 못지않게 효과적인 중국선교의 한 부분이다.

또한 현지의 절실한 필요에 직면한 신앙문서의 제작과 전달사역,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위한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연구와 선교사 훈련사역이 중국선교의 전단계 사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방한 중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

국내가 곧 중국선교 현장

전호진 박사

세계 정치·경제 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

저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견한 바 있다. 13억의 노동력, 엄청난 자원,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 해외에서 유학중인 우수한 두뇌 자원, 인력·기술자원과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5천만의 화교들을 고려해볼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중화민족은 엄청난 파워를 보유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예상할 때 중국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낭만적, 낙관적인 짝사랑에서 벗어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십 억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중국인 근로자 선교 현황

중국 정부를 자극하여 의심의 대상이 되는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현재 우리 나라의 500여명 선교사가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강에 돌 던지기와 다를 바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선교는 원칙적으로 멀리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

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6천만에서 7천만 가량이며 최대 1억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1949년 교회의 문이 닫힌 지 30년만에 자연발생적으로 10배 이상 성장한 중국 교회인 것을 볼 때, 한국 교회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불행한 열정주의로부터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 낚시질이 아닌 투망을 치는 집단주의 선교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중국의 선교적 상황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즉 통제와 자유의 묘한 줄다리기 현상은 한국 내 중국인 근로자 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개방하는 중국의 정책이 균형을 이루느냐에 중국의 사황이 달려있다. 전통적으로 통제와 중앙집권 사회로 표명되는 중국 사회는 같은 공산권이라 하더라도 몰락한 동구의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등소평 사후에는 지방분권, 소수민족의 독립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의 장래는 불투명하다.

이런 과도기에 놓여 있는 시점에서 중국은 과거보다 통제가 느슨해졌고 보다

다양한 사회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롭게 근로자들을 외국으로 풀어 놓고 있다. 어부들이 대만어선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고,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황이고 보면 중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근로자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외국으로 방출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금 중국의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국영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함에 따라 임금 체불사태가 발생하여 여기 저기에서 근로자들의 파업과 데모가 이어지고 있다. 소위 “철밥그릇”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 기업이 임금면에서 훨씬 좋은 대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국영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후보장과 연금, 의료보합이 평생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인데, 이런 국영기업들이 점차 망하고 있는 사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경제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하고 정부에서 많은 청년 근로자들을 해외로 방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종교적 상황을 살펴볼 때, 비록 통제는 남아 있으나 예전과 비교하여 볼 때 이후부터 보다 자유의 여지가 많아졌다. 87년 중국의 대학생, 지식인들은 더 이상 무신론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주팔자 등, 유신론에 관심이 많다. 강택민이 인정한대로 현재 5천만 명인 중국의 공산당원보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욱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상황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한국

이곳 한국에서 중국인 선교가 어렵다면 현지에 가서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을 비롯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자유롭게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근로자 선교의 어려움

지금 소수의 교회와 단체들이 중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20명 이상 모이는 곳은 찾아 보기 힘들다. 중국인들이 가장 접근이 쉬우면서도 사역적인 면에서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곳 한국에서 중국인 선교가 어렵다면 현지에 가서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은 자기들의 고향인 현지보다 외국인 이곳에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 교회가 외로운 근로자들의 만남과 정보교환의 장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인 근로자들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 비해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갖추고 있다.

첫째, 황금 만능주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나머지 너무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본국에서 믿고 온 기존의 신자가 적다는 것이다. 원래 선교는 본국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리더가 되어 적극적으로 주도할 기독교인이 현재 많지 않다.



지난 추석, <외국인노동자초청연회>에 참가한 중국인과 동남아 근로자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들의 학력수준이 낮다.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 고졸, 중졸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진 젊은이들이다.

넷째,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이들은 폐쇄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 남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 국제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

다섯째, 사역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조선족들은 대개 불법체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면 노출을 꺼려 사역자로 남지 못한다.

여섯째, 조선족들과 한족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고향이라는 이점과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장점을 지닌 조선족들은 약삭빠른 처세술로 한족들보다 훨씬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렵다. 기술을 가지고 하루라도 더 돈을 벌려고 할 뿐 교회로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족들은 소수민족인 조선족들을 무시하는 경

향이 있어, 조선족을 사역자로 세웠을 때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중국인 근로자 선교전략

우선 중국인만 모일 수 있는 독립적인 집회장소가 마련되어야 하고, 중국어가 가능한 전담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최상의 방법은 중국인(한족) 지도자를 세워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도록 해야 한다. 신학을 전공하고 동시에 중국어가 가능한 사역자가 시급한 형편이다.

일대일 전도와 제자훈련이다. 일부 나라의 경우, 여기서 믿고 돌아간 자들이 본국의 교회 봉사를 하거나 교회 개척의 선두주자 역할을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앞으로 가능한 방법은 나라별로 그 나라 언어를 아는 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차선으로는 그 나라의 원주민 사역자를 리더로 세우는 것

이다.

이상은 직접전도의 방법이지만 이와 함께 사랑의 봉사가 접촉점이 된다. 이미 일부 선교회와 교회들은 이들을 위한 사랑의 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방문, 의료봉사, 명절에 특별초대 및 집회로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 공산권에서 온 이들에게 선교의 최상방법은 사랑의 봉사이다. 또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글과 영어, 컴퓨터 등 체계적인 기술을 교육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사회에서 생산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사역자는 한국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조심스러운 중간고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국내의 많은 언론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심각한 사회 문제화시키는 바람에 기업가들은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사회제도의 모순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원죄문제에서 다루어야 한다. 물론 한국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인심이 좋지 않다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그러나 일을 잘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걸핏하면 말썽을 일으키는 근로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더군다나 정식 연수생으로 들어와서 돈만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금방 회사를 옮겨 버리고 마는 근로자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다른 것은 안 따지고 돈만 따지는 것이 문제다.

무엇보다도 고급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현재 중국에 아무리 많은 크리스천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노인, 여성들만 짝

이들에게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주는 것은 그 나라 기독교의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며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들어차 있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중국도 개신교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교육과 신분이 낮은 농민층이나 노동계층이 대부분이다. 특히 조선족 처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고학력의 신자들이나 청년들은 교회에 가고 싶은 매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이나 고위층은 중국의 기독교회가 중국사회에 변화를 줄만한 영향력을 과소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방한 중국인들은 고졸 이상은 된다. 이들에게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주는 것은 그 나라 기독교의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며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지도자,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100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이다.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대응책: 선교의 긴급성

중국에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한 달에 최소한 15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며, 또한 그곳에서 중국정부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밀리에 몇 사람을 모아놓고 전도하고 제자훈련시킨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유롭게 적은 경비를 들이고도 많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지금 경기도의 한 공단 지역의 교회에서는 중국인들이 다수를 차지, 매주 약 50명 이상 모여든다. 이들



한국에 온 중국인 근로자들은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함께 낯선 문화와 종교에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쉽게 마음문을 열 가능성이 많다.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소녀들.

이 다른 동남아 근로자들보다 밥을 많이 먹는다고, 봉사하는 한국인 신자들이 원망하지만 사실은 즐거움과 보람이 내포된 농담조의 원망이다.

한국 교회는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 선교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선교를 해야 하며, 교회도 새해에는 이를 위한 예산책정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각 나라별로 전문인 일꾼들을 선별하여 공단지역에 파송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더이상 인종적 폐쇄주의를 버리고 외국인들을 우리 식구로 포용하는 아량이 요망된다. 우리 나라는 외국인들이 살기 힘든 폐쇄적인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인들의 감소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럼에도 10만 명의 근로자들 중에는 절대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이들을 강제로 귀국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이들을 선별하여 우리 식구로 삼는 정책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면 한국 국적을 허용하면서도 여자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남녀차별 정책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요구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사회를 시험하는 손님이며 아울러 한국 교회에는 제발로 들어온 선교의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사랑으로 포용하는 자세로 의식구조의 전환이 요망된다. 서구의 어느 나라처럼 강제로 추방하거나 돈을 주어가면서 나가주시요 하는 상황으로 국제적 여론이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선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전도해야 한다. 이제 더이상 일부 지원자들에게 외국인 선교를 맡기지 말고 교회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

편집자 주

위 글은 1994년 10월 24일(월) 중국어문선교회에서 주최한 중국선교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호진/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무

정리/권수영·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거든

조선족 교포사역과 한족 근로자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단체를 찾아

권수영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당시 천하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등에서 온 나그네들이었다. 그들은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들어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였다”(행 2장)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바로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저절로 한 곳에 모여든 것이다. 이는 우리를 찾아 온 이방 나그네들을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여 식당, 공사장, 공장 등에서 일하는 조선족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불법체류로 머물던 이들이 정부의 제재로 하나둘씩 귀국하자 곧이어 대거의 한족 근로자들이 산업연수 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어느덧 중국인

들이 가까운 이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 선교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척박한 풍토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여 고군분투하며 국내 중국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를 찾아 그들의 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교회가 조금만 힘을 모으면 저들은 너무도 쉽게 추수할 수 있는 황금어장을 증거하고 있었다.

복음전도와 사랑의 봉사,

인천 엘림해외봉사회

인천 국제 여객터미널, 한국과 중국을 잇는 황해 뱃길의 관문이며, 80년대 말부터 수많은 중국교포들과 중국인들이 코리안 드림의 부푼 꿈을 안고 찾아드는 곳이다. 바로 이 곳 부근에 위치한 『소양강 무역』 내부 자그마한 귀퉁이에, 인천을 드나드는 중국교포들과 한족 근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엘림해외봉사회(以琳海外奉仕會-이하 ‘엘림’이라 호칭)가 있다. 인천의 명물이자 중국선교 천혜의 요새인 이 곳

에서 92년도부터 국내 중국인 선교를 담당해온 총무 하여라 전도사는 국내 중국인 근로자 및 멀리 중국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

중국교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나가던 시절, 매일 한복을 입고 면세점 밖에 나가 호객행위(?)를 하며 성경과 전도지를 나누어주던 처음의 사역부터 시작해, 지금은 기술연수로 들어온 한족 근로자들에게 생일카드와 전도지가 담긴 편지를 보내고, 이들을 교회로 연결해주는 사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사역의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작은 사무실에서 나눠진 성경책과 찬송가만 1만 권 가량 된다고 한다.

중국교포 전도사역

매일 중국으로 출항하는 청도, 위해, 천진 여객선 시간에 따라 터미널 전도팀, 봉천동 사랑의 집, 인천제일교회, 동신교회, 영락교회 토마스선교회 등의 동역자들이 터미널 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설이나 추석에는 인천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중국인 초청잔치를 벌이고 있다. 중국 영혼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전하니 어느덧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도움을 청하러 사무실을 자주 찾기도 하고, 지방에 흩어진 이들은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한다.

또 엘림은 중국교포만이 아니라 중국을 오가면서 사업하는 평신도 기업가들에게 성경, 찬송, 전도지 등을 주어 대륙으로 전달하게 하는 중간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공단사역- 사랑의 편지 보내기

작년,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기간이 지

나자 교포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마침 이때부터 산업 기술연수의 명목으로 교포가 아닌 한족 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입국자 명단을 구하게 되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근로자들에게 생일 카드를 보내었다. 생일카드를 받은 이들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오고가게 되면서, 하여라 총무는 이들의 외롭고 불안한 마음에 한 줄기 위로가 되며 동시에 생명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 내었다.

지금 각 공단 중국인 근로자에게 편지와 전도지를 보내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가 다르고 또 작업장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중국 영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다.

일회적으로 그치는 사역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관심을 나타내는 편지와 전도지(한경직 목사 저 “기독교란 무엇인가?” 중국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어 원하는 사람은 전도지로 한국어를 배울 수도 있다)를 연속적으로 보낼 계획이다. 기대하기로는 계속 편지를 발송해 줄 교회 성도들이 연결되어, 주고받는 편지를 통해 사랑의 끈이 형성되고 중국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써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역을 함께 협력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현재 기도 중에 있다고 한다.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한국 내에 들어온 중국인 근로자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온 인원이 약 1만 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 확보된 인원은 겨우 1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루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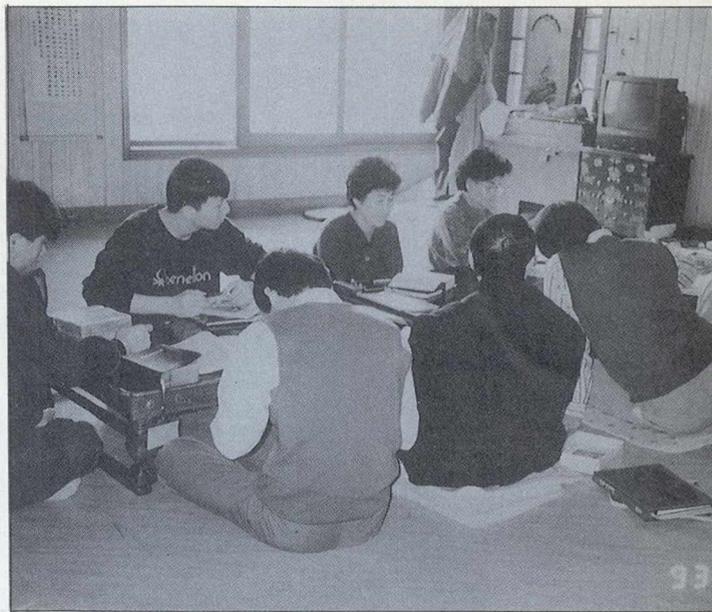
리 중국인 근로자 명단이 확보되는 일에 도움을 줄 동역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중국교포 제자양육사역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사랑의 집

1990년 12월, 중국 교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작은 규모의 전도단을 구성해 인천항, 서울역, 남대문 등을 다니며 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매주 월요일마다 C.C.C.회관에서 <방한중국교포초청 전도집회>를 열어 교포들을 불러 모아 찬양과 율동, 말씀 전하고 점심을 나누며 일대일 양육도 하였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기도하던 중 뜻있는 선교단체와 교회의 협력으로 4박 5일, 방한중국교포수련회를 하게 되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수많은 교포들이 변화되어 90% 정도가 결신하게 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였다.

수백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보니 그 가운데 예수에 대해 더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이 생겼고 지도자로 키울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기도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다. 곧이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사랑의 집』이 마련되어 중국교포 장기사역이 시작되었다. 월요전도집회, 수련회 등에 참석하여 은혜 받고 성경공부를 원하는 자와 중국에서 처소교회 지도자를 맡았던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의 제자양육훈련이 이루어졌다.

『사랑의 집』 책임자인 박애린 선교사(중국어문선교회 파송)는, 20여 명의 교포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훈



사랑의 집에서 공동체 합숙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중국 교포들.

련의 과정이 되어, 성경지식뿐 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갖추어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C 자매는 복막염 수술 후유증으로 20일 동안 물 한모금 못 먹고 죽어가다가 『사랑의 집』 식구들의 극진한 간호와 간절한 기도 끝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그는 3개월 동안 착실히 제자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집을 처소교회로 내놓고 30여 명의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동북삼성을 비롯 내몽고 등 대륙 전역에서 온 이들은 사역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봉사와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 교회를 섬길 일꾼으로 양육되어 다시 중국으로 갔다. 그런데 이 곳에서 3~5개월 제자훈련을 받고 중국에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어느덧 신학적 지식 면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 사랑의 집 사역은 또다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신학 및 경건서적, 주일학교 교재, 설교집 등의 전달사역과 현



안산장로교회의 중국인 예배 광경. 뜻 모르는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고, 어색한 듯 울동을 따라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은 그들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이다.

지 지도자훈련 사역이라는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여 『사랑의 집』 사역을 중국으로 확장하는 비전을 갖고 계획 중이다.

또한 국내에 중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공단사역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사역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 추석 공단에서 일하는 중국인 30여 명과 동남아인 25명을 초청하여 외국인추석연회 행사를 가지면서였다. 3박 4일 동안 광명시 서광교회에서 열린 이 행사는 첫날 서울시내 관광으로 시작하여 찬양과 울동, 복음선포, 교회 성도들의 정성어린 음식 대접 등 홀로 추석명절을 보내야만 했던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잊지 못할 사랑과 섬김을 보여준 기회였다.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이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한다. 사랑의 봉사와 복음을 전할 때, 얼어붙었던 중국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박애린 선교사는 앞으로 구체적인 국내 공단사역, 특히 제자 훈련 및 양육계획 등을 구상 중이다.

열방들이 모여 주를 찬양하는 안산장로교회

3D 업종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경기도 안산시, 지하철 안산역 광장에 내리면 각양 각색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이 몰려 있어 마치 인종전시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만큼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 거주하는 이 지역은 작은 중국, 작은 동남아시아를 연상케 한다.

안산역 광장 맞은 편에 위치한 “안산장로교회”는 성도 50여 명의 개척교회지만 안산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을 섬기는 선교의 장이다. 작년부터는 교회 맞은편 건물에 외국인들만이 예배드릴 공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마련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은 중국인 70여 명이고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인들이 30명 가량 된다.

“萬國都要來讚美主，萬民都要來讚美主! . . .”

매주 주일 오후 2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되는 중국인 예배에 모인 근로자들의 수는 50명 가량, 대부분이 20대 초반

의 청년들이다. 지난 추석초청잔치 이후 복음을 들은 30여 명의 중국인들이 동료들까지 데려와 꾸준히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중국인 목회자가 설교를 담당하면서 중국인들의 예배는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이 교회의 정순섭 전도사는 처음에 근처 공장마다 다니며 회사관리를 만나 주일에 근로자들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주일에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잔업을 시키는 회사도 많기 때문이다. 또 수시로 길거리에 나가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을 불러 교회를 소개하고 초청하였다.

중국인들을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설사 주일에 설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기숙사 방에서 노름을 하거나 무리지어 거리를 방황하는 것이 전부인 이들에게, 주일 하루지만 고향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위로받게 하는 것을 교회가 감당해나가는 것은 가장 좋은 선교의 기회라는 것이다. 이들은 교회를 통해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공급받는다. 현재 한영교회 의료선교회에서 한 달에 두 번 치과진료 봉사도 섬기고 있으며, 몇몇 사역자들은 한글을 가르친다. 앞으로 영어, 컴퓨터 등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능들도 가르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이들에게는 중국어 성경, 찬송, 소책자 및 쪽복음, 악기(키보드, 기타, 탬버린), 한국어 교재, 컴퓨터 등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제자훈련용 교재와 이를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절실하다. 그러나 작은 개척교회의 역량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

한국의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중국 및 동남아 선교의 황금어장인 안산의 근로자선교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안산장로교회 정순섭 전도사의 간절한 소망이다.

결론

이미 500여 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한 한국 교회, 지금도 중국선교에 헌신한 많은 이들이 여러 곳에서 훈련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면서 생명줄 던져 구원해 달라는 중국 영혼들의 손짓은 왜 돌아보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현지로 나가는 것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앞으로의 현지 사역을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 나온 중국인들은 그 영혼이 외롭고 가난하며, 또한 새로운 종교와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마음 밭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국내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국에서 복음을 영접한 중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의 교회나 사역자를 만나 계속적으로 양육되어, 교회를 돕는 일꾼,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땅 끝에서 이방인들을 불러다 모으기 시작하셨다. 제발로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온 이 나그네들을 위해 한국 교회의 구체적인 선교 전략이 세워져야 할 때인 것 같다. 일부 단체들과 개교회들에게만 사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협력하여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봉사와 더불어 복음을 전할 때 12억 중국영혼이 추수될 그 날이 더욱 가까워지지 않을까?

캡틴 예수

만선의 기쁨 - “와서, 도우라”

임화평

우리의 밥(?)이 오고 있다

“복적복적--- 쌀라쌀라! 따갈따갈!”

“앵? 무슨 소리지? 아니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대체 누구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쉬-잇! 조용히 하세요. 크게 소리치르면 우리 밥줄 끊어져요.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앞에는 낯선 나라의 얼굴들과 언어들(이)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던 ‘단일민족’이라는 사고가 흔들리고 있는 요즘이다. 배들이 자주 드나드는 항구 도시나 공단일대에 가보면 낯선 나라의 얼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복음전도의 사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리만치 너무나도 놓치기 아까운 기회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항만에서 만나게 되는 외국인 선원들 역시 외국인 근로자만큼이나 복음전도의 귀한 기회인 것이다.

그렇다!! 과거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이방인을 복음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이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우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정식적인 통로로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공산권 지역이나 회교권, 힌두교권

에서 한 영혼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로 세우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항상 긴장감 속에서 선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사단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잠그고 영혼들을 숨겨 놓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복음저지 계약은 쉽게 무너지고야 마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

한중 수교 이후 활발한 왕래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선박들을 타겟으로 삼고, 중국어문선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승선사역에 동참한 것은 지난 92년부터 이다.

그동안의 활발한 사역을 통해 알게 모르게 맺혀진 풍성한 생명의 열매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선원들의 모습, 하나님을 알고자 믿고자 갈망하는 그들의 눈빛, 관광을 통해 다져진 친분과 우의 등...

일년을 마감하면서 그 동안 사역 중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금 회고해 본다.

‘왕눈이’ 선원이 만난 예수님

지난 2월이었던가? ‘왕눈이’라는 재미 있는 별명을 가진 중국인 선원이 있었다. 그는 이전부터 안질을 앓아왔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늘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가 인천항에 도착하여 우리 사역팀을 만났을 때, 그의 안질은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른 상태였다. 함께 일하는 선장도 처음엔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더니 부하 직원의 안질이 심각한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요청해 왔다.

왕눈이 아저씨는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서 어렵게 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예상 외로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딱한 사정과 형편을 의사에게 말하자 마침 기독교인이었던 그 의사는 치료비 전액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오히려 우리 사역팀을 부러워하며 그 선원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왕눈이 아저씨는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또 한번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으로 눈이 커졌다. 그는 우리 사역자들의 친절과 도움에 감동을 받음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자신의 아내와 가족에게도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겠다는 결심의 말을 남기고 떠났다.

부품도 얻고 예수님도 만나고...

지난 9월에 방문하였던 G배가 생각난다. 그 날도 선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복음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배의 선장이 부탁할 것이 있다며 한참 망설인 듯이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사실 배에 고장이 생겨 부품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른다면 꼭꼭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우

...마침 기독교인이었던 그 의사는 치료비 전액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오히려 우리 사역팀을 부러워하며 그 선원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었다.

리는 기꺼이 승낙하고 담당 선원과 함께 부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품 밀집상가에 가서 이곳저곳을 뒤져 부품을 구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출항할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구해야 했는데 구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던 중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어떤 친절한 상점 주인이 서울 S상가에 가면 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었고, 우리는 다음날 S상가에 가서 다행히 부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어렵게 산 부품을 갖고 인천을 향하는 길, 마음이 얼마나 기뻐던지... 마치 구원받을 영혼을 얻어 가는 기분이었다.

부품을 건네받은 선원은 무척 기뻐하며 “세세(謝謝)”를 연발하였다. 도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하며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양하면서,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감사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선물대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믿으라는 권면의 말을 해주었다. 다행히도 믿어보겠다는 기쁨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 그들이 어느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지, 어느 항구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쪼록 모든 선원들이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기를 소원한다.

선장을 변화시킨 선장 예수님

지난 10월에 방문한 배 중에 특히 인상에 남는 Y 선장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작년에 인천에 와 본적이 있다는 Y 선장님은 작년에 왔을 때와는 다른 인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작년에는 사역자들을 무척 경계하며 냉대했었다는데, 이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부드럽고 차분한 인상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고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Y 선장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작년에 받았다는 작은 성경책과 설교 테이프, 전도지 등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종종 조용한 시간을 통해 읽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지만 무엇인가 심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하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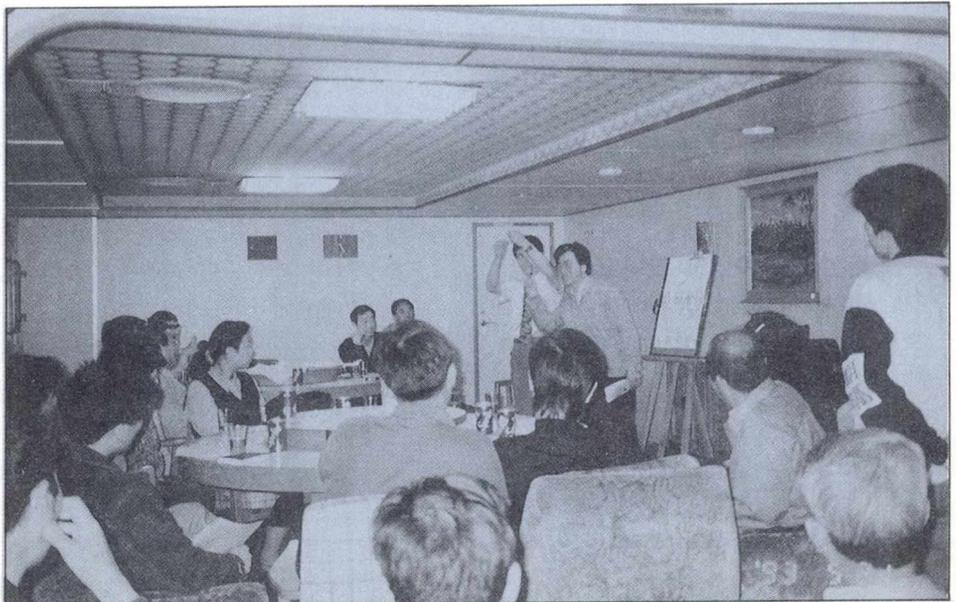
이틀 후에 함께 드릴 예배를 약속하고 다시 찾아갔을 때 약간의 해프닝이 발생했다. 약속시간을 잊고 있었는지 마침 우리가 승선했을 때 휴게실에서 TV와 오락을 즐기고 있던 선원 몇몇은 낮뜨겁

게도 속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더욱이 파자마만 걸치고 있던 선장의 당황해하는 표정이란...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하며 혈레벌떡 방으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느라 혼났었다(이를 아주 담대하게 구경하는 짓곳은 자매도 있었지만).

잠시 후 말쑥한 차림으로 나타난 선장과 선원들이 거의 모두 동참하여 여느 배와는 달리 자리를 꽉 메웠다. 그들은 찬양과 전도의 메시지를 들으며 줄곧 진지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들이나, 이미 성경에 대해 들어봤거나 은밀히 읽고 있다는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모습이 역력했다. 우리가 가져간 문서, 책자를 앞다투어 서로 가져가려는 선원들의 호기심에 차 있고 갈급해하는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선원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사과 한 박스를 우리에게 선물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어려운 형편

중국인 선원들에게 보다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선실에 모인 선원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사역자들.



을 알고, 마침 페스트 공포가 한창이었던 때인지라 세관을 통과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안해서 성의의 표시로 몇 개만 가지고 나왔다. 그들을 잊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승선사역을 하다보면 드물게 기독교인 선원을 만날 때가 있다. 지난 11월에 방문했던 배에서 만난 신실한 그리스도인 형제 두 명이 생각난다.

그날은 선원들과의 예배가 미리 약속되지 않았고, 그나마 와야 할 자원봉사자들이 오지 않았기에 남은 두 명만 승선해야 했다. 낙심된 나머지 쉬고 싶은 잠깐의 유혹이 밀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된 영혼을, 구원받을 그 누군가를 준비시켜 놓으셨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항만에 들어갔다. 마침 우리가 들어갔을 때 시내에서 쇼핑하고 배로 돌아가는 중국인 선원 몇 명을 만나 차에 태웠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일하는 중국 배에 올라갈 수 있었다.

배에 들어섰을 때 한 선원이 대뜸 중국식 영어로 “Are you a Christian?”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며 무척 반가워하였다. 뜻밖에 믿는 형제를 만난 우리 역시 너무나 반가웠다. 가져간 성경과 문서를 그 선원과 다른 선원들에게 전달하고, 믿지 않는 선원들에게 예수님과 구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고 예수님을 믿기를 권했다. 그리스도인 형제에게는 가져간 복음송 테이프를 건네주었는데, 마침 육지에 온 김에 꼭 주일예배를 드리고 싶다며 교회 위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적극성과 신실함을 보여주었다. 그 형제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마터면 게으름에 사로잡혀 오지 않

중국에서는 성경책이 턱없이 부족하여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제는 한국에 온 즉시 성경책부터 찾았다고 한다.

을 뻔한 유혹을 이겨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형제와 헤어진 후 또 다른 중국 배를 찾았다. 마침 배에 오르려는 순간에 한 선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의 소식을 밝히자, 그는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반가워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믿음의 형제를 주께서 택하여 만나게 하심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C 형제는 자신의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고, <E 봉사단>에서 주었다는 하얀 종이로 겹포장을 한 성경책 몇 권을 보여주었다. 중국에서는 성경책이 턱없이 부족하여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제는 한국에 온 즉시 성경책부터 찾았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 보니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 한국의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부흥한 모습을 부러워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교회 형편을 말해주었다. C 형제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고향 교회에 성경책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라면 박스안에 차곡차곡 넣은 성경책을 보여주었다. 그 때 그 하얀 표지의 성경책이 왜 그리 아름답게 보이던지...

다른 중국 배에 불 일이 있다는 그를 데리고 항만을 누비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 싶다면 중국어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귀에 익숙한 찬양이었으므로

우리 일행도 중국어에 맞추어 한국어로 함께 찬양을 불렀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고된 항해로 인해 피곤에 지친 영혼, 하나님을 향해 애뜻하게 갈망하는 글썽 글썽한 눈빛을 통해 한 영혼의 순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을씨년스러운 늦가을의 바람과 함께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항만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손을 흔들며 서 있던 그 중국인 형제의 모습이 지금도 아른거린다.

때때로 사납게 밀려드는 풍랑과 삶의 바다에서, 항해중에 만나는 고독과 싸우며 항해를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승선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믿지 않는 선원들이 바다와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항상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를 다시금 기도드린다.

이곳이 선교현장

이와 같이 승선사역을 통해 나름대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크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현지의 어려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며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쏟는 열정은 목숨보다도 더 강렬한 수고와 사랑이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외국 현지에서의 선교사역에 비중을 높게 두고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가능한 이방인 대상의 선교사역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승선사역을 통한 선교는 단시간 내에 전도의 효과를 배가하여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감안하면서 장래에 대한 기대와 현지에서의 복음화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지역에서는 온 많은 외국 선원들을 주께로 인도할 동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어가 준비되어 있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즐거이 헌신할 일꾼들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외국어를 조금이라도 구사할 수 있고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라면 자원봉사자로서의 동역도 우리의 사역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과 전도지 등의 문서보급과 설교와 찬양 테이프 보급을 위한 물질적 뒷받침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턱없이 부족한 선교의 일꾼들, 열정은 있지만 실력이 부족하고 실력은 있지만 선교에 대한 인식과 담대한 헌신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과 계획하심을 갖고 일하고 계심을 본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더욱 큰 바람은 우리 한국 교회가 물질적 뒷받침 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인식과 비전과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일꾼을 키워내는데 힘쓰기를 바라는 것이다.

세계 선교는 바로 한국에서부터!!

한국 교회, 중국선교에 앞선 연구와 훈련사역이 필요하다

함태경

한국 교계의 중국선교가 조선족 중심, 무분별한 물량위주로 인해 현지에서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선교전문가들은 대만·홍콩 우회진출, 지역별 선교전략 수립, 화교와 방한 조선족, 한족 전도 등을 새로운 선교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현지만을 고집하던 지금까지의 선교관에서 탈피, 대만·홍콩은 물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중국선교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며, 중국 내 56개 민족을 모두 끌어안기 위해 먼저 지역별 민족별 선교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뜻있는 기독교인들도 선교가 교단·교파 중심으로, 대상은 조선족에게 맞추어져 있었기에 중국인의 상황 현실과는 괴리를 보여왔다면서 국내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조선족, 한족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중국선교론을 향후 선교사가 파송되어 사역하기 이전에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한국 교회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그 한계성을 갖고 출발했다는 사실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사전 정보부족과 연구결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중국을 연구할 수 있는 풍토는 조성돼 있는가. 선교단체들은 어떻게 중국연구와 사역을 연결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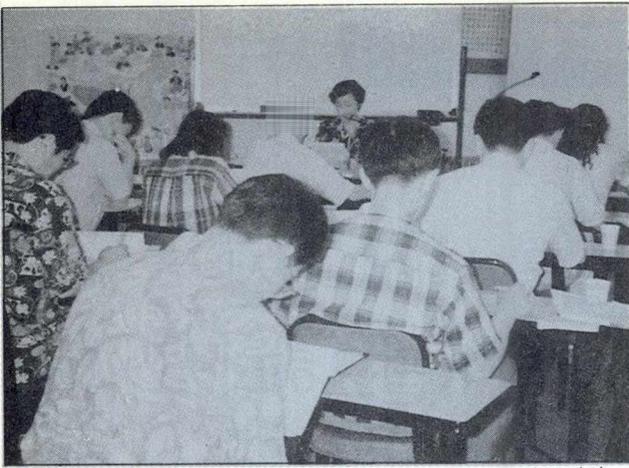
첫째, 선교훈련을 통한 중국 연구를 들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심어주고, 현지 적응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각 선교단체들의 훈련과정은 국내에서의 선교가능성을 높여주는 실례가 되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중국선교훈련원>과 중국복음선교회의 <중국선교사훈련원>은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사역분야이다. 특히 이 훈련과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사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기도 한다.

현재, <중국선교훈련원>의 선교 중국어 집중코스, 계속코스에 20여 명이 5기 훈련과정 훈련생으로 등록해 훈련중이다.

올해 3월 개원 예정인 <중국선교사훈련원>은 「중국민족의 복음화」, 「중국



중국을 바르게 이해하고 현지적응능력을 배양시키는 충분한 준비와 훈련이 갖춰진 헌신자들이 현지에서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의 수업 광경

교회의 하나님 나라화», 「중국문화의 그리스도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출범한다. 언어와 사역훈련을 충분히 갖춘 사역자를 배출할 훈련원은 특히 중국 선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성도의 양육과 훈련된 사역자의 부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통한 중국인에 대한 간접연구는, 대부분의 선교단체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한 교회 또한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 있는 화교선교는 중국선교의 훈련과 연구의 한 방편이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 산재해 있는 화교를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중국현지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화격차를 일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역의 예다.

현재 화교의 숫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72년 3만 3천3백61명이던 화교가 90년에는 2만 3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거주 인구는 1만여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통계가 있듯이 「유입인구 동결」, 「이민」 등의 요인에 의해 화교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한중화기독교회는 현재 서울, 인천, 수원, 대구, 군산, 부산 등 전국적으로 7개소가 있으며, 이들은 재단법인 중

화 기독교유지재단 연합회를 결성, 연합집회와 수련회개최 등 교회간의 협력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화교교회들은 교역자의 부족과 성도들의 전도열의 결여 등으로 인해 한중 수교 이후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과 조선족에 대한 선교사역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 선교사 후보생들은 먼저 화교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화교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그들 가운데서 투철한 소명감을 갖고 있는 교역자 후보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화교와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배우자, 중국어만을 배우려는 욕심을 갖고 찾아온 학생과 선교사 후보생 등의 화교교회 출석이 자칫 화교 교역자의 목회에 방해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실정이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교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부분도 클 것이다.

이의 실례가, 한성교회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중국복음선교회, 부산교회의 중국선교 언어훈련센터 등이다. 이들 교회는 한국-중국, 한국-대만간의 안내와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교회와의 동역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셋째, 방한 조선족, 한족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헌신과 더불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시급한 형편이다. 현재 몇몇 선교단체만이 방한 조선족·한족 선교에 힘쓰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역자가 적고 교회의 인식부족 등으로 복음이 원활하게 전파되지 못한 형편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연구부족에서 오는 것이며 「집안에 들어온 귀인을 박대하는 꼴」이다. 중국연구는 한국 교회에게

중국선교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선교전략 수립에 필 수불가결한 요소다. 더욱이 중국선교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비전과 헌신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귀한 사역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연구 출판사역에는 잠잠하다. 「중국 교회와 선교 연구소」만이 실질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을 태세가 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 중국복음선교회는 연구소장 왕쓰웨 목사, 연구원 한윤숙 간사로 진용을 갖추었으며 95년 7월경 「중국교회와 선교」라는 전문연구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선교회 관계자는 선교훈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던 『중국과 교회』를 대폭 보완, 중국의 교회가 처한 상황, 문제점을 파헤치고 한국 교회의 중국 현장에서의 선교현황, 방법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효과적인 선교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어문선교회는 연구사역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선교정보를 수집, 자료화와 함께 중국교회의 동향 분석, 중국소수민족 및 각 성별 연구, 선교전략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는 또한 『중국을 주께로』를 격월간으로 발간해 중국선교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할 뿐만 아니라 『중국선교핸드북』을 펴내는 등 출판사역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중국을 주께로』는 지난 89년 창간호가 나온 이래 창간 5주년이 됐으며, 지난 5/6월호(27호)부터 유가지 체제로 개편, 책임있는 중국선교지로 탈바꿈한 바 있다.

중국선교연구사역의 기근을 단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은 중국선교관련도서의

중국선교에 뜻을 갖고 있는 목회자, 선교사 후보생, 전문인 선교사 후보생, 평신도들이 공히 느끼고 있는 중국연구서적과 연구소의 부족이 채워질 때만이 비로소 중국선교의 출발선 위에 서 있게 된다.

출판현황이다. 『중공의 기독교 정책』(호산나), 『중국대륙선교』(칼빈서적), 『중국대륙에 부는 바람』(조이선교회), 『중국선교핸드북』(두란노서원), 『허드슨 테일러 1,2』(두란노서원), 『중국의 개신교 첫선교사 로버트 모리슨』(한국기독교사역연구소),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전문인 협력기구), 『중국선교』(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중국선교의 어제와 오늘』(개혁주의 신행협회) 등이 현재까지 발간된 중국선교 관련 도서들이다.

이상에서 보듯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는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다고 감히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선교에 뜻을 갖고 있는 목회자, 선교사 후보생, 전문인 선교사 후보생, 평신도들이 공히 느끼고 있는 중국연구서적과 연구소의 부족이 채워질 때만이 비로소 중국선교의 출발선 위에 서 있게 된다. 한국 교회와 각 선교단체들이 빨리 자각하고 분발해야 할 것이다.

소리없는 말이 만리장성을 넘는다

문서로 전하는 복음

석은혜

문서선교의 중요성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한 말씀을 통해 타락한 인간들과 의사를 소통하셨고, 구원계획과 그의 사랑을 알려 주셨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 1:1~2).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참 선지자이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그 후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나 여러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었고 문서로 정리되기에 이른 것이다.

문서선교의 근거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약 1500년 간 40여 명의 선지자, 제자들이 참여하였다. 지금도 이미 기록되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방법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독교 선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성서를 근거로 하여 쓰여진 문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문서선교이다. 문서를 통한 선교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건설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이 사역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비디오, 오디오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해 문서선교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선교로 확대될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문맹률이 높은 지역이나 어린이 선교 등 사역의 대상에 따라 이런 매체를 이용한 시청각자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들어 시청각자료를 활용하는 선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설사 그러할지라도 전통적인 문서선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선교방법이다. 특별히 창의적 접근지역에서의 문서선교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선교방법 중의 하나이다.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문서선교

중국교회의 필요

중국 삼자교회에서 발행하는 “천풍”이라는 월간 신앙잡지(94. 6월호)에 게재된 소식에 의하면, 삼자 소속의 애덕인쇄소에서 7백만 권짜 성경을 인쇄하여 기념식을 가졌다고 한다. 중국이 개방화된 이래, 자체적으로 인쇄한 성경이 7백만이고, 9월 말까지 8백만 권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 발행한 성경이 다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7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10명당 1권의 성경이 할당되는 숫자이다. 해외에서 비공식 통로를 통해 수백만 권의 성경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많은 신도가 성경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애덕인쇄소를 통해 성경책이 계속해서 인쇄되고 있지만 그 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증가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서적이 많이 필요하다. 성경과 신앙서적이 부족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 갈 가능성이 많다.

만약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서적을 번역하여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책 선정을 잘 해야 한다. 현재 중국교회의 신앙수준, 문화수준에 맞는 적합한 책을 선별해야만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며, 우리의 투자가 보다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중국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신앙서적 중국교회는 지도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중국을 복음화하는 데 효과적인 선교전략 중의 하나는 지도자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접 전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신앙서적은 무엇일까?

홍콩 중국복음회의 대표인 조나단 차오 목사가 제시한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중국의 농촌 전도자 양육에 필요한 책은 『신구약개론』, 『그리스도의 생애』, 『요한복음』, 『바울의 생애 및 서신』, 『로마서 등 각 성경해석서』, 『구속역사(성경신학)』, 『구속의 은혜

현재 중국 교회의 신앙수준, 문화수준에 맞는 적합한 책을 선별해야만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며, 우리의 투자가 보다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신학(조직신학)』, 『서방교회사』, 『중국기독교사』, 『성경해석학』, 『전도신학』, 『그리스도의 신도』, 『교회론』, 『설교학』, 『농촌교회학』 등으로 선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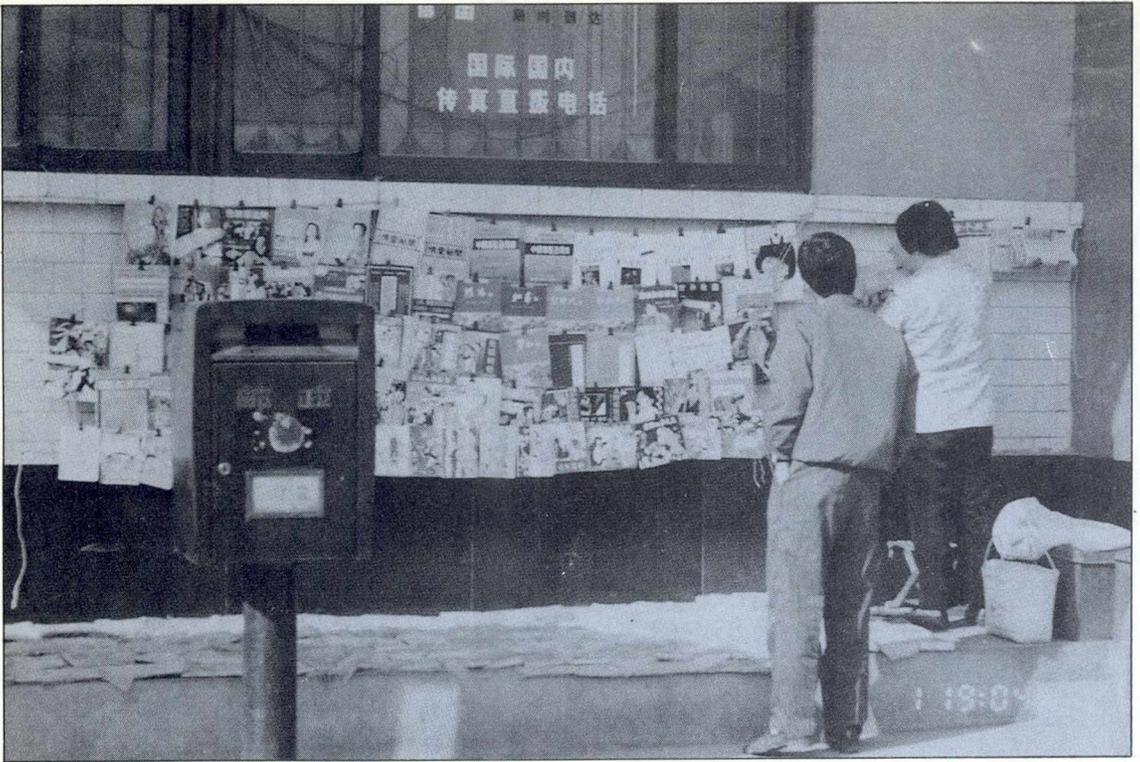
지식인들에게 필요한 서적은, 사상체계 중건에 필요한 참고서적으로서 기독교적인 각도에서 사상체계를 비판하고 훈련시킬 책이 필요하다. 『변증학(기독교 가치체계와 인문주의간의 차이)』, 『기독교와 서방문화의 구조』, 『기독교와 중국문화』, 『기독교의 사회와 정치에 대한 태도』, 『기독교와 과학』, 『극단적인 교의 및 이단에 대한 참고자료』, 『현대이단평론』, 『교회의 역사적 측면에서 본 이단』, 『성경적 각도에서 본 이단』, 『현 중국 교회에 대한 이단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주일학교 공과와 주일학교 교사용 참고서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중국 교회를 위해 문서를 지원하고자 할 때 무작위로 도서를 보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보내야 한다.

문서지원, 전달 사역

지도자 훈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문서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일반 서적은 잘 팔리지 않고 있는데 기독교



서적은 많이 팔리고 있어 믿지 않는 개체(個體) 상인들에 의해 불법인쇄된 기독교 서적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중국어로 된 전도지와 기초성경공부 교재를 지원, 전달하는 일로 문서선교를 할 수 있다. 중국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생활비 이상으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중국어 전도지와 중국어로 된 기초성경공부 교재를 포함한 여러 도서들이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이 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현지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에 손으로 쓰거나 타자기로 쳐서 임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서지원 사역은 이제 그 어느 지원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선교사와 함께 문서도 같이 파송돼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 교회가 이일에 협력하여 기도와 물질로 도움으로써 중국어로 된 문서 제작에 동참할 수 있다. 이 문서가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문서사역의 방향, 국제협력 방안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에 필요한 문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를 번역, 출판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길 수 있는 중국어에 능통한 헌신된 일꾼이 부족하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간체자로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소가 거의 없고 혹 있다 해도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홍콩의 CCL(福音證主協會), CMI(中國福音會)와 협력하여 소용되는 부분들을 도와야 한다.

현재 출판사역을 지원하는 CCL에서는 간체자로 양질의 복음서적, 지도자 훈련용 서적들을 인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좋은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문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지역적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지역은 홍콩의 교회가, 또 어떤 지역은 대만의 교회가, 또 다른 지역을 한국교회가 맡아서 그 맡겨진 지역을 책임지고 그곳의 필요를 돕고 문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한국교회는 중국의 동북삼성과 산둥성을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중국선교를 위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선교의 상황

선교현지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만든 문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대한 이해이다. 우리는 열심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막연한 기도를 할 때가 많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할 때 그곳의 상황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한다면 기도가 더 확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선교사의 상황과 선교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문서 등의 출판이 활발해져야 한다. 선교지를 가보지 못한 분들이 좀 더 생생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분명히 해외 문서선교의 큰 분야이다.

이를 위해 중국어문선교회의 『중국을 주께로』가 발행되고 있으며, 중국복음선교회는 95년 7월 쯤 『중국교회와 선교』라는 전문연구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선교회는 협력하여 중국선교총서를 발행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는 중이다.

문서선교에 있어서의 과제들

중국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문서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문서 사역자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하다.

현재 문서선교를 위해 일하는 기독교 문서전문인이 부족한 상태이다. 문서사역 종사자는 신학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도 대부분이 그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자질과 소명의식이 부족하다.

한국교회가 중국선교에 있어서 문서선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 문서선교는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 효과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기에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 때문에 헌신된 일꾼이면서도 자질과 능력을 갖춘 문서사역자들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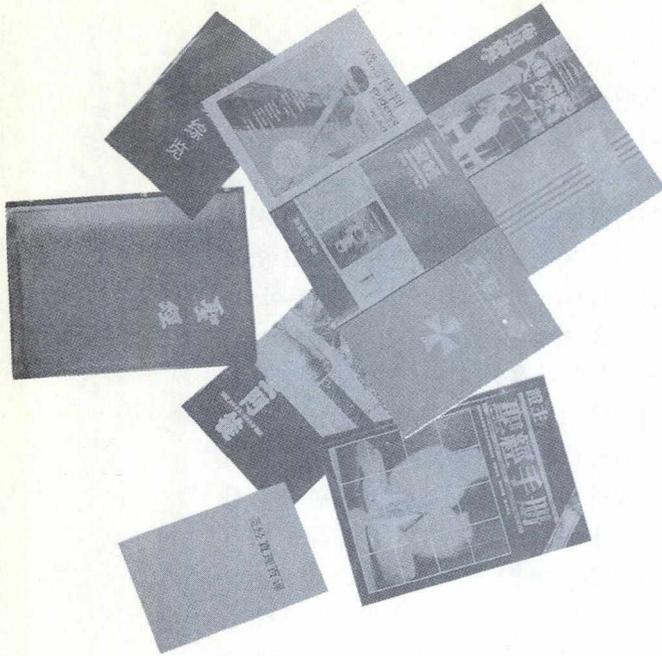
중국선교에 있어서 문서선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문서사역자 자신이 문서선교에 대한 뜨거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역을 평생의 사역으로 알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문서선교를 위한 실제적인 제안

현지에서 직접 인쇄

중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문서를 지혜롭게 전달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전달사역에는 과중한 경비 부담, 지역편중 등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 현지에서 직접 출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인쇄장비가 비교적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므로 좋은 인쇄장비를 중국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인쇄, 출판하여 그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다.

현지에서 직접 인쇄가 가능하다면 홍콩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책들 중에서 선별하여 홍콩의 관계기관에 판권을 얻어 인쇄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신학서나 신앙서적을 증역하여 인쇄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중국현지에서 번역팀, 편집팀, 출판팀을 구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해 나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사역할 헌신된 문서 사역자를 길러내야 한다.

홍콩선교단체와 협력해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홍콩에서는 간체자로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다.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CCL인데 현재 이 단체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한국교회가 이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여 그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직접 중국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또 그 책을 한국으로 가

져 와서 한국에서 들어가는 분들을 통해서 중국에 전달할 수 있다.

현재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CCL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를 초청, 4월 28~29일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들과 중국교회 문서지원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맺는말

우리는 앞서서 문서선교가 중국의 현 상황에서 매우 절실하고도 효과적인 선교 방법임을 살펴보았다. 더구나 중국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이단들의 극성을 대처하고, 늘어나는 중국 성도의 영적 수요를 채우려 할 때, 문서선교의 사역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2가지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 문서선교를 수행해 나갈 인재 양성과 활발한 문서출판이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의 지원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닌 다른 여러 국내외 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교회가 지난 90년 이래 앞다투어 개교회나 개교단별로 중국선교에 나서 왔지만, 이런 문서선교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너무도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 문서선교의 방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교회적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재정과 인력을 돌릴 수만 있다면, 중국선교는 이전보다 훨씬 활성화되고 보다 내실 있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늘에서 전하는 복음

복음방송을 통한 중국선교

석은혜

방송선교의 필요성

복음방송은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중국, 북한, 러시아, 몽고 등)에 살고 있는 15여 억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이다.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방송선교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극동방송(FEBC)과 아세아방송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복음의 전파를 보내고 있는 기관이다. 극동방송은 1956년 인천에서, 아세아방송은 1973년 제주도에서 각각 개국하였고, 1979년 공동 운영을 시작, 지금까지 '북방선교의 기수'로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퉁이돌선교방송을 비롯 몇몇 선교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방송을 제작, 단파 주파수를 이용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 등에 하루 30분 정도의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전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현지로 직접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제작하는 방송으로 다수의 영혼을 향하

여 생명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사역이 있을까?

방송을 통한 중국선교

대한민국 인구의 30배가 넘는 12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 이 가운데 6천만 내지 7천만의 크리스천들이 있다. 전 인구의 8%인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을 듣지 못한 11억 3천만의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현지의 교회들과 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리라. 그러나 현재 중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지도자의 부족과 성경, 서적 등의 절대 부족한 상황과,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할 때, 중국으로 자유롭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는 복음방송뿐이다.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방송의 전파를 송출해왔다. 극동방송은 100KW의 송출력으로 2시간 30분의 중국어 방송을, 아세아방송은 민간방송으로서는 최대출력인 250KW로 5시간 15분의 중국어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특히 양 방송사는 가장 좋은 밤 시간을 이용하여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꿀송이보다 단 생



모퉁이돌 선교회제공

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다. 동북지역은 물론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까지 폭넓은 가칭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복음 방송은 성경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되고 있다.

극동방송의 중국사역은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1969년 이전, 즉 문화혁명의 회오리 속에서 중국의 기독교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시기에는 과연 중국인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묵묵히, 그러나 완전한 믿음만으로 사역을 하였다. 그러다가 1969년부터 1978년까지 10년동안 중국 신도들로부터 177통의 편지를 받았다. 조금씩 해빙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극동방송은 새 국면을 맞이하였다. 즉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중국성도들의 편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방송을 애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내오는 것이었다.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중국 전역 방곡곡으로부터 약 13만통의 편지가 발송되어 왔고, 1992년 중에는 9,342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쓴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은 50%, 비기독교인은 30%, 믿고자 하는 사람은 20%였다고 한 중국방송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 통의 편지는 적어도 수천, 심지어 수만 명의 청취자를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다.

중국이 개방되면서 라디오청취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청취자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1994년에는 평소의 두 배인 2만여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특별히 중국의 대학생 등 젊은 지식인 계층의 편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5년 간 아세아방송이 받은 편지만해도 15만여 통에 달한다.

중국교포들이 보내 온 편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저는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었습니

다. 작년 12월 20일에 수면제 200알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때 절망 중에 해매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방송을 듣던 중 희망을 발견했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주님의 뜻이겠지요? 새로 시작한 저의 삶이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성숙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금년 37세이며 15세에 병들어 의료사고를 만나 하반신을 못쓰는 불구자로 한 평생을 보내는 중에 우리 부락의 교회에 다니는 5명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아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도 지식도 부족하여 교회에도 못 참가하니 성경책을 해석할 수 없어 아침마다 당신들의 방송 강의를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주로 성경 문답 응답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성경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고 신앙서적이나 주석 등은 찾아 볼 길 없는 중국에서 이러한 요구들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처소에 배를 드리며, 어떤 이들은 지도자로 양육되고 있다. 또 편지 내용에는 그리운 혈육을 찾아 달라는 교포들의 애절한 사연이 끊임없이 배달되고 있어 극동방송은 국내 거주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일에도 애를 쓰고 있다.

이러한 편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는 중국선교전문가들은, 편지 내용을 분석할 때 중국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중국 전역에 편만해 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40년 간의 공산치하에서 교회의 문이 닫히고 목회자, 신도들이 감공과 구타, 심지어는 죽음의 고난 속에도 곳곳하게 신앙을 지키

“저는 그 때 절망 중에 해매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방송을 듣던 중 희망을 발견했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주님의 뜻이겠지요?”

면서 신도 수가 수십 배로 증가한 원인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특히 방송선교를 이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한국의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은 “북방선교의 기수”로서 북방선교방송과 함께 한국 교회의 북방선교활동 전반을 이끌어 가는 책임을 맡고 있다.

현재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다가오는 21세기까지 중국의 개신교인을 1억으로 배가시키고 100만 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국의 새벽 2000”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목표대로 달성된다면 2000년에 1천 명의 중국인 가운데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복음방송이 단순히 복음을 전할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말씀양육을 통한 제자훈련·지도자 양성을 감당한다는 의미이다.

중국 교회의 한 지도자가 보내온 편지에 따르면, 지금 중국에 있는 3만여 개의 처소교회 성도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을 들으며 믿음생활을 한다고 한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도들이 성경과 문서를 전달하는 것 외에 복음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전달하는 사역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송선교의 장점

주지호 목사는 “중국과 교회”(중국복음선교회 발행) 32호에서 방송선교의 장점을 이렇게 들고 있다.

풍부한 보급성

1980년에 2,620만대의 라디오를 생산했다는 통계가 있다. 1985년에 평균적으로 집집마다 1대의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총인구에 대한 라디오를 소유한 인구비는 22.8%이다.

전파의 보급성

중국 지역은 넓기 때문에 전파를 발사하면 많은 청취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비록 중국 대륙에 방언이 많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표준어가 통용되므로 라디오는 이 방면에 만족할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라디오는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기에 거의 “무소부재(無所不在)”라고 할 수 있다.

비용의 경제성

전자 매체중에서 라디오가 가장 경제적이다. 한편의 설교내용을 교회당에서 100명에게 설교할 때와 라디오를 통해 100만 명에게 설교할 때, 방송을 통한 것이 비용면에서 많이 절약되어 경제성이 좋다.

내용의 신뢰성

같은 내용의 말을 마주보고 하는 것보다 라디오를 통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람들은 방송을 더 믿는다. 왜냐 하면 방송에는 법률과 윤리, 그리고 사회 대중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라디오의 신뢰성은 일반 대화보다 높다.

친밀한 개인성

복음방송은 비록 대중매체에 속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1대1 전파형식으로 내보낸다. TV는 전 가족이 보지만 라디오는 거의 자기 혼자 듣는다. 라디오는 동시에 천만인을 향해 개인에게 전도하는 가장 좋은 매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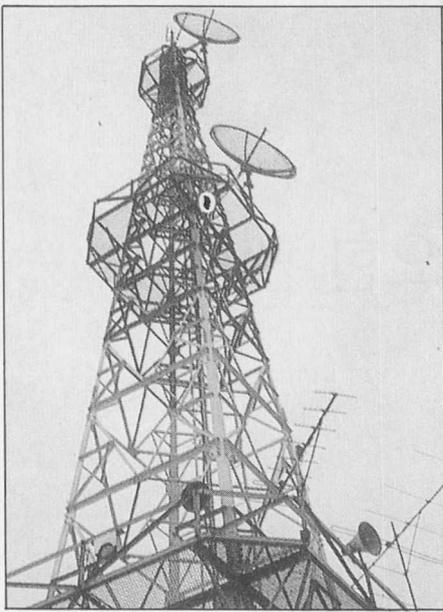
방송선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

방송프로는 설비가 쉽고 음악과 음향효과 방면에 무궁무진한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방송선교를 하는 분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것은 복음방송이 다른 매체에 의해 <대중(大衆)>이 분열되어 <분중(分衆)>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5년 중국사람의 라디오 보유율은 22.8%인데 비해 TV는 3.9%였는데, 1990년에 와서는 라디오는 22.0%로 줄고 TV는 16.2%로 늘었다고 한다. 이것은 점점 라디오 방송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점점 TV의 보유율이 증가되면 라디오를 통한 복음 전파는 어려워질 것이고, 따라서 지금이 야말로 기회를 잘 포착하여 복음전파를 힘써야 할 시기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실례이다.

중국가정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한 사역자는, 방송선교는 중국 내에서 신도들을 양육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한계도 있다고 말한다. 대륙의 가난한 가정에서는 한대에 인민폐 50원하는 중파라디오를 살 수가 없고, 단파라디오는 인민폐 200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구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성도들이 성경과 문서를 전달하는 것 외에 복음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전달하는 사역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궁벽한 농촌



지역의 가난한 신도들에게 라디오를 보급해 주는 것은 성경을 전달하는 것만큼의 가치 있는 선물이다.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운영은 전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상업광고 방송을 전혀 송출하지 않는 아세아 방송은 재정적인 면에서 적잖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극동방송국은 1995년에도 창원을 비롯한 지방국 설립과 노후장비 교체, 하바로프스크 FEBC 러시아 사옥 준공 등 막대한 책임량이 산적해 있다. 특히 노후된 방산송신소의 예비 송신기 교체는 관계당국으로부터 늘 지적을 받고 있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한다.

이에 양 방송사는 방송선교를 위해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들을 '전파선교사'로 구분, 이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섬기고 있다.

맺는 말

복음방송을 통한 중국선교는 중국이 개방의 길을 걷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사람의 왕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도 죽의 장벽을 넘는 거의 유일한 선교사였

다고 할 수 있다.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방송을 통한 중국선교가 방송의 여러 장점들에 힘입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아세아방송이나 극동방송이 헌신된 성도들이나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온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중국 사회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방송국의 현대화를 통한 선교방송의 고품질화나 다양화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은 중국선교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 앞으로도 그들의 신앙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음을 잘 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라디오를 갖지 못한 중국 궁촌 벽지의 성도들에게 라디오를 전달해 주는 것 역시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선교적 과제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일에는 교회나 교단의 유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중국선교라는, 주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절대절명의 사명이라는 점에 겸손히 순종하여, 전교회적이며 조직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참고도서

<방송선교>, 극동방송·아세아방송, 1992. 5·6월호, 7·8월호, 1994. 11·12월호
<중국과 교회> 32호 중국복음선교회

석은혜/ "중국을 주께로" 편집장
중국어문선교회 간사

중국선교를 위해 필요한 사람

문상철

변하는 세상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변화하는 세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복음을 수용하는 세상은 변화무쌍하기만 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변하는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에 세계 인구는 1억 7천만 명도 채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56억 7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당시에는 사회집단이 그렇게 분화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이다. 당시에는 한 교회가 12종족 집단씩 맡아서 복음을 전해야 했으나, 지금은 약 600개의 교회가 한 종족씩을 맡아서 선교하면 된다. 복음 전파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의 변화는 예측한 대로되어 가는 것이 아니다. 1000년 전, 100년 전, 아니 10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많이 변하고,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의 사실은 오늘의 허구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

도로 어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어제의 사실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오판이 되기 쉬운 것이다. 이 모두가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역할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내용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물론 영적인 사업에 있어서 정보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 말했듯이 “정보만으로 성공할 수 없지만, 정보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간이 간다는 것, 변한다는 것은 대단히 공격적인 것이다. 과거를 과거로 돌릴 뿐 아니라, 현재도 과거로 돌리고 만다. 그래서 시간은 끊임없이 정보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정보수집에 있어서 문제는 얼마나 현재의 상황에 충실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를 느헤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의 안전, 소요 자재 등을 감안하여 왕의 허락이 없이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은 왕의 지원을 약속 받기에 이른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산한 다음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배해서 어려운 과업을 수행해내었다. 그랬기 때문에 중복을 피할 수 있었고, 각자 자기 몫을 다함으로써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느헤미야 3장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업무분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 6절은 일꾼들이 모두 자기역할을 성심 성의껏 맡아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만약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 의 열심만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무너진 성벽과 인적자원을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밀어붙이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불장군 처럼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정보 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느헤미야는 주도면밀한 행정가였지만,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었다(느 1:4). 또한 자신의 일신상의 안락에 만족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민족의 문제를 갖고 나가 간청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반대에 부딪쳤을 때 기도로 이를 돌파한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고 치밀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었다.

느헤미야의 예는 무지한 채 신앙의 열

심만을 추구하는 반지성주의도 아니며, 그 반대로 지성주의도 아님을 말한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신앙은 결국 정보를 포함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과 정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어둠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다. 사단의 무기는 오로지 속임수와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진리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빛의 세력에 대항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는 노력을 한다.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기도 중에 이상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번뇌에 빠지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오게 된다. 그러나 그는 공중에서 21일간이나 바사 왕으로 비유된 사단의 방해 를 받았으나, 결국 미가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음을 말한다(13절).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방해하는 세력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렇다. 사단은 끊임없이 진리를 어둠으로 덮으려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정보를 차단하려고 한다. 사단은 변하는 시간을 자기편으로 이용해 데이터를 아웃데이터(Out Data)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

선교지의 문화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자꾸만 시행착오를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책략대로 되어 가는 것이

사단은 끊임없이 진리를 어둠으로 덮으려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정보를 차단하려고 한다.

다. 어제의 사실을 가지고, 과거의 관점을 고집하면서 지나간 시대의 방식대로 선교한다면 그것 역시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것이다. 막연한 생각으로 중국 선교에 뛰어들어 한국적인 방식으로 ‘핑잡는 게 메’ 라는 식으로 밀고 나간다면 그것 역시 어둠의 세력에 지는 것이다. 사단은 열정이 없는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열정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둠을 밝히고, 진실을 드러내고, 사실을 전달하는 빛의 기능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한 영역에 정보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선교의 새 주자들

중국대륙을 둘러싸고 수세기 동안 영적 전쟁이 있어왔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대륙에서 일생을 바쳐 싸워왔다. 프란시스 싸비에르와 같은 이는 인도와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결국 마카오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사서삼경은 물론 중국의 고전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사역하려고 했다. 허드슨 테일러는 삶의 양식까지도 중국식으로 살면서 중국선교에 도전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은 항상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사단의 저항도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 뭘 모르는 철부지들이 중국선교를 한다고 큰소리치고 나올 때 사단은 교웃음을 칠지도 모른다. 그는 싸비에르와 마테오 리치와 허드슨 테일러를 상대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수준의 선교사쯤은 가소롭게 여길지 모른다. 아니 사단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속이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토인 중

국 땅에서의 전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중국선교는 성경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중국 땅에 대한 정보 전에서 승리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무엘하 18장에 두 명의 달음박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 명의 이름은 아히마아스요 다른 한 명은 구스인이었다. 압살롬이 죽고 그 군대를 물리친 후에, 요압은 구스인을 불러 그를 왕에게 메신저로 보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달리고 싶었다. 그래서 요압에게 간청을 해서 구스인 뒤에 달리게 되었다. 결과는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는 승전보를 전하기는 했지만, 왕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압살롬의 신변에 대한 정보는 몰랐거나, 알면서도 전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도착한 구스인이 온전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아히마아스는 달리기에는 이겼지만, 메신저로서는 실패했다. 정확한 상황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든지, 판단력이 결여되었든지 어쨌든 그는 부적절한 메신저였다.

중국선교를 위한 새 시대의 주자로서 달리기 실력만을 믿고 달려서는 안된다. 열심만으로 부족하다. 아히마아스처럼 뛰고 싶다고 뛰어서는 안된다. 철저한 상황 판단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거대한 중국대륙을 혼자 달릴 것 같은 의욕만으로는 부족하다.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테오 리치와 같은 학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란시스 싸비에르와 같은 집념이 필요한 것이다.

느헤미야, 다니엘, 아히마아스의 이야기는 오늘날 중국선교를 위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말해 주고 있다. 그(그녀)는 영성과 지식, 기도와 정보, 열심과 정

확성의 어느 한 부분에서도 미흡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그녀)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에서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e-mail)에서도 앞선 사람이어야 한다. 그(그녀)는 뜨거운 가슴과 함께 냉철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그녀)는 때를 기다릴 줄 알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그녀)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배격하면서도 궁극적인 빛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문상철/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 조사연구실장

정기구독 신청안내

- <중국을 주께로>의 구독은 중국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선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구체적 헌신의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진 중국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구체적 헌신의 하나가 바로 <중국을 주께로>를 성실히 읽는 것입니다.
- <중국을 주께로>를 받아 보시려면,
 - ▷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정기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중국어문선교회(TEL. 594-8038, 533-5497)로 연락을 주시어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알려주시면 지로용지와 함께 우송해 드립니다.
 - ▷ 대금은 1부당 3,500원이며 (1년 구독은 21,000원), 보내 드린 지로용지의 '기타'란에 '회지대금'이라고 쓰신 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에게는 회원 1인에 한하여 1부씩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선교회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중국선교의 새로운 창조적 사역 기회

양영학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12억 이상의 중국인들도 포함된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과업을 달성해 나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국인들을 격려하고 원조하는 데 있다.

중국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영적으로나 숫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결실은 중국의 형제들이 성실하게 복음을 전한 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음도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다시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이 원치 않는 것과 그들의 영적인 독립성을 해치는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중국선교 방식은 이제 막을 내렸다. 중국은 더이상 선교의 문을 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겸손한 종의 자세를 취해야 하며, 능력 있는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곳에 접근해야 할 것인가?

창조적인 사역

창조적인 사역이라 함은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는 선교의 고정적인 방법을 깰 필요가 있다.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잘 보여주었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어디에서든지 재정적인 구애를 받지 않고 일하며 선교할 수 있었다.

보통 전통적인 사역방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첫째, 교회 개척 및 안 믿는 사람에게 직접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교회개척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올해부터 바뀐 종교법에 따라 외국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회 개척은 아예 허락되지 않는다. 단 교회개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인들을 앞세워 뒤에서 돕는 방법이 있다. 항상 조심스럽게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도울 수 있다. 만일 돕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삼자법(자치, 자전, 자양)에 위배된다. 전통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의료사업이다. 의료선교 팀은

많이 개방되어 있는 편이며 의료 시설에 대한 교류를 그들은 많이 원하고 있다. 대학병원, 독립병원 등과 잘 연결된다면 얼마든지 사역이 가능하며 특히, 부족 및 소수민족 사이에서는 많은 필요들이 있다. 의료 선교팀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단기선교팀이 들어갈 수 있고 장기선교팀은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들과 계약을 맺고 병원 및 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서서히 일할 수 있다.

홍콩에는 의료선교 병원 지어 주기 기금회가 조직되어 있기도 하다. 의료 사역은 의료를 돕고 진료하면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다. 중국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朋友)를 만드는 일이다. 중국선교는 접촉점을 만드는 게 어려운데, 이 의료선교는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풍토병이 많은 중국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가 안과, 치과이며 매우 긴급한 필요들이 있다. 중국에서 의료사역 부분은 많이 열려 있고 시당국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학교사역이다. 종교성을 띤 학교는 금지되어 있으나 부족 사이에서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지원하며 도울 수 있다. 시골지역에 들어가면 학교가 전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교사를 지원해 줄 재정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파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 1달에 3,000원이면 국민학교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고, 도시에서 교육비가 너무 비싸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기금회를 통해 도울 수 있다. 우리도 기금회를 만들어 학교를 짓고, 교사를 보내는 것에 도전한다면 얼마든지 환영을 받을 것이다.

넷째, 문서사역이다. 책 보내기 운동을 통해 한 사람을 전략적으로 키울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문서와 라디오 사역이다. 왜냐 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돕는 것은 장기적일 수 없지만 책은 계속적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도, 중국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현재 중국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공장에 한국 기술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 기술자들은 중졸 학력을 가지고 한국공장에서 기술자에게 얻어맞고 술과 담배를 배워가며 기술을 배웠다. 이 한국 기술자들은 한결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중국 공장에서 일하면서 중국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술과 함께 술과 담배이다. 만약 이 기술자들이 신자들이었다면 무엇을 가르쳤으며 또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곳은 백지상태이다.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은 배운다. 기술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선교할 수 있는 문에 대해 우리는 무지하다. 중국에서 사역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공장이다. 엄청난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만일 의류업계의 예수 믿는 재단사가 들어간다면 그는 황금어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필요한 사람은 이러한 기술자들이다. 무슨 공장을 세우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자들이 요구된다.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전기용접, 자전거 수리, 피아노 조율 등등. 이리저리 둘러보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중국을 바라볼 때는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자. 할

일이 많다 하여 이것저것 하는 사람은
공중의 구름을 잡는 격이 될 것이다.

중국선교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째, 기도이다. 중국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중국교회의 부흥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열정적이고 훈련된 기도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증보기도는 정확한 정보와 통찰력에 기초해야 한다.

둘째, 연구이다. 중국과 중국 교회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탐독하라.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중국인들에 대한 이해와 복음 전파에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요소 및 부정적인 요소를 파악하라.

셋째, 라디오 방송을 돕는 일이다. 라디오 방송을 통한 복음 메시지와 훈련 프로그램이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입증되고 있다. 극동방송 및 다른 방송 단체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다. 또한 대본 작성자, 프로그램 제작자, 아나운서, 기술자, 행정가 그리고 그 외 기타 여러 직원들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다.

넷째, 서적을 통한 지원이다. 복음적인 작가와 발행인들을 지원하라. 교육용 경건서적들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 충분히 무장되고 자국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다섯째,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일반 직업인으로서 중국에서 사역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당신의 은사와 기술들을 점검해 보라. 종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이며, 그들도 우리의 기도와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함



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제 꿈을 키우자.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륙이 크기 때문에 각개전투는 어렵다. 서로 협력하여 일하자.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자가 되고, 보내지 못하면 기도하는 자가 되며, 기도하지 못하면 물질이라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한국선교가 잘 못하면 실수하기 쉬운데, 중국만큼은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며, 이 크고 큰 민족 속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자. 여러 단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민족에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열매맺도록 지혜를 모으고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땅 끝까지 가라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마음에 구체적으로 결정하며 구체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구태의연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창조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양영학/OMF파송, 중국선교사

이 글은 『아시아 기도』(OMF Korea) 92호에 실렸던 것으로 OMF의 승인을 얻고 실었다.

안전리포트

오대선

공안국 직원 두 명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동안의 사찰결과를 토대로 공안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종교 선전을 하는 사람들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저희와 친구관계이고로 거친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조심해 달라는 말과 강제출국의 경고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곳 생활 몇 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곳에서 보안노출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 몇 년 사이에 이런 문제로 강제 출국을 당했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사정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 중의 하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곳 일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을 생각하는 분이든 누구나 알고 있을 듯한 상식적이고 평범한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심코 돌맹이를 연못에 던질 수 있었지만 거기 사는 개구리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구리와 같은 입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돌맹이로부터 치명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몇 가지

를 재확인하려고 합니다.

정보당국은 현지에 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검사를 합니다. 여행객과 방문자는 물론이고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1,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그가 이곳에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나는 점이 발견되면 정밀추적을 하게 되고 그 동안 수집된 정보파일과 물증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것인가, 경고할 것인가, 곧바로 출국명령을 내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는 의심이 갈 때 공안국은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첫째는 현지에서 일하는 일꾼이 지도하는 사업과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내사하면서, 둘째는 그 일꾼의 후원조직이나 그에게 오는 문서, 통신, 방문자를 체크하여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후자의 경우에 한해 상식적이고 제한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지를 방문하려는 분이나 관광여행객, 일꾼을 후원하는 가족, 친지들,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 관리, 결정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짧은 몇 년의 경험과 지역적 제한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읽는

정보당국은 현지에 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검사를 합니다. 여행객과 방문자는 물론이고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1,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그가 이곳에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비슷한 사역으로
가는 어떤
일꾼에게라도
타사역자의
정보가 여과없이
복사되어
넘겨지면
안됩니다.**

분들께서 수정보완하여 유익한 자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보고 처리

현지 일꾼이 올린 사역보고나 기도편지, 행정서신들을 잡지, 신문, 회보 등에 게재할 때 최대한 주의하셔서 시간과 주소 및 사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례 1/ 이 선생의 경우

본국으로 인편을 통해 보낸 사역보고가 한 후원단체에 의해 그대로 회보에 인쇄되어 다시 현지로 발송되어 왔습니다.

사례 2/ 본인의 경우

사업현황과 현금내역서가 회보 및 참고 자료로 인쇄되어 봉투가 개봉된 채 현지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출 사고로 인하여 몇 달 간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이 사고를 계기로 공안의 내사가 집중되기 시작했다고 판단됩니다.

사역보고서는 되도록 복사하지 마십시오. 비슷한 사역으로 가는 어떤 일꾼에게라도 타사역자의 정보가 여과없이 복사되어 넘겨지면 안됩니다. 일단 원본이 복사되면 그 뒷일은 감당 못하여 보안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역자가 현지의 일꾼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복사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요약, 메모하여 보안을 상기시킨 후에 건네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책임자에게 드린 상세한 보고서를 금방 온 일꾼 한 분이 복사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단체의 책임자, 그것도 수십 년의 사역경험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보안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다른 이에게 주었습니다. 본인과 책임자만이 알아야 할 모든 상황이 담긴 자료를 다

른 이에게 그대로 내줄 수 있는 분께 어떻게 다시 보고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통신보안

현지 일꾼에게 연결되는 모든 통신은 일단 당국의 검열을 거친다고 생각하고, 통신을 시도하기 이전에 반드시 준비, 점검해야 합니다.

전화

수화기를 들기 전에 우선 이 전화는 녹음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호칭과 종교적, 사역적인 용어에 주의하십시오.

본인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일꾼들이 전화에 대해서, 특히 본국에서 오는 가까운 이의 전화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의 경우에만도 10여 차례의 전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팩스

팩스는 사실 전화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완벽한 증거자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안자와 결재자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결재자가 기안했다 할 지라도 다른 이에게 한번 보인 후에 발송해야 합니다. 기안 결재권을 두어서 책임 있게 사인하고 보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급히 보내는 문건 속에 결정적인 실수들이 많습니다. 글자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례/ B선생의 경우

급히 보낸 중요한 팩스 내용에 신분과 사역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 장을 복사해 놓고 건네주었기 때문에 그 원본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다행히 어떻게 무마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며칠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일의 수습에만 매

달렸습니다.

편지

내용에만 주의하면 편지 보내는 일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편지도 다른 이에게 점검케 하고 봉투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이 선생의 경우

그에게 배달된 편지는 봉투에 ○○단체 이름이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편지지 상단에도 역시 ○○단체의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었습니다. 이쪽 사역을 전문으로 후원하신다는 유명한 분이 자신을 너무 믿은 것 같습니다.

인편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인편배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본인의 경우

자세한 사항을 기록한 복잡한 문서를 인편에 본부로 배달하도록 시도하였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받았다는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중간에서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지에서 분실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추적해보니, 다행히도 이쪽에서는 이미 나갔고 본국 어딘가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본국에 나가지 않고 그 문서가 이쪽에 남았다면 살살이 뒤져질 것이고, 우리의 상세한 기록이 당국의 화일을 무겁게 하였겠지요.

송금문제

이 문제를 너무 자세히 다루게 되면 역으로 일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단체가 송금하는 경우는 직접 보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례/ 김선생의 경우

정기적으로 오는 송금라인을 역추적인 당국에 의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듯 합니다.

일꾼방문

현지 일꾼을 어떤 필요에 의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지 안내인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안내인이 비록 동일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현지 일꾼이 원하지 않는 한 근처에서 둘러보내신 후에 그 집을 방문하십시오. 또한 현지 안내인에게 일꾼의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 1/ 본인의 경우

후원자인 분이 저와 함께 있는 일꾼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저희 집으로 안내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방문자를 바꾸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 언어를 조심성 없이 사용하여 듣는 자들으면 우리의 일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안내인은 여러번 전화를 걸었고 방문자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방문한 집에 본국인이건 현지인이건 다른 이가 있을 경우에는 호칭, 언어를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친하다고 해도 일꾼의 안내를 받을 때까지 입을 다무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2/ 본인의 경우

저희 집에 제 신분을 알아서는 안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방문자가 거의 자제하지 않고 한국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30분쯤 후에야 설명을 듣고는 정색을 하셨지만 이미 저희의 가슴은 아파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인편배달입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의 기차 내부 모습(硬臥). 객차 내에 한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반드시 한 두명 있기 때문에 대화에 주의해야만 한다.

여행할 때

관광이건 비즈니스건 혹은 다른 목적이건 이 나라를 여행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자유스럽고 평온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외국인 여행자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입수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호텔에서

방 안에서는 도청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꾼에 대해서나 본국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시는 것은 불리합니다.

거의 모든 외국인용 호텔 룸에는 어떤 특정장소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차에서

기차 안에는 한국어를 알아듣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역에 관한 일이나 서로에 대한 호칭, 본인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못됩니다.

사례/ 본인의 경우

장거리 열차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한국어를 듣고 잠이 깨었습니다. 그분은 현지사역과 자신의 신분(목사)에 대해 너무나 장황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만류했지만 내가 뭘 아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제 신분을 말씀드릴 수도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거침없이 현지인 욕이 나왔고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도 결코 조용하지 않게 주위 10미터 공간까지 들리도록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현지어로 속삭이는 몇 사람의 이야기 내용 속에서 이분의 말씀을 해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

어떤 지역의 택시운전사는 현지인이면 서도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교포 거주지역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택시에 타는 외국손님의 이야기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거의 모든 운전사들이 말이 통하기만 하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도 택시 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이드

한국인들은 말이 통하는 가이드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가이드가 되었던지 그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공간 당국이 전문가가이드를 불러서 대화내용을 묻고 여행자의 신분이나 여행목적을 캐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현지인 가이드의 상황설명과 본국에서 온 일꾼의 설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꾼의 설명을 경청하십시오. 여러 일꾼의 입에서 가이드 가운데 정보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국제전화 걸 때

이 전화는 100% 도청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용 속에 본인의 신분, 여행 목적, 현지일꾼의 상황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특별히 일꾼의 집 전화를 사용하실 때는 더 조심하십시오. 그 전화는 집중 감시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되도록 사용치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본인의 경우

8명 가량의 여행객이 방문하였습니다. 한 분이 양해를 구하고 장거리 전화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동안 대부분의 분들이 안부전화에서 비니스까지 시내에서 외국까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전화요금을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낸다는 것보다는 조심없이 통화하는 내용들에 파괴될 저희의 전진기지를 생각하면서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굴은 웃었지만.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 목적이 어떠한지 단체로 움직일 때는 당국의 관심과 주의를 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호칭

서로간의 호칭은 누구이든간에 “선생”으로 부르는 것이 무난합니다.

전도

개인전도를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체의 성격을 말하지 말고 개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비판

교포 앞이라 할지라도 현지인에 대해 비하하는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발전상황, 더러움, 화장실 문화, 경제력, 남자 중심주의 등의 우월주의적 발언).

반드시 돌아서서 욕을 합니다.

세 관

중요한 자료를 운반하는 도중에 가방을 보여달라는 경우를 당했다면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다른 일행과 자기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문제가 될 것 같아도 혼자만 당하십시오. 보통은 그냥 넘어가고 심해도 압수정도입니다. 잘못해서 일행과 연결시키면 모두 검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본인과 20명의 여행객

관광 목적으로 약 20분의 중요한 분들이 현지를 여행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특정지역 여행수칙을 급히 작성하여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침 이 글은 가이드가 오기 전에 복사하여 나누어 읽고 작성하여, 호칭부터 숙달하고 아무런 잡음이나 일꾼에 대해 폐를 끼치는 것 없이 즐겁게 여행을 마쳤습니다.

현지교회 방문

공식적인 교회이든 허가 받지 않은 교회이든 그곳을 방문한 분들이 유념하면 유익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경우

사역자가 공식적인 비자를 받을 수 없는

특별히 일꾼의 집 전화를 사용하실 때는 더 조심하십시오. 그 전화는 집중 감시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되도록 사용치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꾼의 현주소나
선교적 성격을 띤
현지기구,
단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함구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그 나라의 이념, 사상, 종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본인이 지켜본 예

모슬렘에서 이교사상을,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설교 속에서 강하게 비판한 나머지 강한 반발을 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성경배달을 하는 경우

성경 및 자료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나누어주지 마십시오

사례/ 한 교회에서

미국에서 오신 한국 목사님께서 현지 목사의 양해없이 가져오신 성경과 자료를 배포하여 그것을 받으려는 교인들로 이수라장이 되었고, 나중에 교인과 현지 목사님은 물론이고 공안당국에까지 눈총을 받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현지에 계신 분들과 잘 의논하여 어렵게 가져오신 자료를 귀하게 나누어 주어야 바람직합니다.

브로커

교인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때는 그분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이 착하고 좋은 분들이겠으나 그 중에는 전문적인 사역브로커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교회로 인도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불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일꾼에게 먼저 의뢰하여 상황을 파악하신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방문하시는 분은 현지 주재 일꾼과 협력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1/ 본인과 미주 한국인 방문자 사이에서

교포 교회를 방문, 사역하고자 하는 분에게 저는 한 일꾼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만나 뵈 후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에 들어가시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 일꾼은 그 쪽 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문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냥 들어갔고 공안국의 급습을 받아 콩밭을 밟새도록 헤매며 피신하다가 겨우 탈출하였습니다. 그 방문자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하였지만 이를 들은 일꾼은 전문브로커에게 속은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가 당한 경험과 흡사했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은 거의 사실이었습니다.

사례 2/ 유사한 경우

K 선생은 어떤 도시에서 방문사역을 하다가 며칠 구류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이 동일한 목적으로 거기에 가려한다기에 만류하였으나 필드는 너무나 평온하다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 역시 구류를 살고 강제출국을 당했습니다.

사례 3/ 현명한 경우

김 선생은 어느 지역이 요새 너무 위험해졌노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김 선생이 마침 그곳을 방문하려다가 소식을 듣고 신중히 우회하여 무사히 여행을 마쳤습니다. 몇 달 후에 본인이 본국에 있을 때, 저보다 6년이나 더 경험을 가진 전문가께서 그곳을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상황설명을 들으신 그 분은 신중히 여행코스를 고려하였습니다.

귀국 후에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지역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피로와 함께 경각심도 늦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내신 일꾼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십시오.

1) 친구 분과 교제할 때, 설교나 강의 때, 일꾼의 현주소나 선교적 성격을 띤 현지기구, 단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함구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라도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야기하시고 아

주 필요한 극소수의 정책자들에게만 부분적으로 나누어주십시오.

현지를 방문하신 목사님, 교수님들의 말씀 속에서 과도한 내용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 찍어오신 사진이나 수집한 자료가 인쇄되거나 공개되려 할 때 한 번 더 주의해 주십시오. 일꾼과 함께 찍은 정면 사진은 발행, 게시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례/ 단체교회들에서

수 많은 경우에 현지 일꾼의 사진과 근황이 인쇄, 게재, 게시되고 있습니다. 발행된 자료는 국내에서도 타국기관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현지인 초청훈련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국내에서 보낸 현지 일꾼에게는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초청되어 훈련받는 분이나,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변하여 교육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일꾼은 소개하지 말아주십시오. 현지의 일꾼들은 동역자가 된 이들에게까지 신분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어떤 학교의 경우

어떤 현지 사역자를 한국의 학교에서 훈련시켜 보냈는데 그는 현재 브로커 일에 더 열중이며 일꾼들에게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꾼의 요청없이 현지인 훈련자에게 일꾼의 주소를 주거나 사역을 소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국을 방문한 일꾼에게 그들 현지 훈련생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외국여행 때

한국도 아니고 현지도 아닌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우연하게 현지인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본인의 경우

싱가폴 교회를 방문중 한 성도로부터 제가 일하고 있는 나라에서 오신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장소와 분위기가 자유스러웠지만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저에 대해 소개하는 그 성도의 자상함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인 것이며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수정보완하십시오. 그리고 보안지역을 여행하실 분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의 다름과 풍토의 차이 외에 보안문제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이곳 일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못 속에 개구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대선/ 중국 선교사

삼자교회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黄恩炬

삼자교회의 목사는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는가 ?

<중국기독교 각 지역 교회 시행규칙제도>에 의거하여 목사 안수를 받는 수속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신청하고 그 지역의 교회가 추천하면, 그 지역 교무기구 혹은 목사 2인이 성(省) 교무기구에 추천한다. 성 교무기구가 안수에 대한 소그룹을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나면 합격자는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교회의 대사(大事)인 성직 안수는 반드시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성(省) 교무기구는 전 성의 교회와 연계하여 각 방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부문에서 만족히 여겨 합격 판정을 내린 사람에게 안수를 준다.

삼자교회의 목사가 심각한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중국기독교 각 지역 교회 시

행규칙>의 내규에 성직인원의 권고와 징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

목사 중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교회규칙을 위반하고, 이단사설을 퍼뜨리는 자가 있을 때, 신자는 교무기구에 보고할 수 있다. 교무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과 일치하면 성(省) 교무기구에 보고할 수 있고, 다시 심사를 거쳐 사실과 일치하면 성 교무기구에서 처벌한다.

목사는 성(省) 교무기구의 허가를 거쳐 안수를 받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권고와 징계는 반드시 성 교무기구에서 충분히 조사한 후 판단,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신중하다. 권고와 징계는 주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기를 바라는 의도이기에 마땅히 먼저 권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약 그래도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 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

린다.

삼자교회의 목사와 전도사의 수입상황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경우 약 인민폐 70원이며 200원 가량인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이 받는 이는 350원 정도이다. 수입의 8%는 양회(兩會-삼자와 기독교협회)에 헌금하여 경비로 충당하게 해야 한다.

광동성에서는 사역자가 경제적인 곤란을 당할 때 보조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큰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월 300원, 중소도시에서는 100원 정도를 받는다.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70원 정도를 받고, 매우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40원을 받는 목회자도 있다.

현재 광동성에는 약 164명의 청년 사역자들이 있다. 이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기도 한다. 매주마다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 집에 돌아와 농사를 도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사역자는 삼륜차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제문현(除聞縣) 목사의 경우, 그는 재봉틀로 샴바느질을 해서 살림을 꾸려간다.

중국 내의 목회 사역자들에게 부업이 없다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역자들 역시 부업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天風> 92년 9월, 27page

<守望中華>122기 중에서 번역/ 최성은·방송대 중국어성경반

세계의 지붕이 더욱 높아지다

가속되는 경제건설 중의 서장자치구

최 근 일어나는 현상들로 볼 때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서장자치구(西藏自治區)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주 북경에서 개최된 제3회 서장사업좌담회에 강택민(江澤民)을 비롯한 중국중앙정치국 상임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해 당국은 서장(西藏)에 대한 큰 관심을 표시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과제는 총 투자액 23억 8천만 원(2억 7천만 US\$)으로 62개 항목에 달하는 서장건설사업 프로젝트를 원조하는 것이다. 이 항목에는 에너지, 교통, 체신, 전신, 농수산업, 양식 및 석유가공, 사회간접자본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중앙관련 부문에서 30개 항목을, 각 성시(省市) 정부에서 32개 항목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국무원에서는 재정, 세무, 금융, 투자, 가격 및 국제무역 등 방면에서 계속적으로 특별정책을 실시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서장에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변동방법과 과도적 조치를 세워야 한다. 서장자치구(西藏自治區) 인민정부 주석인 강촌라포(江村羅布)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서장 역시 중국경제의 일부분이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밖에 놓일 수는 없다. 반드시 장애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개혁에 걸맞는 동일한 틀과 제도상의 연결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에 의하면 서장의 건설과 발전은 이미 현저한 가속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서장 전지역에 걸친 사회적 면모는 이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의 지붕”은 이제 지리적 개념을 넘어섰다. 개혁개방의 물결은 마치 지각운동을 일으킨 커다란 동력처럼 서장 경제를 신속하게 높은 수준으로 밀고 가고 있다. 서장은 15년 간의 개혁개방을 거쳐 이미 빠른 발전의 추세를 나타냈다. 1993년 말 서장의 GNP는 36억 5천만 원(인민폐)에 달했는데, 그 액수는 1980년에 비해 120%가 증가한 숫자이다. 에너지, 교통, 통신에 중점을 둔 기초 건설 공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그러나 어쨌든 서장이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것만은 사실이다. 작년 서장에 거주하는 농·유목민의 평균 수입은 521원(인민폐)였는데, 이것은 전 국민 평균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이로 인해 서장의 공업, 교통, 에너지, 통신 등 기초설비 공사가 늦어지고 경제 발전속도가 계속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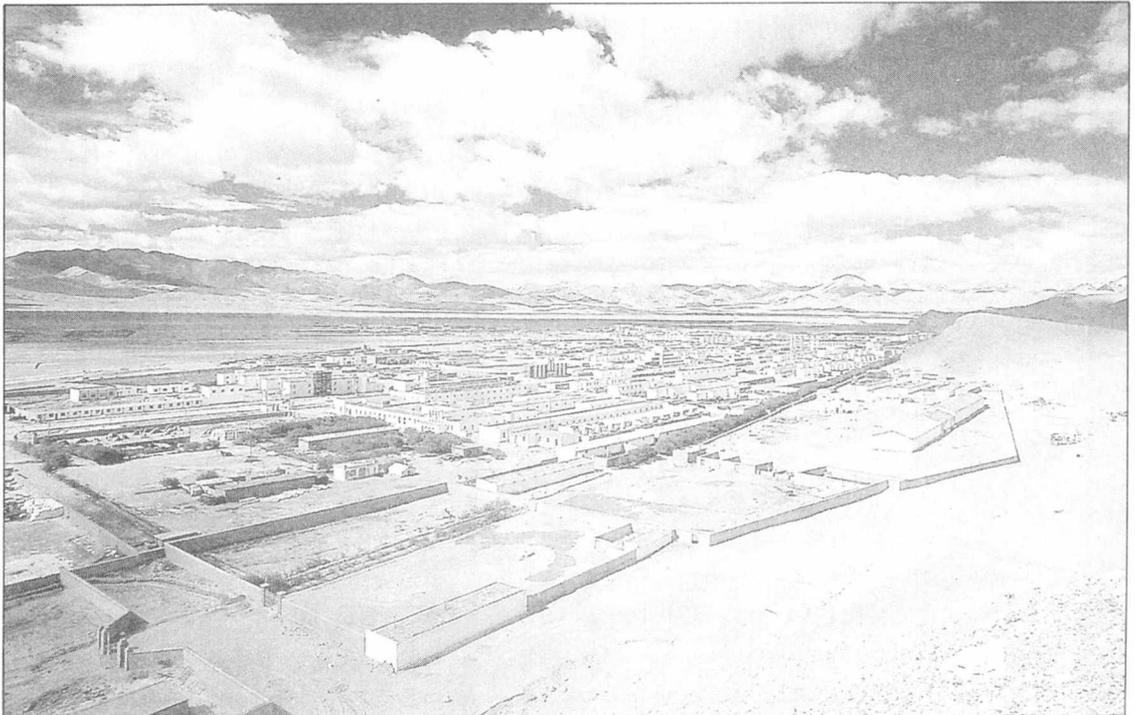
서장의 자립발전 능력은 미약하며 상품경제도 발달하지 못했다. 서장의 지방재정지출은 전적으로 중앙에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매년 보조금으로 서장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구로 평균하면 전국의 성시(省市) 및 각 직할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사실 북경(北京) 정부의 원칙은 서장을 원조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경에서는 1980년,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서장사업회의”를 개최하여 각 성시에 할당된 서장건설원조에 관한 항목들을 재배치하였다. 여기에서 서장의 대외 개방을 위한 서비스 산업 기초시설, 즉 학교, 병원, 호텔 등 3차산업 항목을 제공하는 데 합의하였다. 지난주에 개최된 제3차 서장원조 좌담회에서 이 서장원조사업은 새로이 고조되었다.

서장은 지금부터 금세기 말까지, 국민경제역수 평균을 10% 성장시키고 국민생산총액도 1993년보다 제고시켜, 다수인민의 생활 수준을 일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장 당국은 1994년도의 경제성장속도를 8%로 정했다. 1994년 한 해는 서장 발전에 있어 관건이 되는 해이다. 일련의 개혁정책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공개되었고 일부는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작년에 결정된 개혁정책은 국영기업체, 농업, 축산지역, 재무, 투자, 금융, 유통, 사회보장제도, 영구임대주택, 교육 및 의료 등의 영역에서 시행되었다.

북경 중앙정부가 서장경제 발전에 자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하루빨리 이 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여 서장인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는 데 있다. 당국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분명한

서장자치구 아리(阿里)의 온천개발지구.



목적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경정부는 서장인민의 지지를 얻고자 함이고, 그 결과 중국정부가 서장인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서방의 관점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도 “서장독립”의 외침과 그 세력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북경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세력과 여론을 내세워 서장 경제건설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결심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럼으로써 “서장독립”의 세력에 미치는 영향은 은폐하고 약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장족(藏族)의 인구는 전 서장지역 거주 인구의 95%를 차지한다. 장족자치구 정부내의 6만 명 간부 가운데 70% 이상이 장족출신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한족과 장족간의 분쟁이 존재해왔다. 서장 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장족들은 지금도 여전히 해외에서 망명 생활 중에 있는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모셔 놓고 그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 개방의 행보가 가속화됨에 따라 서장과 외부 세계와의 접촉 기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 새로운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각 기관의 관리들은 무력하기만 하다. 서장자치국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관인 열지(熱地)는 최근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서장지역 내에서 종교의 힘을 빌어 분열을 획책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당 간부들 중 몇몇은 공산당원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사상적 깨달음마저 상실하였다. 그들은 반(反) 분열의 투쟁 속에서 타협하고 양보한 나머지 무력해져 버리고 말았다.” 그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간부, 공무원 가운데 내재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반(反)분열 투쟁의 승리를



를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당국은 서장의 안정이야말로 서장의 각종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전제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안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러나 발전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안정의 확보를 꾀하는 것은 허다한 새로운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므로 이 역시 북경정부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亞洲週刊, 94. 8. 7] 발췌

편집자 주:

이 글은 [亞洲週刊, 94. 8. 7]에 실렸던 <世界屋脊更上一層樓>를 번역한 것으로 아주중간의 승인을 얻은 것이다. (本文轉載自亞洲週刊 1994年 8月 7日 26-27頁已得批准)

번역/ 차이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와 풍속

③ 중남 및 동남지역

지난 호에 이어 중남 및 동남지역 소수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소개합니다. 각 민족의 다양한 혼인, 가족제도, 의식주 및 생활습관을 통해 소수민족 선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족 [彝族 Yi]

이족은 거주하는 각 지역마다 발전정도가 불균등하다. 과거, 사천과 운남 지역의 이족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노예제도가 존속되어 왔는데, 네 계층으로 분류된다.

락화(諾伙)는 흑이(黑彝)라고도 하며 통치계급으로서 나머지 세 계급을 통치하며 다스린다.

곡락(曲諾)은 백이(白彝)라고도 불리우는 중간 계층으로 전체의 1/2을 차지하며 경제적으로 비교적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으며 소유한 밭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가(阿加)는 전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계층이다.

갑서(甲西)는 1/10을 차지하

는 사회 최하 계층으로 주인에게 가축 취급을 받으며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한다.

사천성 양산(涼山)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 계층간의 통혼을 엄격히 금지하며 일반적으로 족외혼이 보편화되어 있고, 매매혼인도 매우 성행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으로는 고종사촌을 배우자로 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결혼이다. 반면 외종사촌간에는 결혼하지 않으며 약탈혼인, 조혼(早婚) 등의 풍습이 남아 있다.

가정 내에 남존여비의 인식이 뿌리깊다. 여자에게는 가산을 계승할 권리가 없는 반면, 아들 특히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는 막내아들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갖는다. 가족의 혈연관계를 대대로 잇고자 하는 의도에서, 아들을 낳으면 대개 아버지의 이름을 덧붙여서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다.

음식은 옥수수, 메밀, 감자, 밀, 귀리 등 곡물을 주식으로 하며 소, 돼지, 양, 닭고기 등 육식도 즐기며 특히 시고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

남자들은 주로 검정색의 옷을 입는다. 위에는 소매가 좁고 앞단추가 왼쪽으로 경사진 모양의 옷을 입으며, 밑에는 가랑이가 넓고 긴 바지를 입는다.

여자들은 화려하게 수놓은 옷과 색색 가지 천을 이어 만든 주름치마[白褶裙]를 입는다. 겉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띠를 매며 머리에는 수건을 두른다. 남녀 모두 외출할 때는 몸에 '차일와'라는 양털실로 짠 망토를 걸친다.

전통적으로 이족의 가장 큰 절기는 햇불절[火把節]이다. 햇불절은 양력 6월 24일 전후로 열리는데, 양산 지역에서는 매 햇불절 때마다 마을 단위로 집회를 갖는다. 사람들은 햇불을 손에 들고 주택과 논밭을 돌며 햇불을 논두렁에 꽂아 벌레를 쫓아낸다. 다 돌고 난 후에는 온 마을이 밤새도록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추며 즐긴다.

투지아족 [土家族 Tujia]

투지아족의 혼인은 매우 개방적이고 청년 남녀간에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하다. 결혼 풍습 중 독특한 것 중의 하나는 신부가 집을 떠나기 약 보름 전부터 우는 곡가(哭嫁)라는 것이다. 때로는 6개월 동안 계속 우는 적도 있다. 울면서 부르는 “哭歌”의 내용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 선조들을 떠나는 슬픔과 중매한 사람을 욕하는 등

대부분 이별의 정을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다. 시집갈 아가씨 혼자서 우는 것도 있고 어머니와 자매들과 같이 우는 것도 있다.

대부분 가옥은 산을 배경으로 지은 적각루(吊脚樓)라고 하는 난간식 가옥인데, 대나무로 받침대를 만들어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만든 2층 혹은 3층 집이다. 나무나 기와, 또는 대나무로 엮어 울타리를 만들고 지붕은 풀로 엮어 만들었다. 맨 위층에 사람이 살고 맨 밑에는 가축을 기르거나 잡동사니 물건들을 보관해 놓는다. 일반적으로 집은 장방형이며 방은 3개 정도이다.

복장은 남자들은 청색, 혹은 백색의 두건을 쓰고 짧은 바지를 좋아하며 단추가 많이 달린 옷을 입는다. 부녀자들의 복장은 깃이 없고 짧은 소매 상의에 무늬와 도안이 있는 치마를 입는다. 노인들은 대금의(大襟衣)를 입는다. 부인들은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두른 넓은 소매의 옷도리(大褂)를 입고 밑에는 역시 레이스를 두른 일자바지나 폭이 넓은 비단 치마를 입는다. 남자들은 길이가 2~3척(尺)이나 되는 긴 머리수건을 머리에 감고 다닌다.

음식은 옥수수, 소밀, 메밀 등이며 고추를 즐겨 먹는다. 주식은 독특한 풍미를 지닌 팍(Phag)이라는 음식인데, 이것은 보릿가루와 참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경단 비슷한 음식

이다. 이 외에도 옥수수와 쌀로 만든 음식을 주로 먹는다. 소금에 절였다가 온돌에서 말린 육포 등도 주요음식이다.

투지아족은 서로 돕고 단결하며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접하는 좋은 전통이 있다. 한 집에 잔치나 행사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 모두 와서 돕는다. 절기 때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은 몇 개의 비과(枇柑)를 가져다가 굽는데, 비과가 양쪽 모두 금색으로 익으면 그 안에 설탕이나 꿀을 부어 손님에게 준다.

그러나 산에 사는 투지아족들은 주인이 구운 것을 손님에게 가져갔을 때 손님은 바로 그것을 입으로 물어야 한다. 이때 주인은 그것을 다시 가져가 깨끗하게 한 다음 설탕을 발라 손님에게 계속 먹게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예의를 모르고 주인이 주는 것을 받아 손님 자신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은 다시는 더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손님이 투지아족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치양족 [羌族 Qiang]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의 사회이다. 집안에서 일에 대한 남녀의 구분이 확실하여 남자들은 바깥일을 책임지고 여자들은 가사에만 전념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의 삶이었다. 미혼남녀들은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하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결혼일지라도 반드시 본인

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결혼이 개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혼도 가능하며,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자에게 주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재혼을 권유한다. 형이 세상을 떠나면 동생은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며 동생이 죽은 경우 형이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풍습이 남아 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데릴사위를 맞는 것이 일반적인데 데릴사위가 되면 여자 집안의 성(姓)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치양족의 촌락은 대개 고산지대나 반산(半山) 지대에 위치한다. 돌로 쌓아 만든 3층집이 대부분이다. 교통의 왕래가 불편한 고지대에 위치한 촌락은 철삭(鐵索)으로 된 적교(吊橋) 양쪽 언덕에 줄, 쇠사슬 등을 건너질러 거기에 의지하여 매달아 놓은 다리-편집자주)나 잔도(棧道: 절벽과 절벽 사이를 걸쳐놓은 구름 다리-편집자주)를 놓아 왕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남녀 모두 푸른색이나 흰색으로 만든 머리수건으로 머리를 감싼다. 남자들은 마직이나 면직으로 된 긴 두루마기를 입고 무명천이나 풀로 짠 신발을 신는다. 속에는 양털로 짠 내의를 입고 대님을 맨다. 여자들은 긴 두루마기와 유사한 겹옷 위에 레이스와 꽃무늬가 있고 술이 달린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남녀 모두 겹에 양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입는다. 부녀자들은

큰 귀걸이를 달고 비녀 등의 장신구로 멋내기를 좋아한다. 남자들은 허리에 긴 칼과 돈주머니를 찬다.

좡족 [壯族 Zhuang]

좡족의 혼인은 일반적으로 일부일처제이다. 과거 대다수 지역에서는 부모의 명령에 따라 중매쟁이의 소개에 의해 결혼이 결정되었다. 청년남녀들은 사교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유롭게 만나 사랑하고 연애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결혼 이후, 여자는 “부락부가(不落夫家)”라는 풍속을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해 신랑집에서의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는 남편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이튿날 바로 친정으로 돌아간다. 이후 농번기나 절기가 되면 남편한테 가서 농사일을 도우며 며칠을 함께 보내다가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2, 3년이 지나야 비로소 남편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혼인 풍속은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감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공성립 이후에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직도 데릴사위제도[入贅]가 유지되고 있다. 대개 집안에 형제가 많고 가정에서 지위가 비교적 높지 않은 남자가 자원해서 처가로 들어가 데릴사위가 된다.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는 둘 다 예

물을 받지 않고 혼수(嫁妝)도 준비하지 않는다.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치러지며, 필요한 모든 물품은 일체 여자 쪽에서 책임진다. 결혼식 때 행해지는 특별 의식이 있는데, 여자 집안에서 자기 친족 가운데 가장 나이 많고 명망 있는 사람을 청하여 같은 성씨를 가진 동년배 남자들을 모아 데릴사위에게 새 성(姓)과 이름을 지어준다. 이로써 신랑은 아내의 집안에서 사위가 아닌 아들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성(姓)을 이어받는다. 데릴사위가 된 남자는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다른 이들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가산을 계승할 권리가 가진다. 좡족(壯族)의 데릴사위 제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독특한 혼인풍속이다.

가옥은 층집[樓居]과 반층집[半樓居], 그리고 정원이 딸린 주택[合院式] 세 종류가 있다. 대부분 정원식 주택은 평원지역에, 층집은 궁벽진 산골지역, 반층집은 구릉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의복은 대개 한족과 유사하지만 민족 고유의 특성도 있다. 여자들은 윗깃이 없고 왼쪽으로 여며 입는 윗도리에 화려한 수에 레이스가 달린 겹옷을 입고, 통이 넓은 바지를 입은 후수가 놓여진 허리띠를 맨다. 주름치마를 입고 꽃무늬 수가 화려한 신발을 신는다. 은 장신구를 즐겨 하며, 좡족의 특이한



좡족(壯族)



미아오족(苗族)



뿌이족(布依族)

관습에 의해 이빨에 구멍을 뚫고(남자들은 앞니를 한 두 개 빼 버리고 금이빨을 해 놓는다) 피부에 문신 새기는 것을 아름다운의 표현이라 여긴다.

미아오족 [苗族 Miao]

미아오족은 일부일처제이며 이들은 결혼 후 곧 분가해 나가 산다. 부모는 가장 나이 어린 아들과 함께 살거나 아버지는 형, 어머니는 동생과 따로따로 살기도 한다. 연애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미혼의 남녀는 큰 행사나 절기 기간에 마음에 맞는 짝을 찾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부모의 결정에 따르기도 한다. 같은 민족간에 혼인의 제약은 없으나 동성(同姓)간에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할 때 신랑은 신부에게 일정한

예물[彩禮]을 주어야 한다. 혼인 의식은 다양하며 “약탈혼인[搶婚]”의 풍습이 남아 있는 지역도 있다.

미아오족의 성품은 선량하고 근면 성실하며, 신용을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며 손님대접을 즐긴다. 그들은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은근과 끈기로 생존해 왔기에 인내심이 강하고 완강한 면도 갖추고 있다.

토산(土山)지역에 사는 미아오족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좁쌀, 옥수수를 곁들여 먹는 반면, 석산(石山)지역에 사는 미아오족들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좁쌀과 기장, 감자, 쌀 등을 먹는다. 평소에는 채식을 위주로 먹다가 손님이 방문하면 물고기, 육류 등을 대접한다.

시고 매운 음식을 즐기고 술도 좋아한다.

미아오족의 촌락은 대개 반산(半山)지역 혹은 산봉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산기슭이나 강변에서 산다. 주택은 대부분 목질(나무줄기)을 재료로 뼈대를 갖춘 구조로 나무판을 조립해서 기와를 얹었다. 소수지만 벽돌로 만든 집도 있다. 가옥은 집 앞과 좌우 양편으로 이어진 평집[平房]과 층집[樓房], 그리고 가축우리 3칸으로 구분된다. 산의 지세에 따라 지어진 적각루(吊脚樓: 골짜기에 비스듬하게 지어진 2, 3층의 계단식 층집)가 있는데 위층에는 사람이 살고 아래층은 농기구를 보관해 두는 창고 혹은 가축우리로 사용된다.

미아오족의 전통적인 복식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띤다. 특별히 부녀자들의 의복 양식은 130여 종에 달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하다. 남녀 모두 머리를 틀어 올려 비녀를 꽂고, 화려한 무늬가 수놓여진 옷을 입는다. 여자는 백습군(百褶裙)이라는 주름치마를 입고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건다. 여성들의 의복은 색깔이 선명하고 스타일 또한 다채로워서 보는 사람의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다. 각 지역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푸른색 바지에 가슴을 여미지 않는 짧은 윗도리(對襟)를 입으며 오른쪽으로 옷깃을 여미는 스타일의 긴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는 천으로 감싼다.

과거에 다른 부족 사람들은 미아오족 부녀자들의 복식에 따라 전체 미아오족을 白苗, 紅苗, 小花苗, 靑苗, 黑苗 등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였다.

뿌이족 [布依族 Bouyi]

산가(山歌)를 무척 좋아하며 산가를 유행시켜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한다. 어떤 지과는, 자녀가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이미 평생의 배우자를 미리 정해 놓는 배대친(背帶親)이라는 혼인풍습이 성행하기도 한다.

뿌이족 사회에는 노인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전통미덕이 있으며, 자녀를 비롯 나이 어린 후손들은 노인을 부양할 의무를 갖는다.

뿌이족은 전통적으로 정성과 열의를 다해 손님을 대접한다. 먼 곳에서 손님이 오면 주인은 매우 기뻐한다. 손님이 오면 전통적인 풍습에 의해 주인은 먼저 ‘침두이결과(枕頭二塊粿)’라는 배개 모양의 음식을 대접한다. 이것은 찹쌀을 찌서 반죽한 후 다시 손으로 배개 모양으로 빚은 빵이다. 먹을 때는 가늘게 잘라서 끓는 물 속에 넣어 익혀 먹고 다시 설탕, 단술,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먹는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간식(點心)에 불과하고 먹은 후에 비로소 정찬이 마련된다. 닭, 오리 고기로 만든 풍성한 요리와 함께 목이, 표고버섯(香菇) 등의 재료를 이용한 산해진미 요리가 입맛을 당긴다. 재미있는 것은 주인이 술을 따르고 요리를 권하면서 결코 먼저 산해진미를 맛보게 하지 않고 먼저 오리머리와 오리의 다리(鴨頭鴨腳)를 손님에게 주는 것이다. 손님은 반드시 이 습관에 따라야 하며 먼저 오리머리와 다리를 전부 먹은 후에 기타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뿌이족의 전통적인 풍습이다. 오리머리와 다리를 대접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며, 주인이 오리 한 마리를 통째로 대접했다는 의미로서 융숭하고 정성어린 대접을 하는 것이다. 만약 손님이 이를 거절한다면 곧 주인을 경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인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 뿌이족은

쌀밥을 주식으로 하며 차를 즐겨 마시고 개고기와 시고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

똥족 [侗族 Dong]

똥족의 혼인은 일부일처제이며 역사적으로 고종사촌과 결혼하는 풍습이 성행하여왔다. 그러나 동성의 친족(同姓同房族: 선조가 남긴 집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친족들-편집자 주)과는 결혼할 수 없다. 대개 자유연애 방식에 의해 혼인이 맺어지나 다시 부모의 동의를 거쳐서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진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도망가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결혼은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한다.

결혼은 대부분 설날(春節)기에 거행되는데, 남부지구에서는 부락부가(不落夫家)의 풍습이 남아 있어, 여자가 결혼해도 바로 친정으로 돌아와 살다가 농번기나 명절 때 남편의 집에 가서 며칠 머물다가, 바로 아이를 임신하면 비로소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다.

똥족의 대표적인 명절 행사는 지금도 성행하는 “월야(月也)”라는 집단 놀이(客訪)이다. 이 놀이는 춘절 기간에 진행되는데, 약속된 기간에 한 마을의 이삼십 명 혹은 백여 명의 젊은 이들이 한 무리가 되어 다른 외부 마을을 방문한다. 노래패, 극단, 악대 등으로 구성된 이들이 방문하면 주인이 된 마을에서는 돼지, 양을 잡는 등 열렬

하게 손님을 맞는다. 곧 큰 잔치가 벌어지고 손님이 된 무리들은 연극과 노래, 피리 연주 등을 공연하면서 한바탕 떠들썩하게 즐긴다. 손님들은 마을 깊숙이 들어가 아무 집이나 방문해도 어느 집에서나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는다.

똥죽은 쌀을 주식으로 하며 명절 때는 黑糯米(죽순으로 만든 요리), 쌀로 만든 술[米酒]을 즐겨 마시고, 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손님을 대접할 때는 민족 고유의 풍미가 있는 유차(油茶)를 마신다.

똥죽은 대부분의 옷을 자기들이 생산한 면화를 스스로 직조하고 염색하여 제작한다. 남자들은 대금단의(對襟短衣: 단추구멍이 없고 앞섶과 가슴 부분에 붉은 색이나 남색의 바둑무늬가 있으며 깃과 소매 위에는 붉은 색과 검정색 계통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짧은 상의)와 긴 바지를 입거나 혹은 옷깃이 없는 짧은 상의[無領短衣]를 입고 커다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다. 여인들의 복장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크게 치마와 긴 바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야오족 [瑤族 Yao]

결혼은 일부일처제이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나 자유연애를 통하기도 한다. 결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남자 측에서 여자를 데려오는 것과 여자 집에 데릴사위가 되는

방식이 있다.

남자들은 15, 6세가 되면 ‘도계(度戒)’라는 일종의 종교의식을 치러야만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 의식은 지역마다 대동소이하며 무당의 주관하에 행해진다. 당사자는 위험하고도 고통스러운 의식을 거쳐야 한다. 과거에는 10여 가지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높은 단상에 눕혀서 가시덤불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른바 “운산법(雲山法)”만이 행해진다. 이런 위험한 시험은 그 대상자가 이 절차를 통해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여 그 사회에서 전과 다른 신분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이 절차가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무당에게 신이 혼백을 보내준다는 의식을 배움으로 죽은 뒤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높은 지위에 이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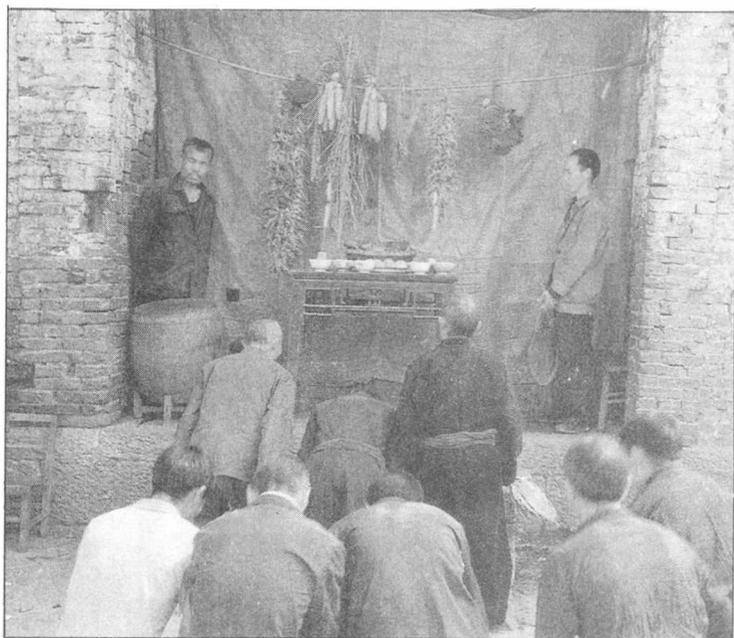
음식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각각 다르므로 주식 또한 지역마다 다르다. 쌀, 옥수수, 좁쌀, 감자, 고구마 및 각종 콩 등이 지역마다 생산된다. 돼지고기 및 닭고기 등과 함께 사냥에서 얻은 고기로 육식을 한다.

광서 지역 야오족 巴馬 자치현에는, 100세 이상의 노인이 많이 사는 유명한 장수촌이 있다. 이들이 장수하는 원인은 이들인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죽[玉米糊]과 대마삼[火麻]에서 뽑아 사용하는 기름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주거양식을 보면 일반적으로 고산지대에 “人”자 모양의 가옥에 거주하며, 대나무 및 흙, 기와 등으로 집을 짓는다. 집이 10여 가구 정도 되면 촌락이 형성되며 다른 종족과는 결혼하



야오족(瑶族)의 3층 가옥



걸라오족(仡佬族)들이 수확을 감사하는 제사의식을 행하고 있다. 새로 수확한 옥수수, 고추, 배추 등을 제물로 걸어 놓았다.

지 않는다.

의복은 지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남자들의 상의에는 정면과 왼쪽에 각각 크게 도안된 옷깃이 달린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허리띠를 착용하고 바지 길이도 각기 다르며 녹색과 흑색이 주종을 이룬다. 어느 지방에서는 남자들이 긴 머리를 땅아 붉은 천으로 감싼 다음 야생 꿩의 깃털로 장식하기도 한다. 여자들은 옷깃이 없는 짧은 소매옷을 입고 허리띠는 하지 않으며 주름이 있는 치마를 입거나 긴 바지와 짧은 바지를 입는다. 옷깃과 소매 및 바지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여져 있으며 은으로 만든 장신구는 여인들의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다.

걸라오족 [仡佬族 Gelao]

걸라오족의 결혼제도는 한족과 비슷하며 일부일처제이다. 과거에는 부모가 결혼의 결정권을 쥐고 있었으나 지금은 젊은 이들의 자주권이 신장되어 부모는 자식의 소망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이한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아 신랑 집으로 간 후 특별한 절차없이 곧바로 신방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걸라오족은 성품이 곧고 진실한 편이며 예의를 중시하고 손님 대접이 극진하다. 노인을 공경하는 습성이 있어 좋은 음식은 노인들에게 먼저 드리고 젊은이들은 모두 노인들을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져야 할 의

무가 있다.

촌락은 고산지대에 위치하며 옛날에는 나무를 쌓고 그 위에서 생활하는 방식의 “간란(幹欄)”이라는 거주 형태가 존속했으나 근래 들어서는 다양하게 그 형태가 바뀌고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것은 목관을 쌓고 흙벽을 만들어 놓은 “모초방(茅草房)”이다.

옥수수가 주식이며 밀가루 음식과 시고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 육식은 돼지고기, 개고기, 닭고기 등을 먹는다. 보통 샘물을 그냥 마시지만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한다.

의복은 같은 지역의 한족이나 기타 민족과 동일하다. 전통적 복장은 허리까지 오는 짧은 상의를 입는데 소매에 무늬가 수놓여져 있다. 이는 줄무늬 천에 중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부녀자들은 주름 없는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수이족 [水族 Shui]

수이족 혼인은 일부일처제이다. 이전에는 부모가 결혼을 주도하여 결정했으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부모의 동의를 쉽게 얻는다. 수이족 내에서는 고종과 이종사촌 사이의 근친결혼이 성행한다. 사촌인 남자는 그 집안[舅家]의 여자집안[姑家]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이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기도 하지만 이 경우 같은 집안의 당사자 남자 측에 “외

생전(外甥錢)”이라는 배상금을 내야만 한다. 결혼식을 할 때 신부는 낮 12시 전에 집을 나서 오후 6, 7시쯤 되어 신랑의 집에 들어간다. 이 때 신부 측의 친지들은 모두 문 밖으로 나와 피해 있다가 신부가 안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도로 들어온다. 신부는 신랑의 집에서 2, 3일 거한 후 다시 처가로 가서 1~2개월 머문 후 비로소 남자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된다. 동성(同姓)간에는 결혼이 허락되지 않는다.

수이족은 손님 접대하기를 좋아해 알건 모르건 찾아오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다. 또한 서로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어 경조사가 있으면 모두 합심해 도와준다. 노인을 존경하는 좋은 전통도 함께 갖고 있다.

식생활은 1일 2식으로 소박하며 농번기 등에는 1일 3식 혹은 그때 그때 알맞게 먹기도 한다. 쌀을 주식으로 삼으며 잡곡과 기타 생선류도 곁해서 먹는다. 명절이나 손님이 방문했을 때에는 비교적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한다. 이들은 식생활에 있어 찹쌀과 생선, 술, 신맛이 나는 음식을 좋아한다.

거주지는 환경을 중요시하여 풍수지리를 따져 좋은 곳을 택한다. 마을 주위는 산과 근접하고 물이 있는 곳의 경치 좋은 곳을 택한다. 집은 보통 2층으로 지어 위층에는 사람이 기거하며 아래층에서는 가축을 기

른다.

의복은 한족과 유사하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긴 소매옷과 바지를 입고 청색, 녹색 등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는다. 여인들은 남색의 옷깃 없는 반소매옷과 청색 바지를 입는다. 명절에는 치마를 입고 긴 머리를 땡아 올린다.

수이족의 장례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죽은 자를 제당에서 장례를 치르며 길일을 택해 장사지낸다. 장례기간에는 노래나 춤, 기타 가축을 잡는 일이 일절 금지된다.

무라오족 [麼佬族 Mulao]

결혼은 부모가 중심 역할을 했으나 근래에는 자유연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에는 부족 내에서만 혼인이 이루어졌으나 근래에는 한족, 장족 등과도 결혼한다. 남자 집안의 가풍을 따르지 않고 결혼 후 바로 여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 농번기 등에만 남자 집에 가서 일손을 돕다가 아이가 생기면 비로소 신랑집에서 머물게 된다. 노래부르기를 좋아하여 마을마다 지정된 가수가 있다. 특히 이들에게는 명절이 많은데, 거의 매달에 한 번씩 있다. 날짜와 그 내용은 좡족과 거의 유사하다. 이들의 명절은 미신을 믿는 것과 관련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원에 사는 무라오족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고산 지대에서는 옥수수를 주식으로 한

다. 그 외에 콩, 보리 등을 곁들여 먹는다. 명절이 되면 찹쌀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육식은 돼지, 소, 닭, 오리고기 등이 주종을 이루며 고양이와 뱀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더운 물에 데쳐서 시큼하게 발효시킨 ‘산채(酸菜)’라는 야채음식을 즐겨 먹는다.

남녀불문하고 청색의 옷을 입으며 남자들은 옷깃이 달린 상의와 긴 바지를 입는다. 노인들은 가슴 가운데가 겹치게 되어 있는 옷을 입고 부녀자들은 큰 옷깃이 달린 옷에 긴 바지, 청색의 머리 두건을 쓰고 치마를 입는다.

마오난족 [毛南族 Maonan]

결혼은 일부일처제이다.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첫날밤을 지낸 후 이튿날 신랑과 함께 친정 집으로 돌아오는 풍습이 있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동생이 죽으면 형이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는 습관이 있었으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마오난족은 비교적 문화가 발달한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전문가 집단과 학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역사시(歷史詩)와 민요, 서사시는 그들 선조의 원류를 반영하는 문학유산이다.

마오난 족은 일반적으로 동족의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몇몇 작은 소수의 촌락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다. 가장 큰 촌락이라 할지라도 백여 가



징족(京族)의 민간무용 경가락(京家樂)

구를 넘지 않는다. 가옥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기와를 얹고 흙담을 쌓은 모양이며, 아래층과 위층을 갈라 위층에는 사람이 살고 아래층에는 가축우리나 기타 물건들을 저장하는 장소로 이용한다.

구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며 산악지대에 사는 이들은 옥수수가 주식이다. 돼지, 소, 닭, 오리고기 등을 먹으며 살아 있는 양의 피를 먹는 풍습도 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마오난족은 소금에 절인 고기, 우렁이, 시큼하게 발효시킨 채소 등 3가지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한다고 한다.

남녀 모두 남색과 청색의 큰 옷깃이 달린 옷을 입고 부녀자

들은 줄무늬가 있는 윗도리나 수놓은 바지를 입고 은장신구를 건다.

징족 [京族 Jing]

결혼은 일부일처제이며 과거에는 부모가 주로 결혼을 결정하였다. 동성(同姓)간에는 결혼하지 않으며 근친결혼은 더욱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주거방식은 과거의 이층구조로 된 난간식에서 벽돌기와로 만든 가옥으로 그 형태가 변하고 있다. 쌀을 주식으로 하며 옥수수, 감자, 고구마, 물고기, 새우 등도 겸식하고 부녀자들은 빵량나무 열매를 씹는 습관을 즐긴다.

부녀자들은 속옷에 옷깃과 좁은 소매가 달린 깃없는 상의를 입고 검정색 또는 갈색의 통이 넓은 긴 바지를 입는다. 남자들은 무릎까지 오는 긴 옷옷에 허리띠를 맨다. 그러나 대다수 젊은이들의 복장은 한족과 비슷하다.

참고문헌

- 『中華民族風俗辭典』
江西教育出版社, 1988
- 『中國少數民族風情錄』
中國青年出版社, 1988
- 『誰來關心我, 中國少數民族概覽』
世界華人福音事工聯絡中心,
1992

번역/ 권수영·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

填字遊戲

도전 !!

독자들의 중국어 낱말 실력향상을 꾀하는 뜻에서
 중국어 십자낱말맞추기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상의 용어, 생활상의 실용용어, 시사용어 등
 다양한 낱말을 익힐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답은 Page 112 에)

가로열쇠

1. 약혼녀
3. 좋은 날. 길일(吉日). 호시절(好時節)
5. 도장 손잡이에 달린 장식
6. 설화. 눈송이
8. 구약성경의 욱기
10. 신장. 키
11.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이름
12. 모자
13. 책꽂이. 책장
15. 여승. 비구니
17. 칵테일
20. 점포. 가게. 상점

세로열쇠

1. 미전도종족.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
2. 현모양처
4. 발자국
7. 뉴욕
9. 신약성경에 나오는 지명(베다니)
11. 부추기다. 치켜세우다. 비행기를 태우다
13. 서생. 선비. 학자
14. 싸우다. 다투다
16. 처녀나 아가씨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17. 계란. 달걀
18. 교배하다. 교미하다(새, 짐승, 물고기 따위).
19. 술집(홍콩이나 대만에서는 호텔의 의미로 씀).

		2		4		6	
1				5	7		
		3			8	9	
				14			
			13			15	16
	11				18		
10				17		19	
	12					20	

중국 화북·화동지구의 주요대학

박명수

하북대학(河北大學) Hebei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연도: 1921년
재학생수: 8,200여 명(유학생·대학원생 160여 명 포함)
교직원수: 789명(교수 19명, 부교수 167명 포함)
소속기관: 하북성 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Economics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Education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Biology
Electronic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河北省 保定市 合作路 1號
河北大學 外事處

서 대학은 청나라 말기인 1902년에 설립된 산서대학당(山西大學堂)으로부터 학교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 이 학교에는 16개 학과에 34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9개소의 연구소와 150여만 권의 장서가 소장된 대학도서관이 부설되어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History
Philosophy
Foreign Languages
Education
Economics
Law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Physics
Chemistry
Biology
Environmental Protection
Physical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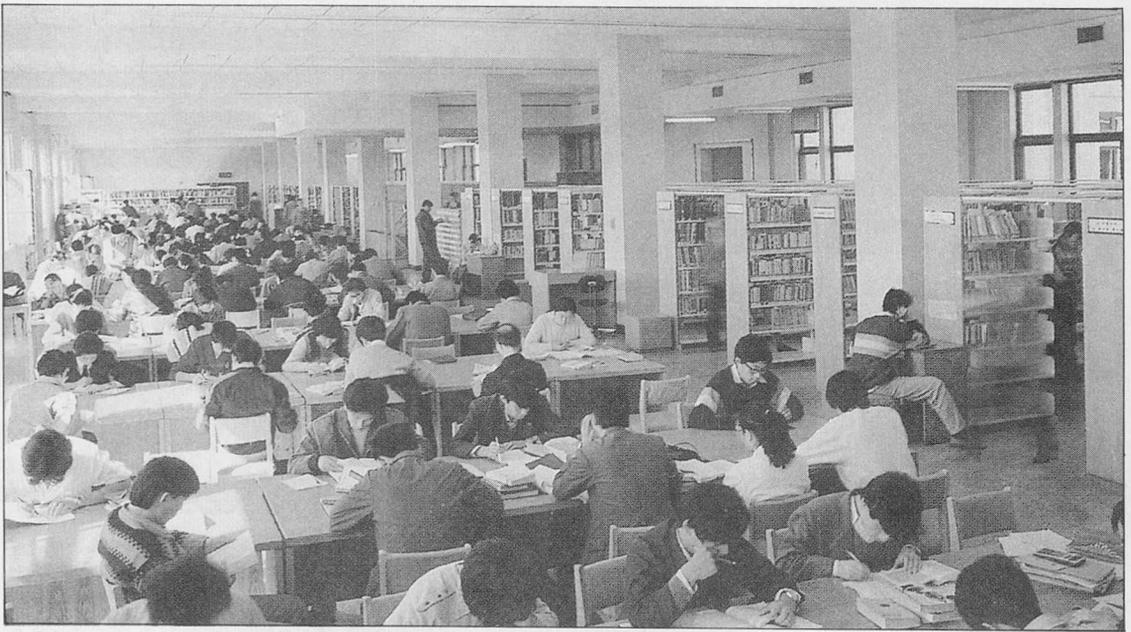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山西省 太原市 塢城路 36號
山西大學 外事辦公室

산서대학(山西大學) Shanxi University

학교소개
산서성(山西省) 최고의 문과종합대학인 산

남경대학(南京大學) Nanjing University

학교소개
지도 감독을 받는 국가중점대학인 남경대학



면학열기가 뜨거운 중국의 대학 도서관.

의 역사는 1902년 양강(兩江) 총독이었던 유 곤일(劉坤一)이 설립한 삼강사범학당(三江師範學堂)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이 학교에는 23개 학부에 61개의 전공 그리고 36개의 연구소와 13개의 연구센터 등이 부설되어 있으며, 10,800여명의 학생(250여명의 유학생 1,500여명의 대학원생 포함)과 정·부교수 861명 포함 모두 2,431명의 교직원인 재직하고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History
- Philosophy
- Economics
- Law
- Management Science
-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 Library Science
- Mathematics
- Computer Science
- Astronomy
- Physics
- Information Physics
- Chemistry
- Biochemistry
- Biology
- Earth Sciences
- Geo and Ocean Sciences
- Atmospheric Science
- Environmental Science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江蘇省 南京市 漢口路 22號
南京大學 外國學者留學生 研修部

소주대학(蘇州大學)

Suzhou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1952년
재학생수: 4,820여 명(대학원생 160여명 포함)
교직원수: 정·부교수 222명
소속기관: 강소성 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 Chinese
- History
- Political Science
- Foreign Languages
- Mathematics
- Physical Education
- Physics
- Chemistr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江蘇省 蘇州市 十梓街 1號
蘇州大學 外事處

항주대학(杭州大學)
Hangzhou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연도: 1952년
재학생수: 7,600여 명(대학원생 606명 포함)
교직원수: 정·부교수 379명
소속기관: 절강성 교육위원회 직속 성립(省立)대학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History
Philosophy
Economics
Law
Political Science
Education
Foreign Languages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Geography
Biology
Psychology
Computer Science
Physical Culture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浙江省 杭州市 天目山路 34 號 杭州大學 外事處

안휘대학(安徽大學)
Anhui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연도: 1928년
재학생수: 8,620여 명(유학생·대학원생 150여 명 포함)
교직원수: 867명(교수 33명, 부교수 250여 명 포함)
소속기관: 안휘성 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Economics
Law
Library Science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Radio Electronics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安徽省 合肥市 合作化路 安徽大學 外事處

하문대학(廈門大學)
Xiamen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연도: 1921년
재학생수: 12,000여 명(유학생 180여 명·대학원생 890여 명 포함)
교직원수: 1,354명(교수 61명, 부교수 277명 포함)
소속기관: 국가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
History
Anthropology
Economics
Planning and Statistics
Finance and Banking
Accounting
Business Management
Foreign Trade
Political Science
Law
Philosophy
Mathematics
Computer and Systems Sciences
Physics
Electronic Engineering

Chemistry
Scientific Instrumentation Engineering
Biology
Oceanograph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福建省 廈門市
廈門大學 國際教育中心

강서대학(江西大學)

Jiangxi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연도: 1956년
재학생수: 4,900여 명(대학원생 120여 명 포함)
교직원수: 837명(교수 21명, 부교수 192명 포함)
소속기관: 강서성 인민정부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Philosophy
History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Biology
Food
Electronics
Foreign Language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江西省 南昌市 南京東路 17
號 江西大學 外事處

산둥대학(山東大學)

Shandong University

학교소개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가중점대학의 하나인 이 학교는 1901년 처음 낙원사범대학으로 설립된 후 청도로 이전하면서 청도 대학, 국립청도대학 등으로 학교 이

름이 바뀌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이 학교에는 화학관련 부문의 화학학원과 경제부문의 경제학원을 포함 21개 학과, 43개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국 전통 문화연구소, 중국역사연구소, 주역(周易)연구소, 신 재료연구소 등 20개소의 연구소와 2백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등이 부설되어 있는 산둥성 최고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Economics
Scientific Socialism
Law
Sociology
Foreign Languages
Management Science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Physics
Chemistry
Optics
Biology
Microbiolog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山東省 濟南市 山大南路 27
號 山東大學 外事辦公室

내몽고대학(內蒙古大學)

Inner Mongolia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연도: 1957년
재학생수: 3,780여 명(대학원생 150여 명 포함)
교직원수: 668명(교수 39명, 부교수 160명 포함)
소속기관: 內蒙古自治區 教育廳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Mongolian

Foreign Languages
 History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Biology
 Electronics
 Mongolian Language
 Mongolian History
 The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內蒙古自治區 呼和浩特市
 新城區 大學路 1號
 內蒙古大學 外事辦公室

동남대학(東南大學)

Nanjing Institute of Technology

학교소개

동남대학은 국가교육위원회 직속의 전국 중점대학의 하나이며, 공과(工科)를 중심으로 이(理), 공(工), 문과(文科)가 개설되어 있는 종합대학으로서 대학원뿐만 아니라 성인교육대학, 관리대학, 에너지원 개발대학 등이 함께 설립되어 있다.

이 학교에는 현재 정·부교수 70여 명을 포함 500여 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학부재학생 8천여 명 포함 12,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Architecture
 Mechanical Engineering
 Power Engineering
 Radio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Mathematics and Mechanics
 Automatics Contro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Physics and Chemistry
 Biomedical Engineering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Social Science
 Management Science and Engineering

Philosophy and Science
 Electrical Engineering
 Foreign Languages
 Physical Education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江蘇省 南京市 四牌樓 2號
 東南大學 外事辦公室

하해대학(河海大學)

Hehai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연도 : 1952년
 재학생수 : 7,460여 명(대학원생 430여 명 포함)
 교직원수 : 975명(교수 45명, 부교수 252명 포함)
 소속기관 : 국가 수리부(水利部)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Hydrology
 Irrigation and Drainage Engineering
 Hydro-electric Engineering
 Engineering Mechanics
 Navigation and Ocean Engineering
 Automation Engineering
 Engineering Geology and Survey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Management science
 Foreign Languages
 Social Science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江蘇省 南京市 四康路 1號
 河海大學 留學生本部

절강대학(浙江大學)

Jiang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연도 : 1897년
 재학생수 : 1,3000여 명(유학생 35명, 대학원생 1800여 명 포함)



대학연구소에서 수질오염을 연구하는 생물학자.

교직원수 : 1,540여 명(교수74명, 부교수 413명 포함)
 소속기관 : 국가교육위원회 직속 국가중점대학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Applied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Mechanics
 Geology
 Bioscience and Technology
 Electr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Information Science and Electronic Engineering
 Instrument Engineering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Thermoscience and Engineering
 Scientific Instruments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Philosophy
 Economics
 Foreign Language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浙江省 杭州市 玉泉路 20號
 浙江大學 外事處

**중국과학기술대학(中國科學技術大學)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학교소개

중국과학기술대학은 과학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중국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과학원에 의해 1958년 9월 북경에 설립되었다.

현재 이 학교에는 13개 학부에 40개 전공을 개설하고 있으며, 4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440여 명의 정·부교수 포함 1,600여 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중국과학원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대학으로 아직까지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Mathematics
Physics
Modern Chemistry
Modern Physics
Modern Mechanics
Radio and Electronics
Earth and Space Sciences
Biology
Precision Machinery and Precision Instrumentation
System Science and Management Science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Applied Chemistry
Engineering Thermophysic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安徽省 合肥市 金寨路 24號
中國科學技術大學 外事處

복주대학(福州大學)

Fuzhou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연도: 1958년
재학생수: 8,300여 명(대학원생 161명 포함)
교직원수: 1,329명(교수 40명, 부교수 234명 포함)
소속기관: 복건성 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Mathematics
Light Industry
Civi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Physics
Electrical Engineering
Geology and Mining Engineering
Chemistry
Mechan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Foreign Languages
Radio Engineering

학교주소

中國人民共和國 福建省 福州市 工業路 50號
福州大學 外事處

청도해양대학(靑島海洋大學)

Qingdao University of Oceanography

학교소개

설립연도: 1958년
재학생수: 2,830여 명
교직원수: 535명(교수 26명, 부교수 186명 포함)
소속기관: 국가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Physical Oceanography and Marine Meteorology
Physics
Chemistry
Marine Biology
Marine Geology
Marine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Aquaculture
Marine Fishing
Applied Mathematics
Management Science
Food Engineering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山東省 靑島市 魚山路 5號
靑島海洋大學 外事處

남경중의학원 (南京中醫學院)

Nanjing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학교소개

북경, 상해, 광주중의학원과 함께 중국 4대 중의학원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남경중의학원의 역사는 1955년 설립된 강소(江蘇)중의연수학교로부터 시작되었다.

1979년부터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이 학교는 현재 중의학, 침구학, 중약학 등 3개 학부에 9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19개의 석사과정과 6개의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 7천여 명 가운데에는 세계 60여 개국 5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배출할 정도로 국내외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Material Medica
Acupuncture and Moxibustion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江蘇省 南京市 漢中路 282
號 南京中醫學院 外事辦公室

중국약과대학 (中國葯科大學)

China Pharmaceutical University

학교소개

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의약(醫藥) 전문 교육기관인 이 학교의 역사는 1936년 남경(南京)에 설립한 국립 의학전과학교(國立醫學專科學校)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중국 국가의약관리국(國家醫藥管理局)의 지도를 받고 있는 국가중점대학인 이 학교에는 중약학(中藥學), 약학(藥學) 등 11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1,200여 명의 학부생을 포함 1,500여 명의 학생과 1,300여 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약학대학으로 알려져 있어서 중의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 학교의 진학을 추천하고 싶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Bio-Pharmaceutics
Pharmaceutical Chemistry
Pharmaceutics

Pharmacognosy

Pharmaceutical Analysi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江蘇省 南京市 童家巷 24號
中國葯科大學 外事辦公室

절강미술학원(浙江美術學院)

Zhejiang Academy of Fine Arts

학교소개

中國 文化部 직속의 예술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는 절강미술학원의 역사는 1928년 중국의 유명한 교육가인 채원배(蔡元培)가 창립한 예술학교 <國立藝術院>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현재 중국화, 유화, 판화 등 7개 계열에 15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정·부교수 95명을 포함 460여 명의 교직원과 학부재학생 4백여 명을 포함, 5백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Traditional Chinese Painting
Oil Painting
Printmaking
Sculpture
Design
Art History and Theor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浙江省 杭州市 南山路 218
號 浙江美術學院 外事處

편집자 주:

지면관계상 모든 대학의 개설학부에 석사과정만 실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거나 중국유학에 관해 문의 할 것이 있는 분은 위 자료를 제공한 박명수 선생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778-3773)

박명수/ 청와대 공보비서실 근무
『중국유학가이드』 저자
(현)계성문화관광 대표

심양 서탑교회 오애은(吳愛恩) 목사

유관지



중국 여행중에 중국 주민들로부터 명함을 받아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직함이 이름 앞에 복잡하게 얹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기독교 관계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省)이나 시(市) 단위로 삼자 애국운동위원회와 기독교 협회의 주임, 부임, 회장, 부회장이라는 직책 다음에 어느 교회 담임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다. 오애은 목사님도 이와 마

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것은 “서탑교회 오애은 목사” 한 가지 뿐이다.

서탑교회는 1913년 5월, 당시 행정구역으로 봉천(奉天) 대화구 대화가 15-3(현 심양시 화평구 시부대로 33-1)에서 20여 명의 신자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의주교회(義州敎會)의 도움을 받았으며 평북노회에 속해 있다가, 뒤에 의산노회(義山老會)가 분립되자 의산노회의 관할로 들어갔다. 1935년 10월 22일 봉천노회(奉天老會)가 창립되자 봉천노회의 중심교회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중국 대륙 동북지역(속칭 ‘만주’)에 있는 동포교회 전체의 핵심역할을 맡았다.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귀국하려는 동포들이 봉천으로 집결해서 서탑교회는 흥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동포들의 대거 귀국과 중국의 공산화로 서탑교회는 가시밭길을 걸었다.

1951년까지는 남은 신도 20여명이 예배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51년 봄부터는 교회에

서 쫓겨나 동교회(東教會: 이성봉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성결교회)에서 중국 침례교회 교인들과 예배를 드렸다. 1957년 7월 부터는 연경신학원(燕京神學院)을 졸업한 오애은 전도사의 인도로 동포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나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예배가 금지되었다.

1970년대 후반기 중국의 개방정책에 의해 교회의 문이 열리게 됨에 따라 1979년 12월, 예배금지 13년 만에, 그리고 교회당을 빼앗긴 지 30년 만에 중국 안에서 소수민족을 위한 최초의 공인교회로 문을 열게 되었다.

이후 서탑교회는 창대일로를 걸었고 예배 처소의 협소를 해결하기 위해 새 예배당 건립에 착공, 6층 1,210평의 예배당을 인민폐 500만원(한화 6억 원)을 들여 짓고 1993년 7월 3일, 헌당 예배를 드렸다.

오애은 목사는 중국 산성진(山城鎮)과 매하구(梅河口)에 오래 거주했으며 심양여중을 졸업했다. 1948년 6월 결혼하였으나 중국의 어려운 시국 때문에 단란한 가정생활은 맛보지 못하고 혼자 되어 성역(聖役)에 전념하였다. 1953년, 연경신학원에 입학하였으며 앞에

서 말한 대로 1957년 졸업과 동시에 서탑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인도하였다. 1964년까지는 서탑교회 교사와 집사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 문화대혁명의 돌풍이 일어나 교역자들이 모두 체포, 투옥될 때 오애은 목사도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기거하며 매를 많이 맞아 병을 얻었다. 이 병의 후유증이 지금도 오 목사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뒤에는 공장에서 프레스 공으로 일하다가 교회문이 열리게 되어 복직하였으며 1981년 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성경주석학자인 정암(正岩)박윤선(朴允善) 목사님이 해방전 봉천에서 오가황(吳家荒) 교회를 담임하며 만주신학원(滿洲神學院)에 출강한 일이 있는데, 오애은 목사님도 박윤선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으며 박목사님을 초청해서 서탑교회 강단에 모시고 싶어했었노라는 이야기를 한 재미교포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는데 사실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 대륙 동북지역 거주 동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며 서탑교회를 이끌고 있는 오애은 목사님은, 한국식 표현을 빌면

재중동포(在中同胞) 신앙인들의 '대모(代母)'라고 할 수 있다. 오 목사님은 무척 과묵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감정 표현을 극도로 절제하고 있다. 어려울 때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에 예비하신 귀한 종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

필자와는 70년대 후반부터 간접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1988년인가 중국 방문길에 한번 뵈은 일이 있었다.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서는 눈물을 닦았다. 필자도 돌아서서 눈물을 닦고 몇 마디 인사말을 나누고는 사무실을 나왔다. 짧고 말이 적은, 그러나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만남이었다.

중국기독교를 대표해서 1990년 9월에 북한을 방문한 일이 있고, 1992년에는 한국에도 한번 다녀간 일이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공인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사람들을 가끔 대하게 된다. 지혜롭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 지면을 빌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유관지/목사, 극동방송 대진본부장

대륙의 큰 별, 왕명도 목사

김성태

오늘의 중국교회의 대표적인 세 분의 지도자를 꼽으라면 왕명도, 임헌고, 애니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분들 모두가 국가교회로서의 삼자애국교회에 가입하기를 거절하고 가정교회의 지도자로 남아 있었다. 그 중 가장 연장자이며 중국의 바울이라고도 호칭되는 왕명도 목사는 1992년 7월 28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노환으로 소천하였다. 그의 평생의 동역자이며 반려자인 드보라 왕 여사 또한 1993년 4월 18일 상해의 한 병원에서 향년 81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임헌고 목사는 90년 2월 22일 광주에 있는 그의 가정교회에서 공안당국의 습격을 받고 성도 천여명이 넘는 가정교회가 폐쇄되기도 했지만, 현재 광주 대마참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애니류 목사는 북경의 모처, 초라한 그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더불어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엄중한 감시 속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동구권과 구소련에 대변혁이 일어난 후 중국 교회는 큰 시련을 겪어왔다. 삼자애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종교내규범의 강화로 인하여 그 안에서 사역하는 진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했으며,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는 마치 문화혁명기에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었다. 이러한 때 중국성도들의 영적인 지주와도 같았던 왕명도 목사가 소천을 했다. 필자는 왜 하나님께서 왕 목사를 일찍이 불러가셨는지 반문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필자는 왕명도 목사의 불굴의 신앙정신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충성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처럼 중국성도들 가운데 번져 나갔음을 알고 있다. 그는 노년에 시력을 상실하였고, 그의 부인마저도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중드는 사람이 없으면 기동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으나, 주님을 위해 할 일을 다 하고 소천하였다.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 어려움 중에 있는 중국 성도를 위로하고 굳세게 세워 줄 것을 필자는 확신하는 바이다.

이제 왕명도 목사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 한국 교회는 이웃 중국 교회의 신앙의 저력을 귀감으로 삼아 선교에 있어서 겸허함과 인내, 용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복음을 위한 생애

왕명도 목사는 1900년 7월 25일 중국 북경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기 1개월 전에 그의 부친은 의화단의 난으로 인하

여 자결하기에 이르렀고, 그의 모친과 누님만이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 어린 시절, 그는 극도의 궁핍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고, 불량한 친구들과의 교제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아편과 여성편력의 어두운 길을 걸어야 했다. 14세 때 급우 중 한 기독교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전도에 의하여 왕명도는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고,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18세 때 정치가가 되려는 개인적인 야심을 포기하고 무서운 질병의 고통을 겪은 후, 나이 20세 때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헌신하였다. 그는 기존의 서구 선교사들의 선교방법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선교사 위주로 운영되는 신학교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다.

여기서 필자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그랬다기보다는, 청년 왕명도가 보기에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를 어린아이 취급하듯하여, 지도자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가부장적 의식에 의한 종속적 선교를 실시하는 데 대한 강력한 반발로서 나타난 것이었다. 왕명도 자신은 개인적으로 많은 진실한 선교사들과 교류하였고 그들에 의해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받았다.

후에 이러한 교류는 그가 감

옥에 들어간 때에도, 또한 감옥에서 풀려나와 초창기 상해에서 극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때에도 계속되었고, 그에게 적지 않은 격려가 되었다. 청년 왕명도는 전도자로서 중국 전역을 순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의 부패성,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며, 특히 성도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1937년에 북경 '기독교 회당(基督徒會堂)'이라는 교회당을 건립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위협하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능력있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또한 계간지 '영식(靈食)'을 발간하여 중국 성도들에게 전국적으로 성경공부의 열기를 불어넣었고 많은 신앙서적을 발간하여 중국 교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1949년 모택동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공산당에 충성하라는 서약과 삼자애국교회에 가입하라는 협박과 회유를 받았지만 그는 단호히 거부하고, 오히려 1951년부터 1954년까지 많은 책자를 통하여 교회가 무신론 정부의 꼭두각시가 될 수 없고 세상과 야합하거나 타협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955년 삼자교회의 대변지요, 중국공산당의 어용지인 『천풍(天風)』은 왕명도 목사가 종교자유정책을 남용하여 국가

를 대적하고 삼자애국교회를 거부한다는 명목하에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결국 왕명도 목사는 수감되고 재판을 거쳐 15년형을 언도받았다.

감옥에서 그는 수개월 동안 밤낮의 구분없이 계속되는 무서운 정신적인 고문을 받았고, 결국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혼란중에 공산당이 내민 반역죄 고백문에 서명을 하고 말았다. 이로써 왕명도는 감옥에서 풀려나오기는 했지만 그의 민감한 양심은 그로 하여금 북경거리를 거닐면서,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베드로, 가롯 유다와 같다."라고 부르짖게 하였다. 수주일 후 정신이 회복되고 기도중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관계당국에 나아가서 서명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공산당과 타협치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그의 아내는 15년형을 받아 감옥에 재수감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미가서 7장 7절~9절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갖게 되었다. 마침내 그의 부인은 1977년에, 그는 1980년에 석방되었다.

왕 목사의 사상

왕명도 목사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서구선교기관의 연속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중국인에 의한 진정한 토착교회를 세

우자는 것이고, 둘째는 외부의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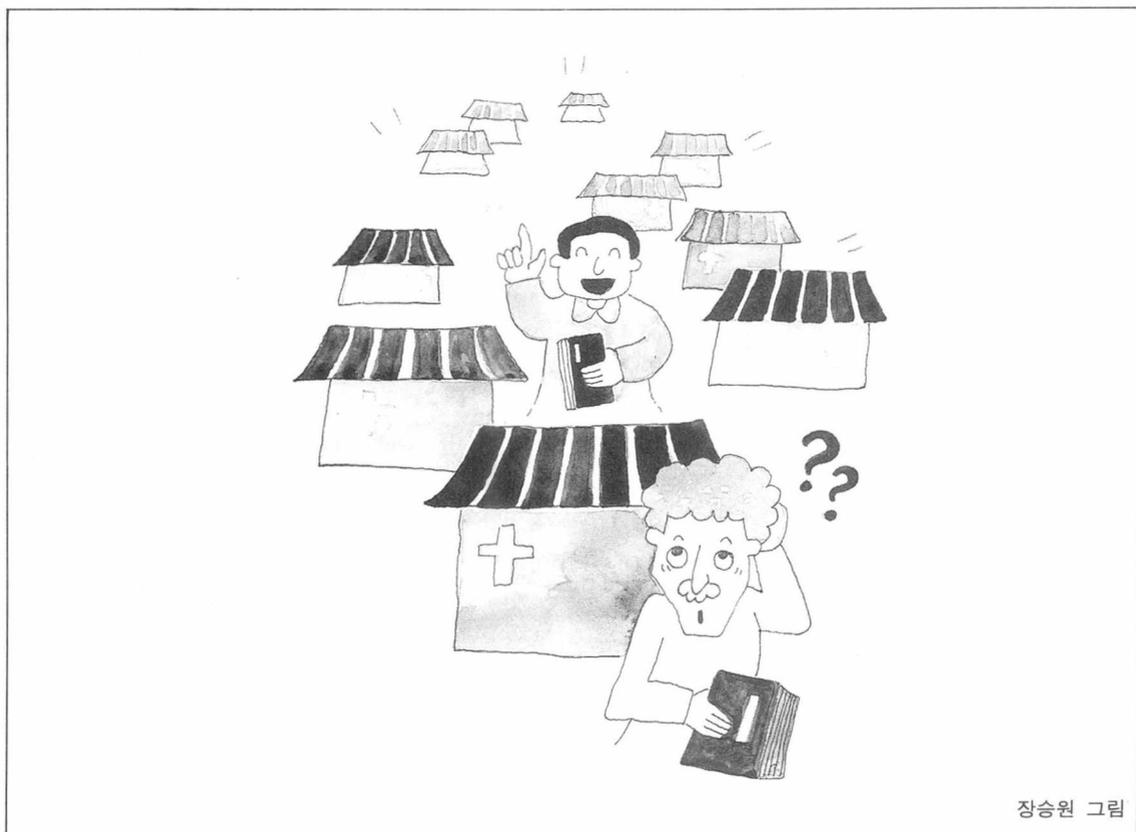
18세기에 일어난 헨리 벤과 루푸스 앤더슨에 의한 토착교회 설립운동은 독일 튜빙겐 대학의 피터 바이에르 하우스나 미국의 윌리엄 스멀리가 지적 하듯이,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조직 위주의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었고, 이것은 결국 선교지에서 피상적인 교회행정이나 조직면에서의 독립은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현지인에 의한 진정한 토착교회를 세우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토착교회 설립원리는 한국에서는 네비우스 원리로 1890년 소개되었는데, 벤과 앤더슨의 초창기 개념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어쨌든 왕명도 목사는 서구선교의 이러한 허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중국인 지도자에 의한 진정한 중국 교회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그 자신이 성공적인 모범을 보여 주었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왕명도 목사의 정신이 오늘날의 중국 교회의 정신이며 이것이 또한 성경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왕명도 목사 사상의

핵심을 말하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는 것이다. 그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실수는 있었지만 불의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부당한 외부의 간섭에 신앙적 타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였기에 왕명도 목사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오늘날 왕 목사의 정신이 중국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위로와 능력으로 계속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



장승원 그림

다.

부정적인 면도 보이는데, 왕명도 목사의 초창기 사상 속에는 그리스도인은 범죄할 수 없다는 완전 성결주의적 사상이 있었다. 이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때에 종종 나타나는 그릇된 감정의 고양된 산물로서 잘못하면 경직되고 편협한 바리새인적 독선주의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왕명도 목사에게 있어서는 그의 서약에 대한 실수와 재번복, 그로 인한 자신의 연약함의 발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로, 노년에 그는 오직 은총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격과 성화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여기에 중국 가정교회가 핍박을 받고 때론 동료의 배신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형성되기 쉬운 경직된 율법주의적 구원관에 대해서도 왕명도 목사는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도 극복하게 하는 궁극적 승리의 원천이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생애를 통한 교훈

한국 교회는 왕명도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 가정교회를 이해해야 한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 중국성도들은 지상에서 왕명도 목사를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표로 존경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중국선교를 함에 있어 우월의식이나 영적 교만을 절대 배격해야 한다. 중국의 복

음화는 궁극적으로 중국 교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선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과거 잘못된 서구 일부 선교지도자들의 문화우월의식이나 종속적 선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도성인신(道成人身)하여 섬기는 진정한 선교를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 교회는 외부적 상황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득있게 연구하지 못했으므로 말씀에 굽주려 있다.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자.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해 저들은 육의 양식의 결여조차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이다.

오늘도 중국 교회는 왕명도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정한 중국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있다. 여기에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로서 참으로 겸허하게 중국 성도들을 통해 배우며, 또한 저들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채워주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왕명도 목사의 따스한 손길을 기억한다. 그는 한국 교회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신뢰했으며, 많은 천국의 일꾼들이 중국에 들어올 것을 기대한 바 있다.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자.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해 저들은 육의 양식의 결여조차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이다.

김성태/ 목사, 총신대학원 선교학 교수

편집자 주:
이번호로 “중국기독교 인물소전”을 마무리 합니다.
다음호부터는 “중국 선교사 열전”을 게재합니다.

기성교회들

방지일



지난 두번에 걸쳐 얘기된 신흥 신앙운동으로서의 극한 금욕주의인 예수가정과 그 반대인 소군(小群)운동은 그 인기가 대단했다.

기성교회의 활동으로 일어났던 괄목할만한 운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중화기독교회 운동

중국 본연의 교회로 대동단결을 취지로 일으키니, 많이 호응하고 여러 교파가 가담하여 대교단이 된 것은 사실이며 소수지만 가입되지 않은 교회도 있

었다.

영은회(靈恩會) 운동

외래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교회는 너무 속화되는 듯하여 신성한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국 지도자들의 운동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다. 부흥 운동도 곁들여 일어나니 상당한 호응을 얻어 각처에 영은회란 교회가 세워졌다. 많은 헌금을 하여 교회당을 웅장하게 짓고, 자기들 끼리나 타 교회와의 연락은 없이 개교회 직영으로 상당히 위세를 떨치다가 공산치하에 같은 운명을 당하였다.

교회관을 바로 가지지 못하고 일시적 모임의 성황으로 교회가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내가 보는데로 그 한 세대밖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장로회 자립회

외부의 원조가 필요 없다고 자립해서 세워진 교회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

어떤 장로는 큰 실업가로 재산도 넉넉하고 학식도 박학이라 자신이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며 찬송가를 따로 만들고 큰 교회를 세워 운영하였는데 내가 있던 청도에서 가장 우수한 교회였다.

어떤 조직도 안 가지고 자립회들끼리 서로 연락하는 등의 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이런 경우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구적 발전을 기할 수 없음을 사실인데, 이를 내다보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되 자신들의 논조로는 모르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아니라 하기도 한다. 때로 교회가 현실의 사명은 뒤지지 않게 잘 감당하나, 2대가 지난 다음에는 교회의 양상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진다.

번역한 성경이 어떤 유물로 남으며, 또 이런 분이 있었다는 기록은 남을 것이나 교회의 영구성은 외면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대화도 가져보나 결국 자기만족에 도취하는 경향이라고 결론을 지은 나는 그 교회가 그렇게만 쓰여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개인교회의 속출

강단적으로 문서적으로 좀 특이한 인기 있는 분들은 상해를 위시하여 개인교회를 많이 세웠다. 명망 있는 분들이 문서운

동으로 독자를 얻는 등 부흥집회로 동조자를 얻으면서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고 개인 경영을 한다. 바른 교회관을 가지지 못한데서 나온 지도자의 일이며 한 지도자에 도취된 대중들의 현실 만족으로 볼 뿐이다.

왕명도 선생

이 분은 '예수가정' '소교회' 등과 같이 대선동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북경에서 덕망 있는 신앙의 지도자로 전 중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친 분이다. 왕명도 선생은 그 질이 워치만 나와도 달라 소털 뽑았다가 거기 도로 꽃을 분이다. 강직하고 예리한 분이다. 허례허식을 원수같이 여기고 어느 교단에 속하지도 않고 작은 집회를 가지고 메시지를 짹짹하게 전하는데 대인기가 있었다. 주일이면 그 모이는 북경 한 골목이 완전히 메우게 되고 인파로 밀렸다. 그는 대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받은 바 복음을 자기 평생 전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의 영구성에 관한 것도 말하지 않는다. 남의 교회를 평가하지 않는다.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절대사명으로 삼는다.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깊이 생활로 실천하니 그의 인망은 전 중국에 충천하였다.

진리라고 생각할 때 생명을 내건다. 일본인이 북경을 집권했을 때 몇 번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면에 반기를 들면서도 선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를 잡으려고 다각도로 회유하였으나 절대 틈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 시대에도 왕명도는 신앙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 더욱 교계에서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또한 북경으로 그를 찾아 만나러 가는 이가 많았다.

전 중국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그의 출판물도 상당히 많이 팔렸다. 공산당 치하에 들어와서 주은래(周恩來)가 친히 접촉하려 해도 불응하여 더욱 인기가 높았는데, 그 후에 공산당이 그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궁금된 것을 알았고 놓인 것도 내가 돌아올 때 들은 바인데 정신착란은 아닌 것 같지만 영 다른 이야기만 하더라고, 내 교인이 그에게 갔다 왔는데 잘 알아보기는 하나 신앙문제는 전연 언급이 없고 집에 가구에 칠을 하면서 그 평가로 일괄 하더라.

『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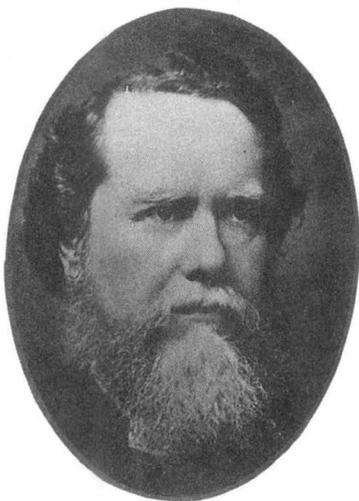
방지일/중국어문선교회 교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구원의 큰 능력

허드슨 테일러

몸이 회복된 후 나는 런던에 다시 돌아와 학업을 계속하면서 바쁜 병원 생활과 긴장된 수업에 몰두했다. 주일이면 항상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특히 토튼햄(tottenham, 런던 북부에 위치한 도시-편집자 주)에서 온 친구들로 인해 즐거운 주일을 보낼 수 있었다. 곳곳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에서 내게 아주 큰 격려가 되었던 한 사건이 떠오른다. 그 사건은 나에게,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었다.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맛보곤 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만큼 어려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목적이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늘상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하나님께서서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영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분이시며,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증명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한 구원자이시지 않은가?

중국에 갈 날이 멀지 않았던 그 당시, 나는 매일 피저병(피부가 썩어 가는 병)에 걸린 한 환자를 돌보면서 그의 두 다리를 드레싱(소독)해 주고 있었다. 그 병의 특징상 초기에는 병균이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이 필연적으로 죽게 될 것이며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내가 이 환자를 처음 간호하는 의사는 아니었다. 원래 다른 의사가 그를 돌보았는데, 이 환자를 돌보는 책임이 내게 주어지자, 나는 자연스레 그의 영혼에 대해 더욱 큰 염려를 하게 되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더러 종교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이 사람을 불러다 그를 위해 성경을 읽어준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몹시 화를 내며 성경을 읽어주러 온 사람을 당장 내쫓았다. 또 언젠가 목사님 한 분이 그를 돕기 위해 병문안차 그를 방문하였는데, 그는 오히려 목사님 얼굴에 침을 뱉었고 한 마디 말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다. 이처럼 말할 수 없이 난폭한 성질을 가진 그는 내가 보기에 예수를 믿을 가망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신앙에 대한 얘기는 일절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다. 내가 특별히 조심스럽게 그의 병든 다리를 씻어 주면서 가급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였더니, 그는 이내 나의 보살핌에 대해 감격의 표시를 하곤 했다. 하루는 그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기회를 타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전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이토록 정성껏 돌봐주고 섬기는지, 또 그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로로 여기심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결과는 분명했다. 그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면서 입을 꼭 다문 채 내게 등을 돌리고 한 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다.

나의 뇌리 속에 그 불쌍한 영혼에 대한 기억이 떠나지 않았다.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 죽기 전에 꼭 구원을 얻게 해 달라는 기도였다. 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려 갈 때마다 나는 늘 그에게 한두 마디 축복의 말을 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등을 돌린 채 몹시 화가 난 사람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한동안 별별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결국 나는 회의와 실망에 빠지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그는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마음이 강박해진 것 같았고 죄악의 깊이도 날로 더해가는 듯 하였다. 어느 날, 나는 그의 다리 상처를 소독하고 나서 바로 손을 씻고서는, 그의 침상 곁에 가서 말을 건네던 전과 달리,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문을 향해 걸어 갔다.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다. “以法蓮(에브라임)이 우상을 가까이 하니 그냥 내버려두라!” 그 환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다. 처음으로 내가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채 병실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이

다. 난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의 두 눈에서는 샘 솟듯 눈물이 흘러내렸다. 되돌아가서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당신이 듣든지 말든지 난 반드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한 얘기를 해줘야만 하겠소”

그리고 나서 아주 진지하게 그와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그와 함께 기도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얘기했다. 그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입만 열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위안이 된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그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두말 할 것 없이 나는 당장에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당시 그 장소,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이미 그의 영혼을 회개하도록 하신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 때 이후로 그는 한 번도 내 설교가 듣기 싫다거나 기도하는 것을 마다한 적이 없었다. 며칠 뒤,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 환자가 믿음의 소망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 역시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밟지 않았었다고 한다. 40년 전에 딱 한번,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교회에 간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심지어 부인



장승원 그림.

의 장례식을 치를 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최악에 더럽혀졌던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깨끗함을 얻고 정결하게 되어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음을 믿는다. 내가 중국에서 처음 전도했던 그 당시, 수많은 시간 동안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던 때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나는, 그 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금새 격려와 힘을 얻고 끈기있게 사역을 계속해 갈 수 있었다.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기쁨으로 가득 찬 그 환자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뒤 얼마 동안 살았다. 사는 동안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으며 전혀 힘들게 느끼지 않았다. 비록 그의 병세가 우리를 안타깝게 했지만, 그의 성격과 일거일동이 변화되어 그를 간호하는 사람들은 그를 돌보는 일이 고통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운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후로 나는 자주 이 사건과 하나님의 일반적 사역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이야기하곤 한다. 우리들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더 큰 기쁨으로 수확을 거둘 것이다. 때때로 우리들은, 믿지 않는 이의 마음이 너무도 강박

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내면은 더욱 강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영원한 일에 대한 우리들의 알팍한 인식이야말로 성공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다.

『獻身中華-Hudson Taylor 著』
중에서

편집자 주:

이 글은 홍콩 宣道出版社에서 출판한 『獻身中華』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宣道出版社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번역: 차이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親愛主, 牽我手

주님여 이 손을 꼭잡고 가소서

1. 親愛 主, 牽我 手, 建立 我, 領我 走;
 2. 我道 路, 雖淒 涼, 主臨 近, 慰憂 傷;

我疲 倦, 我軟 弱, 我苦 愁;
 我在 世, 快打 完, 美好 仗;

經風 暴, 過黑 夜, 求領 我, 進光 明;
 聽我 求, 聽我 禱, 攙我 手, 防跌 倒;

親愛 主, 牽我 手, 到天 庭.
 親愛 主, 牽我 手, 常引 導.

1. 주님여 이 손을 꼭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몸을
 폭풍우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2.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때
 주님여 날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소리 귀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발음

1. Qīn ài zhǔ qiān wǒ shǒu, jiàn lì wǒ, lǐng wǒ zǒu
 wǒ pí juàn, wǒ ruǎn ruò, wǒ kǔ chóu
 jīng fēng bào, guò hēi yè, qiú lǐng wǒ jìn guāng míng
 qīn ài zhǔ, qiān wǒ shǒu, dào tiān tīng
2. Wǒ dào lù, suī qī liáng, zhǔ lín jìn, wèi yōu shāng
 wǒ zài shì, kuài dǎ wán, měi hǎo zhàng
 tīng wǒ qiú, tīng wǒ dǎo, chān wǒ shǒu, fǎng dié dǎo
 qīn ài zhǔ, qiān wǒ shǒu, cháng yǐn dǎo.

“저에게 아버지가 생겼어요”

편집자 주:

이 간증은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랑의 집(박애린 선교사)' 주관으로 열렸던 “중국인 초청 추석 연회”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중국인 형제 자매가 보내온 편지의 전문(全文)입니다.

한국에 취업차 들어온 중국인 대상 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간증은, 우리 곁으로 찾아온 이들 중국인 노동자들이야말로 희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영혼들임을 절실히 깨닫게 할 것입니다.

박 회장님께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로 하여금 서광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은 저에게 갑자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생겼다니 흥분과 기쁨을 감출 수 없어요.

우리가 서광교회를 떠난 지 4, 5일이 넘었는데도, 나의 마음은 항상 교회 곁에 머물고 있어요. 서광교회에서 가졌던 그 초청 잔치의 나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피가 끓어오르고 맥박이 빨리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걸요. 우리들이 헤어진 그 순간 차 속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헤어지기 싫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과 영원히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들의 재회를 예비해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매주일마다 반드시 교회에 나가 성경을 공부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제 마음 속에 계실 겁니다.”

비록 제가 멀리 고향을 떠나 이곳 한국까지 왔지만 저는 또 다른 고향집을 찾았어요. 그 곳은 아늑하고 사랑이 가득한 집,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열렬하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헤어진 지 며칠이 넘었는데, 그 때 우리들을 도와주셨던 그 자매님들은 아직 서광교회에 계시는지요? 나는 그분들이 몹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두 나의 좋은 누나들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들이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주 누나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의 장면들은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로마서 5장 1절-5절)

내가 처음 교회 문을 들어 설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켰고 나를 완전히 감쌌답니다. 나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만날 그 날까지 기도할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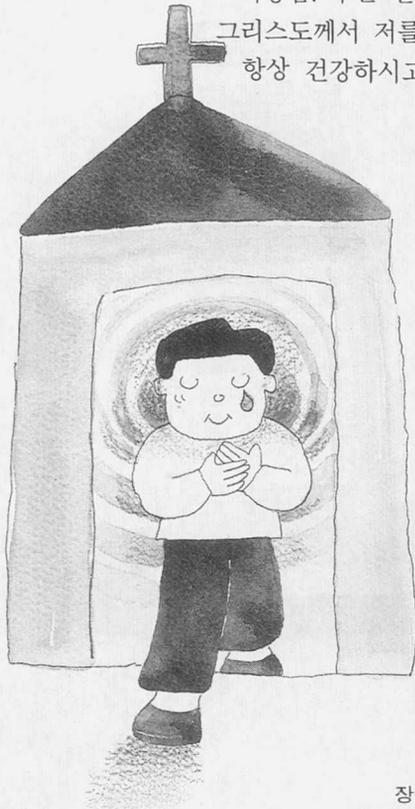
지금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장애는 언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언어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으니깐요.

회장님! 무슨 말을 해야 나의 이 벽찬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 저의 마음을 전달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1994년 9월 23일

L 형제 드림



장승원 그림

사랑하는 조장님께

안녕하세요!

저의 인생 가운데, 한국에 올 수 있게 하시며, 또 교회로 인도하셔서 조장님을 알게 된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처음 믿은 저희들로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양식을 몹시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때에 당신이 그 많은 좋은 책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은 마치 굶주렸다 젖을 먹는 아이처럼 이 책들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책 속에 담긴 많은 말들에 매혹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내게 하나님의 얘기를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찾았지만,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해답의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장승원 그림

고등학교 시절 나는 글쓰기를 광적으로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난 필명(筆名)을 강약연(江若烟)이라고 지었어요. 지금도 이 필명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 뜻은 강물 위에 어려있는 한 오라기 안개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치 그런 물안개처럼 자기의 형상도 알지 못하며, 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목적없이 방황하는 아이였어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난 정말로 한 오라기 연기일 뿐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연기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나는 목적없이 떠 다니는 안개가 아니에요. 제 일생을 바쳐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어요. 이제 난 다시는 연기처럼 약하지 않을 겁니다. 피곤에 찌들고 상처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넓은 품을 열어 나로 하여금 숨을 돌릴 수 있는 피난처를 허락하심으로 안식을 주시며 나를 치유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곁에서 나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의 많은 생각들이 아직까지는 어리석고 유치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심지어는 바보스럽기도 하겠지요. 전 그래도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그분만을 믿을 겁니다.

‘부디 나를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선생님이자 선배님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저 대신 조장님 친구분들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저희들을 대해 주셨던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번 초청잔치를 주관하셨던 그 여사님께도 감사를 전해 주세요. 우리 모두 내년 설날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조장님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994년 9월 28일

당신의 중국인 친구 P 자매 드림

最大的誠命

路廿23-26; 可十二28-34, 38-44; 十三; 太廿六14-16

가장 큰 계명

(눅 20: 23~26, 막 12: 28~34, 38~44, 막 13장, 마 26: 14~16)

1 耶穌在聖殿的大堂中傳道，法利賽人想找他麻煩。他們問：付稅給該撒對不對？耶穌知道這是一個圈套：要是他答「對」，民衆會反對他，要是他說「不對」，羅馬人會拘捕他。他要求看一枚羅馬錢幣。

1 예수께서 성전의 회당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괴롭힐 것을 생각했다. 그들은 "제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의 함정임을 알았다. 만약에 그가 "옳다"라고 대답한다면, 민중들이 그를 반대할 것이고, 만약에 그가 "틀렸다"라고 대답한다면 로마인이 그를 구속할 것이다. 그는 로마동전을 하나 가져와 보라고 했다.

2 這個像
是誰?
2 이 초상은
누구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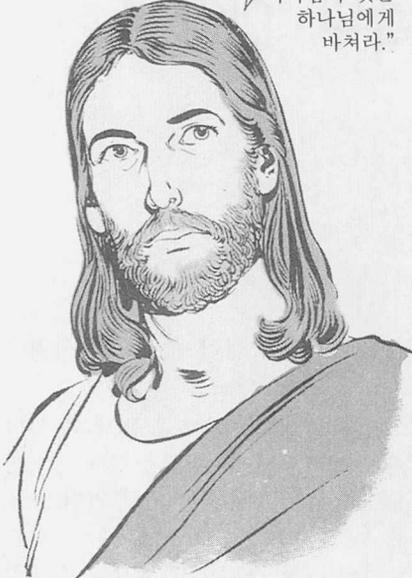
3 該撒大帝。
3 "가이사
황제입니다."



4 耶穌不動聲色地把錢幣交還那人。

6 該撒的東西歸給該撒，上帝的東西歸給上帝。

6 “가이사(該撒)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하)다(다)님의 것은 하(하)다(다)님에게 바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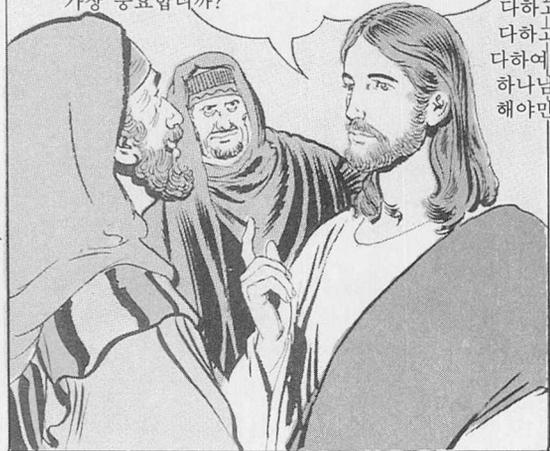
5 法利賽人敗下陣來，十分氣憤，但也不得不佩服耶穌答覆問題的智慧和。那天稍後，法利賽人再提一個難題。

7 我們的六百一十三條誡命中，那一條最重要？

7 “우(우)리(리)에(에)게(게) 613(613)조(條)의(의) 계(戒)명(命)이(이) 있(있)는(는)데(데), 어(어)느(는) 것(것)이(이) 가(가)장(장) 중(중)요(요)합(합)니(니)까(까)?”

8 你要盡心、盡性、盡意、盡力、愛主你的上帝，其次就是要愛鄰舍如同自己。

8 “너(너)는(는) 마(마)음(음)을(을) 다(다)하(하)고(고) 성(성)품(품)을(을) 다(다)하(하)고(고) 뜻(뜻)을(을) 다(다)하(하)고(고) 힘(힘)을(을) 다(다)하(하)여(여) 주(주) 너(너)의(의) 하(하)나(나)님(님)을(을) 사(사)랑(랑)하(하)야(야)만(만) 한(한)다(다).”



9 你說的是真理：愛上帝和鄰舍，比獻燔祭重要得多。

9 “당(당)신(신)이(이) 말(말)한(한) 것(것)은(은) 진(진)리(리)입(입)니(니)다(다). 하(하)나(나)님(님)과(와) 이(이)웃(웃)을(을) 사(사)랑(랑)하(하)는(는) 것(것)이(이) 제(제)사(사)를(을) 드(드)리(리)는(는) 것(것)보(보)다(다) 더(더) 중(중)요(요)합(합)니(니)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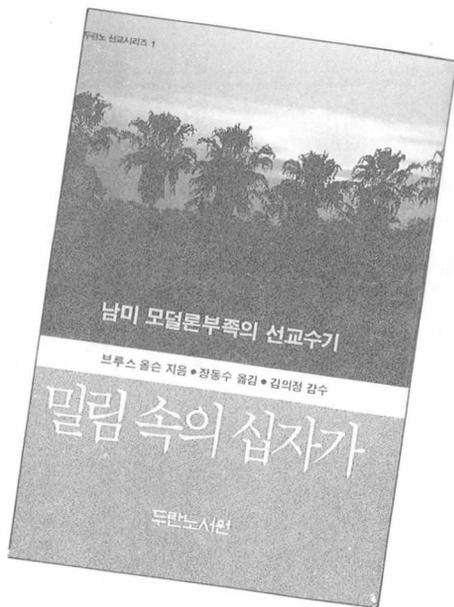
10 你離上帝的國不遠了。

10 “네(네)가(가) 하(하)다(다)님(님)의(의) 나(나)라(라)에(에) 가(가)까(까)이(이) 왔(왔)다(다).”



5 法利賽人敗下陣來，十分氣憤，但也不得不佩服耶穌答覆問題的智慧和。那天稍後，法利賽人再提一個難題。

4 耶穌不動聲色地把錢幣交還那人。



밀림 속의 십자가

박안나

이 책은,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진 모델론 인디언에게 19세의 나이에 들어가 사역한 미국인 선교사 브루스 올슨이 자신의 선교일지를 정리해서 쓴 것이다.

기독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명목상의 크리스천에 불과했던 올슨은 14세 때 하나님을 만나 경이로운 영적 체험을 하였고, 16세 때 한 초교파교회에서 열린 '선교사초청수양회'에 참석하여 『지상최대의 사명-great commission』의 도전을 받고서 언어학 교수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 후 선교부로부터 허입을 거절당하자, 선교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려 했으나, 지속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굴복하여 당장 남미로 떠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는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복음보다는 서구문화의 전달자로 일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인 인디언들이 동료 인디언들에게 거부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접근하고자 하는 모델론인들은 매우 포악하다며 가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이 극구 만류했으나, 그는 기어코 모델론 인디언을 찾아 나섰고, 결국 그들로부터 침입자라 하여 공격을 당한다. 화살과 창에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그와 모델론인들과의 첫 만남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다. 대도시에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안주하고 싶은 유혹도 받았으나, 정글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부르심에 결국 다시 모델론인들이 있는 정글로 들어가 언어를 배우며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8개의 보건소가 세워지고 영농방법이 개발되었으며 학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이 모든 시설들이 백인이 아닌 모델론인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는 모델론 인디언에게 그들 고유의 문화를 포기해 버리고 백인처럼 살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족장들이 직접 새로운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기존 사회의 붕괴없이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

물론 가장 큰 능력은 성령의 역사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에게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했다. 장례식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임을 깊이 애통해하며, 상실감을 체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올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작업을 시작하셨음을 찬양하며 『바나나 줄기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개미가 된 모델론 인디언 전설』 등의 '구속유비'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이 일을 계기로 올슨을 형처럼 따르고 존경했던 인디언 청년 바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는 지도자가 되었다. 결국 바비의 지도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부흥이 마을 전체를 휩쓸게 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전에 원수로 지내던 유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단이 파송되어, 하나님이 주신 말로 언어가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결단한 것이다. 이것은 올슨의 가장 진실한 동역자이며 부족의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바비가 탈옥수들의 총에 사살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까지 신뢰하는 깊은 신앙으로 연합하게 했다.

올슨은 사역을 하다가 그와 결혼을 약속한 글로리아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의 동역자 바비를 잃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왜 이 길을 가야하는지? 올슨의 깊은 상실감에 대한 해답은 바로 밀림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나는 “밀림 속의 십자가”를 읽으면서 이 책이야말로 선교지원자와 선교훈련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했다. 『문화적 갈등과 사역』이 타문화권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론서적으로서 타문화권에서의 행동지침서라 한다면, 이 책은 타문화권에서 가슴과 삶으로 겪은 실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기에 서로 보충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젊은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선교사가 되도록 돕는 하나님의 도구인 직분자로서의 나에게 큰 감동과 교훈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도록 도전했고 삶의 질을 높인 유익을 주었다.

선교에 대한 도전 이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고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이 연약에 휩싸여 있을 때도 결국은 순종해 가는 젊은이의 모습에서 선교사의 좋은 모델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선교에 헌신한 이후에도, 여러 번 합리적으로 보이는 가장된 『가지 말라』는 선포 앞에 서서 헤쳐나가야만 하는 선교헌신자가 유의해야 할 면모라 본다.

올슨은 돈 리차드슨이 말한 ‘구속의 유비’를 들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깊은 관찰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점을 본받고 싶다. 선교사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자문화우월주의를 벗어나 모델론인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볼 때 오늘의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다. 복음의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서구의 시기에 맞춘 듯한 추수감사절, 서구음악 일색의 찬송가, 한국적 양식을 배제한 교회건축 등 아쉬운 점들이 보이는 이때에 올슨의 사역은 얼마나 소망 있고 안목 있는 선교인지 감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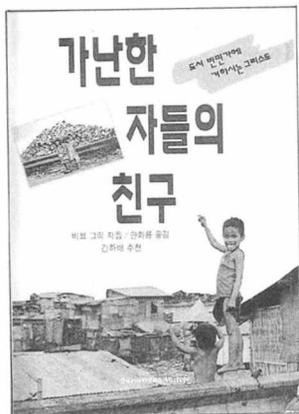
올슨이 하나님의 임재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초청한 이후, 삶의 순간 순간마다 당신을 나타내시고 종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한 책자를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 존전에 초대해 주셔서 부요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연약과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힘 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소망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

도시 빈민가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비브 그릭 저 / 한화룡 역 /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IVP) 간 / 286쪽 / 4,800원



이 책은 아시아의 한 도시 빈민들 가운데 주 예수의 나라를 소개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뉴질랜드 출신 선교사 비브 그릭은 1979년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필리핀 마닐라의 빈민가 타탈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가장 어두운 장소인 불법적인 도시 빈민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도시 빈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려는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 비전은 함께 거함, 선포, 교회 개척과 지역 사회 개발을 결합한 총체적 복음 전도에 의해 추구되고 성취된다.

그릭은 성경적인 도시선교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지침서로서 마귀와 사회적, 구조적 악을 대적하는 것을 개인적 경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전도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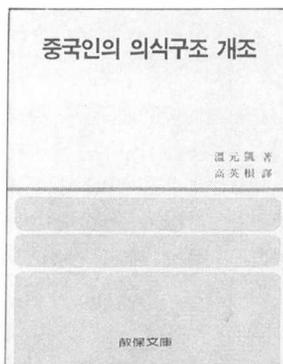
사회 개발 사역을 통하여 도시와 이웃과 세계를 변혁시키는 세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님을 따르는 급진적인 제자도 정신을 갖추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즉 2/3 세계의 빈민들에게 주목하게 한다. 이 세계의 반은 도시이고 도시에 사는 이들의 절반 가량이 빈민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되라는 성경적 소명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중국인의 의식구조개조

신개혁을 위한 잠재적 의식의
개조

溫元凱 저 / 고영근 역 / 교보문고 간 / 156쪽 /
4,200원



이 책은 최근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성공하려면 먼저 중국인의 의식

구조가 개조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새로운 문화 구조가 정립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논리로 기술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안내서이다.

저자는 먼저 중국의 역사상에 나타났던 각 개혁들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평가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부강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당면 목표인 개혁·개방의 성공은 중국인들의 의식구조 속에 침전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잠재구조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조를 병행함으로써만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그같은 철저한 개조의 진행을 저해하는 걸림돌인 중국인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적나라하게 표출시켜 예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인의 의식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전통문화 잠재구조의 개조를 통한 새로운 문화구조의 정립방향을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 의식구조 개조의 원천은 중국인 자신들로부터 출발하여 자아 인식과 반성, 비판을 거쳐 스스로 개조함으로써 자기완성의 길로 도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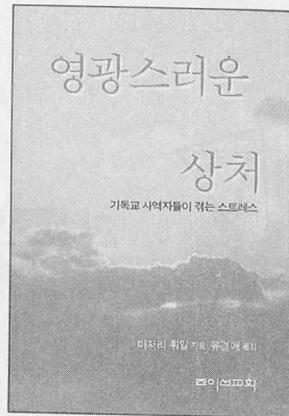
이 책은, 우리와 기질적인 면에서 다르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중국인들의 사고철학에 관련하여 간단하게나마 지식적인 안내서가 될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접근하여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상처

기독교 사역자들이 겪는 스트레스

마저리 휘일 지음 / 유경애 옮김 / 212쪽 / 3,400원

이 책은 수년 간 인도와 네팔 등에서 정신치료사로 사역한 영국 출신의 의료선교사 마저리 휘일 박사가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 문화와 언어가 다른 해외에 나가서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은 사역의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상처야말로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어판 저자 서문에서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선교사들의 상처가 오래 선교사 자신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선교사의 독신생활, 선교사의 결혼생활, 자녀문제, 청소년문제, 지도자나 선교사 선발, 문화충격, 대인관계, 사역자의 영적 자원 등 선교사의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트레스의 요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또한 선교사들이 입은 여러 상처들을 보여주고 그 예방책과 어떻게 그것들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말하는 저자의 조언은 선교사, 선교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와 기독교 사역자, 또한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가정을 이루어가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종교

● 중국, 기독교 탄압 거세다. 북경 강와시교회, 강력반발

최근 중국공안당국과 양회(삼자회와 중국기독교협회)가 교회와 지도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교회지도자인 강와시교회의 양유동 목사(75)가 주임목사직을 박탈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강와시교회 당무위원회(제직회 또는 당회)는 이같은 조치에 반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중국 교회에 정통한 중국선교전문가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회의 주도하에 오랫동안 양목사에 대한 축출기도가 있어 왔고, 양회 측으로부터 양 목사에게 최후 통첩인 주임목사직 박탈 의사가 전달돼 양회와 교회간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94. 11. 10)

● 중국 정부 파견 교회 지도자 심양의 동관교회(東關教會) 재정 형령.

1994년 4월 7일, 심양시 공안국에서 두 명의 종교국 국장과 많은 간부들이 동관교회에 들어가 교회금고를 지키고 있는 20여 명의 성도들을 구속했으며, 동시에 두 젊은 목사인 곽양의(高

良義)와 고폐만(高沛滿)을 잡아갔다. 이 사건은 동관교회에서 관리위원회가 설립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 계속 회의 한 번 없이 정부에서 파견된 두 원로 지도자가 독단으로 재정을 장악해 온 것에 대해 교회 재정을 지키려는 소장과 목사와 신도들의 노력이 정부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은 불행한 사건이다.

(華僑日報 1994. 10. 3.)

● 중국 합법종교 보호, 사회주의 이념 따라 운영

한국비디오선교회(회장:신성종 목사)는 지난 29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중국 길림성 연변 자치주 종교사무국 도쌍복 국장 초청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중국의 종교현황과 정책」이란 주제로 강연한 도 국장은 “중국은 정책적으로 종교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 “헌법 및 각종 종교 관련법규로 합법적으로 인정된 종교는 보호하는 반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이단 사이비종교는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국장은 “중국의 종교신앙 기본 정책은 신앙과 불신앙, 종교선택, 교파선택, 신앙선택과 포기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등 4가지”라고 설명하고 “기독교를 비롯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도교 등 중국의 5대 종교는 중국식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독특한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독교인 수는 건국 당시보다 10배 증가한 7백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한 뒤 중국에도 장로교파에 속한 교회들이 많고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듯 나라를 사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독신문 94. 10. 8)

● 중국교포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 호 활동 개시

중국교포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 및 구조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는 ‘제한외국인근로자 선도연합회’가 기독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10월 28일 오후 5시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린 창립예배는 교계 인사 및 법률인, 의료인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연합회장에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 사무총장에 지인식 목사(외국인노동자선교회 대표) 등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창립된 ‘제한외국인근로자 선도연합회’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결국 사회전체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 법률강좌, 문화교육, 의료지원활동 등의 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크리스천신문 94. 11. 10)

● 중국 APP, 성경 8백만권 출판

중국 본토의 어머니 프린팅 프레스는 지난 4월 25일 난징 지역 동지에서 7

백만 권의 성경을 출판한 기념식을 행한 후 불과 5개월 후인 지난 9월말 8백만 권의 성경을 출판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5월 한번에 4백만 권을 찍어낼 수 있는 새 기계가 도입돼 가동되면 그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성경 출판의 이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밀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성경 1권을 약 1달러에 판매하고 있는 APP는 지난 1967년 중국교회협의회와 연합성서공회와 함께 창설,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한편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크리스찬신문 94. 11. 12)

● 홍콩 천주교 단체 방중, 중국-바티칸 수교 희망

홍콩지역 추기경인 호진중(胡振中)을 비롯, 천주교 단체 일행이 11월 13일, 4일 동안의 북경방문을 마쳤다. 대변인 증경문(曾慶文)은 이번 방문에서, 1997년 이전에 중국과 바티칸이 되도록 빨리 국교수립을 회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콩이 반환되는 97년이 임박해옴에 따라 이민자(移民者) 가운데 천주교도들이 증가하고, 수교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안정될 것이며 분열된 성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信報 1994. 11. 14)

한·중관계

● “중국, 한반도상륙 가상 군사훈련”

중국은 「한반도에 상륙하여 北韓을 지원하고 美國과 韓國에 대항하는 것이 전술목표」인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난 8월 23일 전략요충인 요동반도에서 실시했다고 홍콩의 중국문제 전문월간지 경보(鏡報) 최신호가 2일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하에 실시된 육·해·공 3군 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에 따라 한미 양국에 무력을 과시하고 북한이 이들로 부터 군사침략을 받으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단호한 결심이라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

(동아일보 94. 10. 3)

● 위장결혼 중국교포에 혼인무효 위자로 판결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농촌 총각과 위장결혼한 중국교포에 대해 최초로 혼인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는 4일 남모씨(35.농업)가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가출한 중국교포 김모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씨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 해 1월 친지의 소개로 중국 연변에서 김씨를 소개받아 같은 해 7월 김씨를 초청한 뒤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했으나 김씨가 결혼 5개월 만인 12월 남씨 몰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가출하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94. 10. 4)

● 한국기업, 중국 혼춘 진출 “러시”

북한·중국·러시아 3개국 접경지대로 교통의 요지인 혼춘은 UNDP(유엔개발계획)가 2010년까지 경제특구로 종합개발하기로 한 곳. 두만강을 통해 동해 진출이 가능하고 북한 나진항, 러시아 포세트항, 블라디보스토크와 인접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곳에 최근 현대, 대우,

동아, 쌍방울 등 국내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투자를 본격화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중이라고 최근 혼춘을 다녀온 세계 관계자가 전했다.

(조선일보 94. 10. 9)

● 한국기업 대중 진출 포기 속출

대 중국 투자진출에 나섰던 한국기업들 중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되거나 사업착수 후 경영악화 등으로 중도하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합작투자등의 중국진출이 좌절된 기업에는 대림산업, 쌍방울, 아시아자동차 등 굵직한 기업 외에 동양섬유 등 중소기업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이는 중국진출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종전보다 중국측이 까다로운 합작조건을 제시하는 원자재 확보나 인건비, 유통망 확보 등의 측면에서 투자 이점을 잃은 경우가 흔해진 때문이다.

(중앙일보 94. 10. 14)

● 한·중 정기항공노선 월내 개설 어려워

한·중 정기 항공노선의 개설이 이달 중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일 중국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한중인 중국국제항공 관계자를 각각 만나 논란을 빚고 있는 항공사간 쌍무협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협상일정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내주 중 중국 국제항공측과 협상시기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나, 항공사간 노선적자 보전에 관한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타결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이달 1일 베이징 등 중국 5개도시에 동시 취항키로 하고 준비작업을 펴왔다. (중앙일보 94. 11. 4)

● 이봉 총리 방한 성공적,

人民日報 이례적 논평

이봉 중국국무원총리의 이번 방한은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두는 등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가 5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례적으로 이 날짜 신문 1면에 「이봉 총리의 방

한성공을 축하한다(祝賀李鵬總理訪問韓國取得圓滿成功)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李 총리의 이번 방한은 양국 및 양국 국민들간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중·한간 선린우호와 상호협력관계 발전을 더 한층 촉진시킨 한편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사설은 또, 중·한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번영 ▲21세기를 바라보면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한 국민의 근본이익과 아태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부합되는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한·중간 공존공영,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일보 94. 11. 6)

정치

● 중국 강택민 시대 본격 진입

중국은 1일 중국건국 45주년을 계기로 기존의 등소평 지도체제에서 강택민과 이붕, 주용기 등 3인이 이끄는 제 3세대 집단 지도체제로 본격 진입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지난 30일 사설에서 공산당은 등소평이 주도해 온 제 3세대 집단지도 체제로 권력이양을 완결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강 체제는 최소한 1~2년간의 권력투쟁을 거쳐 안정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94. 10. 2)



이붕 총리의 방한은 한중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중국 공산당 민주집중제 강조

중국공산당은 중앙에 대한 지방의 명령불복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이론적으로 강력히 비판, 중앙의 권위강화를 위해 사상교육강화와 반 부패운동 확산 등 기풍 확립 및 당조직 건설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앙위원회결정을 6일 발표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날 발표한 문건에서, “중국은 현재 전면적인 사회 변혁기에 처해 있으며 불안정한 민주제도와 권력집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규정짓고 “이를 위해 민주집중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중앙일보 94. 10. 7)

● 중국, 홍콩 임시입법회 추진

중국은 홍콩이 정식반환되는 97년초 현의회인 입법국을 해체하고 임시입법회 구성을 추진키로 해 또 다시 영국과 크게 충돌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반환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임명한 홍콩 특별행정구 예비위원회 정무소조(政務小組)는 6일 베이징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97년 7월1일 임시입법회를 가동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94. 10. 8)

● 등소평 사후 대비 또 보수파 숙청

중국은 북경의 7대 좌파 잡지들 중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아왔고 보수 색채가 가장 짙은 것으로 평가되어 온 “진리의 추구(真理的追求)”誌간부들에 대해 숙청을 단행중인 것으로 확인돼 등소평 사망을 전후한 보혁(保革) 대결과 관련, 크게 주목된다고 홍콩의 명보(明報)와 연합보(聯合報)가 12일 보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강택민 당 총서기가 올해 두 번째로 좌파 세력들에 대해 대수술의 칼을 들이대는 것으로, 강이 상해에서 발탁해온 중국사회과학원 유길(劉吉) 부원장이 중심이 되어 이 잡지에 대한 조사와 숙청을 벌이고 있다고 이들 신문은 말했다.

(중앙일보 94. 10. 13)

● 시위 진압에 발포 포함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

은 등소평 사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각 지역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발표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의 긴급대책을 마련,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에 시달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12일 보도했다.

이 대책은 시위발생시군과 무장경찰이 최단시간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진압하되 진압부대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엔 발포를 고려토록 되어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각 지역의 군사 및 보안 관계자들은 등 사후 예견되는 시위나 적대적 정치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했다고 한 중국소식통은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지도부가 지난 89년 천안문시위와 같은 유행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우려해 발포를 마지않까지 자제하도록 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94. 10. 13)

● 등소평 사망설로 화교권 증시강타

중국 최고 실권자 등소평의 건강에 관한 소문들이 북경을 뒤흔들고 있고 중국과 대만 등 전체 화교권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대만에서는 등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지난 8일 타이베이의 증시를 강타, 대량의 주식투매로 하루 동안의 주가가 65이상 폭락했다. 중국에서도 등의 건강에 관한 소문으로 9일 상하이(上海) 증시가 개설 4년 사상 하루 동안의 주가변동으로는 최대의 변동폭을 기록했다.

상하이 주가는 이날 등이 중태라는 소문으로 급락세를 보이다가 소문의 주인공이 등이 아니라 그의 주요 정적인 보수적 경제이론가 진운(陳雲)이라는 새로운 소문이 다시 퍼지자 반등세로 돌아섰다.

등소평 사망때까지 계속 화교권 증시는 혼들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94. 10. 13)

● 중국 黨 5중全会 조기개최

중국공산당은 산적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기초안을 마련해 내년 월 전국인민대표

대회(全人大)에 회부하기 위해 제14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中全會)를 올해 말이나 내년초 조기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홍콩의 성도일보(星島日報)가 18일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올해 인플레이션과 과열성장 과잉투자 등을 포함한 경제문제들이 누적돼 당내의견을 통일,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며 제 8차 5개년 계획이 내년으로 끝나 9차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5중 전회를 조기에 개최한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중앙일보 94. 10. 19)

● 강택민 중국대만 정상회담 희망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중국 강택민 주석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대만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대만 이등회 축통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만 연합보가 11일 보도했다.

강 주석은 대만과 정상회담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강 주석은 지난달 11일 대만기업인들과의 회견에서 정상회담 수락의의를 비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94. 11. 11)

경제

● 등소평 사망해도 경제개혁 지속

중국경제문제에 정통한 미 데니스 F 사이먼 교수는 방한 인터뷰를 통해, “등소평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개혁은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등소평 사후의 중국을 생각할 때 경제개혁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보다는 경제개혁의 속도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등소평이 모택동처럼 개인숭배를 추구하지 않고 경제개혁을 내세웠던 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하고 이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국의 경제개혁 드라이브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이 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 중국에서 현재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시장화, 규제완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은 엄연히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그는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경제의 발달은 전체 중국의 시장경제화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94. 10. 17)

● 중국 GATT 연내 가입 유력

통화, 경제제도 개혁과 인권개입선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중국이 연내 GATT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올해안으로 미국과 GATT 가입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폭을 비롯, 관세, 비관세 분야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앙과 지방의 제도 통일, 서비스 가격의 국내·외차 철폐 등 경제제도를 개선하고 무역장벽을 더욱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이 티베트 종교지도자를 탄압하는 등 종교를 탄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노동력을 수출상품제조에 활용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중국의 GATT 가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앙일보 94. 11. 21)

● 중국, 외국기업에 VAN개방

중국은 통신·금융분야의 새로운 개방안을 마련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가입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일본 경제신문이 18일 자카르타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강택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을 수행하고 있는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개방의 골자는, ▲외국기업에 대한 부가가치 통신망(VAN)개방 ▲ 외국은행에 대한 중국 위안(元) 예금 및 융자업무의 시범적 허가

▲ GATT가입 2년 내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외국은행 지점개설 허가 등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통신사업을 본격적으로 개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94. 11. 19)

● **중국, 외국기업에 노조설립 금지**

중국정부는 중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 회사들에 금년 말까지 노동조합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중국관영 차이나 데일리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합작회사와 그 밖의 외국인 투자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중국 해안지역에서 지난 6월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모든 외국자본 회사들에 적용된다.

(중앙일보 94. 10. 28)

● **중국 올 인플레이 20% 상회**

올해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15년 전 경제개혁이 실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20%를 기록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중국정부의 공식전망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지난 9월까지의 인플레이율을 고려해볼 때 올해 중국의 전체 인플레이율은 20%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중국의 35개 대도시에서는 2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국적으로 23.3%가 올랐으며 대도시에서는 9월 한 달에만 27.5%를 기록하는 등 9개월 동안 24.5%에 달했다.

이전까지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것은 지난 88년의 18.5%였으며 이는 89년 봄 베이징을 강타한 민주화시위로 연결됐었다.

(중앙일보 94. 11. 15)

● **중국, 15년간 기술도입액 1억.**

철강 전자 통신 경쟁력 급상승

중국기업들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적극 추진, 기술력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업계는 지금의 건축용 강재에서 자동차용 강재까지

생산기술이 향상, 일본과 자동차용 박판에서 경쟁하는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대형 TV에서도 일본시장에 침투할 만큼 올라섰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정책 이래 선진국 기술도입을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미국·일본 등으로부터 지난 15년 간 5천6백여 건의 기술도입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액은 4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정부는 기계·전자·통신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술도입 규모를 2000년까지 대외무역총액의 1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앙일보 94. 10. 4)

사회

● **중국 명문대 수업료 받는다**

“교육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무상교육을 실시해온 중국에서도 일부 대학이 9월부터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수업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대학은 북경대 등 37개 명문대학으로 고교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다.

학생들은 앞으로 수업료와 책값, 최소한의 생활비를 합쳐 1명당 연간 3천 5백 원(약 32만 8천 원) 이상의 학비가 들게 되었다. 중국의 일부 대학들이 수업료를 받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대학재정난에 기인한다. 중국의 교육투자는 무상교육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의 3%에 지나지 않아 선진국(6%정도)은 물론 개발도상국(4%정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

(동아일보 94. 10. 2)

● **중국 인구 12억 금년 말에 돌파**

중국의 전체인구는 당초 추정했던 시기보다 빨리 금년 말쯤 12억 명을 넘어설 것이며, 오는 2030년에는 16억 3천만~17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관영 공인일보(工人日報)가 최근 보도.

공인일보(工人日報)는 중국이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정 1자녀로 출산율을 제한하고 임신중절을 장려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가족계획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20세기 말까지 6년 동안에만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 (국민일보 94. 10. 14)

● **상해 외지유입 인구 3백만**

공신력이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94년 5월 말까지 타지방에서 상해로 몰려 들어온 인구는 이미 280만 명을 넘어



상해의 변화가 남경로(南京路)

했으며 그 중 여성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5, 6명의 상해 시민 중 한 명은 외지인이라는 의미이다.

통계에 따르면 상해의 외래유입인구는 1988년보다 138만이 늘어났으며, 연간 증가율은 4%에 달한다. 공사장 인부, 방직공장 노동자, 부모, 노점상, 개체호(자영업) 등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외곽지대나 변두리에 살고 있다. 이들은 상해시의 사회치안, 환경위생 및 가족계획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상해 가족계획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이들의 가입연령 출산상황이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취학연령의 어린이도 24만 6천명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문제도 상해시 관리(管理)부문의 큰 난제이다. 한편 타 지방에서 온 아가씨들이 매춘업에 종사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상해시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이혼사건 중 25%가 타지방에서 온 아가씨들로 인한 가정파탄이라고 한다.

(星島日報 94. 10. 14)

● 홍콩주부들, 중국 현지처 단속요구

중국 법률보(法律報)는 홍콩의 유부남들을 유혹하고 있는 중국의 현지처 숫자가 심천시(深圳市)만 해도 3천여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이들의 불륜관계로 홍콩 가정이 파탄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주부들은 중국정부가 혼외정사에 대해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길 원하지만 중국의 개방지역은 이런 행위를 법으로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곳. 현지처들은 그들이 기혼자이거나 상대 유부남과 이중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94. 10. 18)

● 중국 전력부족, 1억의 농민들이 전기없이 생활

전력공업장관인 사대정(史大楨)은 전력이 시간조정에 인해 길어졌지만 중국은 이미 24년 간 전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발표했다. 현재 28개현과 천여 개의 읍, 수만 개의 自然村에 사는 약 1억 2천만의 농촌인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동시에 심각한 전력 낭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NP가 연평균 8%에서 9%의 속도를 증가하는 가운데 2000년에 이르면 전 사회의 전기소모량이 8%에서 10%가 감소된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전국의 전력 결핍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동시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농가를 95%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明報 1994. 10. 23)

● 청소년 마약, 사치열풍 심각한 중국

최근 중국 청소년들의 소비구조가 균형을 잃고 있다. 경제적인 소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정신적인 소비는 심각한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 청소년들 가운데 책이나 신문을 사기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율은 9.9%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편 북경의 중고생들은 월 평균 2백27원(한화로 약 2만 2천 7백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으며 평균 8백20원의 고급 소비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중국의 중·고등학생 대다수가 외아들, 외딸로 부모들이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은 현재 청년, 청소년의 마약 흡연 및 중독의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1987년 정부에 등록된 아편과 헤로인 중독자들 중 7만 명이 젊은이들로, 이로 인해 북경 당국은 젊은 흡연자들에 대해 경계하며 교실에서는 흡연을 삼가하도록 결정했다.

(복음신문 94. 10. 23)

● 북경시 최초로 유동인구조사

북경시는 11월 10일 18개 지역과 縣에서 유동인구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북경시에 거주 혹은 체류하지만 호적은 다른 지방에 두고 있는 유입(流入)인구 및 호적은 북경시에 있지만 조사당일에 부재한 유출인구를 대상으로 전면 수사, 20만 명을 추출, 등기를 진행했다.

이번 유동인구조사의 목적은 정확하게 북경시 이동인구의 숫자, 분포지역, 구조, 이동원인, 이동방향, 직업,



유입인구 중 가입연령의 출산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 이후 북경시의 인구 및 가족계획 정책, 노동력의 합당한 안배, 이동인구의 조절 및 조정에 대해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星島日報 94. 10. 27)

● 중국전역 페스트 확산 위험, 남서부 운남성 등 2백여 도시에 퍼져

페스트가 중국 서부지역일대를 휩쓸고 있으나 이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왕래하고 있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중국의 관영 건강보(健康報)가 지난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페스트가 남서부의 운남성에서 티베트 청해성 신강(新疆)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내몽골 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2백16개 도시들과 읍들을 포함한 60만 평방km에 걸쳐 퍼져있다고 밝히면서 중국 페스트연구소 소장 유동정 교수의 말을 인용, 인도에서 최근 발생한 것과 같은 페스트 만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 방역 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페스트가 현재 황량한 중국 서부지역을 휩쓸고 있지만, 상인들은 이 지역에서 나는 모피와 가죽을 北京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94. 11. 9)

중국의 이런 일 저런 일

(1993.10. 1 - 1994. 12. 2)

종교

1993. 10. 9

총회 선교부에 의한 중국 흑룡강신학교 설립과 하얼빈시 남강교회당 건축 추진사업의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1993. 10. 23

노벨상 수상자인 테레사 수녀는 10월 22일 중국의 장애인연합회의 초청으로 상해를 방문했다. 그녀가 소속한 “慈善大使”기구에서는 상해에 아동장애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1993. 11. 18

동북지역의 조선족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북신학원의 재건을 위해 조직된 한국교회 동북신학원후원사업회는 신축 교사건립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1993. 11. 23

중국 흑룡강성 기독교계 지도자와 인민정부 종교사무국 직원 등이 예장(고신)총회 초청으로 내한, 흑룡강성에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정식합의 했다.

1993. 11. 26

중국 국무원종교사무국장 장성작(張聲作)은 대표단을 이끌고 홍콩의 원현학원을 방문하였다. 그는 방문 성명에서, 누구든지 종교활동을 빙자해서 사회주의와 국가통일을 반대하고 사회안정과 인민의 건강을 파괴하면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1994. 1. 23

중국기독교협회 대표단 일행 16명이 11일 홍콩 화인기독교연합회를 방문, 13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교회의 현황 및 전망” 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1994. 2. 7

중국정부는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인과 외국인 신도들의 연대를 제한하는 새로운 종교법령을 발표했다. 새로운 종교법령은 중국국무원에 의해 제정, 1월 31일 이봉 총리의 서명을 거쳐 발표되었다.

1994. 2. 18

새로운 종교법령 반포 이후 중국 당국은 2월 11일 미국인 3명 등 외국 선교사 5명을 구금시킨 것을 비롯 최근 7명의 외국인을 국내 선교활동 혐의로 구금했다. 이 가운데 미국인 1명은 2월 16일 추방됐으며 나머지는 자진출국형식으로 중국을 떠났다.

1994. 3. 9

중국의 반체제인사 구속사태로 美-中 관계가 긴장상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중국 반체제 기독교인이 최근 당의 명령을 무시한 채 교회에 출석한 뒤, 중국 경찰에 구타당해 사망했다고 미국에 소재한 한 종교단체가 주장했다.

1994. 4. 10

강소성의 역림출판사는 1917년에 출판된 현 중국어 성경을 수정, 95년에 출판할 예정이다.

1994. 5. 13

사천성 종교사무국 소속 관리가 성도지역의 한 수도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자 무신론 종교 사무국의 간섭에 불만을 품은 대부분의 원생들이 잇달아 수도원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4. 6. 5

1987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전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아서 가동하기 시작한 애덕인쇄소는, 1993년 10월 16일, 6백만부의 성경을 인쇄하여 중국 전 대륙에 반포하였다.

지금까지 애덕인쇄소를 통해 반포된 성서는 88년 50만여 권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6백76만 4천여 권이며 찬송가는 올해 2월까지 총 3백99만여 권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1994. 7.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6월 23일 중국 동북신학원 후원사업회 모임을 갖고 신학원 건축후원대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키로 결정하는 한편, 중국 선교의 일원화를 위해 각 교단 중국선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가칭 '중국선교협의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1994. 7. 9

중국기독교협회(CCC) 부회장 한문조 목사는 최근 CCC발행 회보 『애덕통신(Amity News Service)』 과의 회견에서, 종교활동과 집회장소 등록법안의 초안이 마련됐음을 밝혔다.

1994. 7. 13

중국 연길교회의 담임 목사인 유두봉 목사가 한국 남북나눔운동본부의 초청으로 7월 초 중국기독교 관련 고위인사 8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7월 13일 서울영동교회에서 “중국교회의 현황과 종교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4. 8. 28

최근 문화체육부는 구소련과 중국, 몽고, 베트남 등지에서 무책임한 선교활동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과잉 선교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공문과 간담회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교계에 전달했다.

1994. 9. 10

중국 길림성 기독교신학원 후원 이사회 창립모임이 지난달 30일 충현교회 선교관에서 열렸다. 충현교회에서 비용을 부담, 길림성 장춘시에 신축될 동 신학교는 각 학년 1백명씩 3년제로 운영되며 3년 후 졸업하는 조선인 및 중국인 졸업생을 중국 정부와 삼자교회가 인정, 합법적인 목회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1994. 11. 15

외국인 불법 취업자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 의료 지원, 상담 등 인권 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재한 외국인근로자 선도연합회가 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1994. 12. 2

최일식(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무) 목사, 김동완(KNCC 총무) 목사 및 다수의 중국선교 관계자들이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한중교회협력위원회> 설립 총회를 가졌다.

한중 관계

1994. 2. 1

국내의 뜻있는 이들이 연변에 세운 『연변 조선족과학기술대학』(총장 金鎮慶)은 중국 내 교포 2~3세를 위한 한글(조선어) 교육에 나섰다.

1994. 2. 27

정부는, 중국을 특정국가로 분류, 여행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던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중국여행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1994. 3. 27

중국 국가주석 강택민의 초청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1994. 5. 7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6월 말까지 모두 8천6백 명의 근로자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관리들이 밝혔다.

1994. 5. 9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던 한국인 사업가가 3월 중순, 길림성 장춘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살되었다.

1994. 7. 2

중국 인민외교학회와 한국 국제교류 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중 미래포럼”의 첫 번째 회의가 이날 오전 조어대(釣魚臺) 국빈관에서 개막되었다.

1994. 8. 25

정부는 중국 교포들의 영주귀국 문호를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1994. 8. 25

중국의 인민일보와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공자사상과 21세기>라는 주제의 학술회의가 양국의 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중국 산둥성 曲阜에서 개최되었다.

1994. 9. 2

중국 외교부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중국대표단 철수 결정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휴전협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1994. 10. 3

중국은 한반도에 상륙해 북한을 지원하고 韓美에 대항하는 것을 전술 목표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난 8월 하순 전략 요충지인 요동반도에서 실시했다.

1994. 10. 12

우리 나라는 중국에 처음으로 4천 3백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 연길비행장 국제선 확장사업과 흑룡강성 철도 복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1994. 10. 30~11. 4

중국공산당 국무원총리 이붕이 김영삼 대통령의 초청으로 10월 31일~11월 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비롯, 한반도 정세, 양국 우의증진 방안,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치

1993. 10. 24

중국의 근대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중앙 정부로부터 각종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관리들의 횡포가 극을 치닫고 있다. 이들 지방관리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따르는 주민들에게 가혹한 방법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서 원성을 사고 있으나 관리들의 부패양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어서 중앙정부는 이렇다 할 수단을 쓰지 못하고 있다.

1993. 11. 13

공안부 대변인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새로이 134개 시, 현을 외국인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1,053개의 시, 현을 외국인에 대해 개방한 셈이다.

1993. 11. 15

지난 11일 개막됐다가 14일 폐막된 3중전회는 이날 회의를 끝내면서 발표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에 따른 문제에 관한 결정』에 관한 설명에서 △시장경제 체제 육성 발전 △국유기업 경영개편 △농촌 경제 개혁 심화 △대외 경제무역 체제 개혁확대 △당 지도력 강화 △사회 보장제도 도입 △정치체제개혁 추진 등을 강조함으로써 이 같은 측면을 극명하게 부각시켰다.

1993. 11. 20

중국총서기인 강택민은 미국을 방문하여 64사태 이후 처음으로 시애틀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양국 頂上회담을 가졌다.



1993. 12. 5

국무원이 소집한 전국경제공작회의(12월 1-4일) 폐막식에서 중공 총서기 겸 국가주석 강택민은 중요강화를 발표하여,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보조를 가속화하여 금세기 말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초보적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3. 12. 9

중국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시장경제 방식으로 민간상인에게도 수매를 허용해 오던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면 취소했다.

1994. 2. 16

중국공산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시장경제 개혁이 일부 중단되거나 무기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용기 부총리가 올해 경제개혁의 최고 핵심인 금융개혁의 연기를 지시했다.

1994. 3. 3

중국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급증하고있는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쟁의와 시위가 격화될 것에 대비, 『긴급자금』을 배정하는 한편, 무장폭동 진압 경찰을 주요 산업현장과 도시에 증원 배치하고 국가 안전부와 공안부 요원들을 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집중감시에 나섰다.

1994. 3. 8

미 국무장관의 북경 방문을 사흘 앞두고, 중국 정부는 지난 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 지도자 왕단(王丹)을 또 다시 연행해, 미국의 강도 높은 인권공세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나섰다.

1994. 4. 29

중국 국무원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요에 부응하고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하며 대외무역의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국수출입은행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1994. 5. 10

중국 내륙부 감숙성에 이어 신강위구르 자치주의 타림분지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돼 중국 서역전체가 <제2의 중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4. 5. 13

중국동북부의 공업기지인 흑룡강성을 비롯한 길림성, 요녕성 등 동북 3성에서 국영기업체의 임금체불로 지난해 말 이후 최소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가두시위에 참가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994. 6. 8

북경시에서 올 7월부터 국가기업의 실업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주기로 했다.

1994. 7. 13

중국정부는 16세이하의 미성년의 고용금지과 외국기업의 중국인 노동자 학대,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노동법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 부터 정식 발표될 예정인 이 노동법은 하루 8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주 1일 휴무, 임신 7개월 이상의 여성에 대한 노동강요 금지, 90일 간의 출산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4. 8. 12

광둥성 관광공사는 더 많은 외국여행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금년 말쯤 외국인들은 심천 경제특구에서 72시간(3일) 이하 체류할 경우 비자를 받을 필요없다고 밝혔다.

1994. 8. 13

중국공산당은 부패척결을 위해 73년 중공 역사상 처음으로 재산과 수입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재산수입신고법>을 비롯한 상세한 반부패법과 규정을 마련했다.

1994. 8. 16

상반기 전국적으로 21,09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019명이 사망하고, 1898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대형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직접적 경제손실은 5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2% 상승했다.

1994. 8. 21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SAIC)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기업들의 부정행위를 차단기 위해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1994. 8. 27

중국정부는 국내용 주식시장을 해외 투자가에 처음으로 개방할 것을 결정했다.

1994. 9. 4

국무원은 9월 2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음향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적출판물의 판권보호, 상품권 보호, 특허권 보호, 불공정경쟁저지 등에 관한 법규 방침을 중국공산당 정치국에서 지시했다.

1994. 9. 7

중국의 주요 보수파 지도자들이 보수파의 가치들을 부추기고 鄧의 시장경제 개혁을 뒤엎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鄧小平 사후의 정치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비밀회의를 개막했다.

1994. 9. 25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中全會)가 9월 25일부터 4일 간,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와 부정부패 등 당 기강문제, 등소평 사후 후계문제 등 당면현안들을 비공개로 논의하였다.

1994. 10. 24

중국 최고 실력자 등소평은 최근 언동이 부자유스러울 정도로 신체적인 노쇠현상을 보임에 따라 더이상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정책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1994. 11. 14

대만 금문도 주둔군의 포격 훈련중 오발사고로 중국 복건성 廈門의 주민 4명이 부상하여 중국과 대만의 외교문제로 부상하였다.

1994. 11. 22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강택민 중국 당총서기는 베트남 지도부와 회담을 갖고, 장기화되어 있는 영유권 및 국경 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쌍무관계를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경제

1993. 10. 22

중국은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월수입이 인민폐 800원 이상인 자에게 모두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1993. 11. 1

중국은 공산당 제14기 중앙위 제3차전체회의(3中全會)에서 그동안 경제과열을 막기 위해 실시해온 금융긴축을 해체하고 금융무역재정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전면적인 시장체제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993. 11. 23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1993년도 중국 국민총생산액이 3조 원을 돌파하여 작년 동기대비 13%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1993. 12. 2

중국은 시장개혁정책의 하나로 도시지역 주택에 대한 전국적인 사유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중국관영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1993. 12. 27

모택동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당정 지도자들과 각계인사 1만여 명이 인민대회당에 모여 기념대회를 거행하였다.

1994. 1. 1

중국정부는 1일을 기해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로 통일하였다. 이로써 외환권(FEC)의 발권이 중단되고 인민폐만이 사용된다.

1994. 1. 7

중국정부는 최근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 임금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1994. 2. 2

중국은 호구조제를 개혁, 취업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에 가했던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공안부, 건설부, 종업부, 경제체제개혁위원회가 합동으로 소구조제를 개혁하기 위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이 개혁은 노동인력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1994. 2. 8

새로운 노동시간제가 지난 1월 24일 국무원 제 15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무원령으로 공포되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의 하루 노동 시간은 8시간, 주 평균 노동시간은 44시간이며 이 규정이 실시되는 날부터 첫 번째 주는 토요일과 일요일, 다음 주는 일요일에 쉬는 방식으로 순환한다.

1994. 2. 14

외교부 대변인 오건민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을 위한 각 항의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해 1997년 후의 '기본법'의 순리적 실행과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4. 2. 22

중국은 의회인 각급 인민대표대회(人大)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조사 감독하도록 실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중대한 정치개혁안』을 이 달 중 광둥성을 시발로 통과시켰다.

1994. 3. 8

10일 북경에서 개막되는 중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2차 회의에서 국가 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강택민은 안정을 위주로 한 5가지의 방침을 이붕 총리가 발표할 정부공식보고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 방침은 경제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 개혁의 심화, 개방의 확대, 경제발전의 촉진, 안정을 유지 등으로 표현되었다.

1994. 3. 31

중국국가인사부는 “국가공무원 임시조례”의 실시를 순조롭게 하고 국가공무원이 청렴하며 근면한 태도로 직분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반포하였다.

1994. 4. 1

북경의 운동권 인사 위경생(魏京生)이 북경에 돌아오는 도중에 체포되어 감금됐다.

1994. 4. 3

절강성 돈안현 천도호에서 유람선 <海瑞號>에 화재가 일어나 배에 타고 있던 24명의 대만 관광객을 비롯 모두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후, 이 사건은 군인과 경찰에 의해 행해진 강도사건임이 밝혀졌다.

1994. 4. 16

대만 관광객의 폐죽음사건으로 대만-중국 관계가 급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은 15일 대만측에 관계강화 및 항공, 우편, 해운분야의 직접교류 회복을 호소했다.

1994. 5. 14

중국정부는 천안문사태 5주년을 앞두고 각종 사회불안 요소가 돌출하자, 최근 강택민 국가 주석의 <내부 강화>를 통해 안전부와 공안부 등 관련기관의 주요 간부들에게 소요사태를 예방하도록 특별지시했으며 북경시 공안당국은 15일부터 천안문 광장의 시민통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비상경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1994. 5. 28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1994-1995년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연장하고 후년도의 심의에서는 인권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1994. 6. 25

중국 최고지도자 등소평(90세)은 20여 명의 최고위급 장군들과 올 초 「비밀회담」을 갖고 강택민(67)을 중심으로 한 질서 있는 권력계승을 지시해 줄 것과 자신의 사후에 발생할 불안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1994. 7. 6

중국은 5일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요구와 관련, 저작권 위반자들을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통과시켰다.



1994. 8. 25

중국은 홍콩의 민주개혁조치를 무효화시킬 새로운 법안을 마련, 공식으로 법제와 절차를 밝기 시작했다,

1994. 8. 30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최대 장애가 되어 온 인권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사흘간의 북경방문을 마친 론 브라운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

1994. 9. 2

중국 최고 지도자 덩소평(90세)은 자신의 사후 혼란을 피하기 위해, 12개에 걸친 대정들의 실행여부를 검사하기로 결정하였다.

1994. 9. 4

올해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경제개혁에 따라 정치체도를 개혁하기로 하고 당과 정부와 국영기업들간의 역할을 서로간에 명확히 분리시키는 4개 항에 걸친 정치체제 개혁안을 마련했다.

1994. 9. 8

중국은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북경을 비롯한 13개 주요 도시의 경우 현지에서 비자를 내주는 현지비자제를 도입키로 했다.

1994. 10. 4

금년, 장강(長江) 삼각주의 투자환경이 부단히 개선됨에 따라 항주(杭州), 장강(長江) 삼각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1994. 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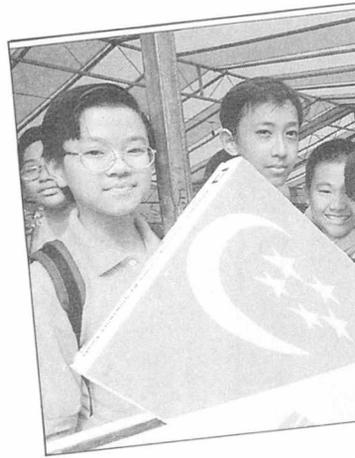
35년 중국의 경제개혁 방안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전국경제공작회의가 강택민 국가 주석, 이봉 총리, 주용기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비밀리에 개막되었다.

1994. 11. 9

11월 초, 페스트가 중국 남서부의 운남성에서 티베트 칭해성 신강(新疆)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내몽골 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2백16개 도시들과 읍들을 포함한 60만 평방km에 걸쳐 퍼져있다고 관영 언론들이 밝혔다.

1994. 11. 18

중국은 통신, 금융분야의 새로운 개방정책을 마련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가입과 동시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회

1993. 10. 17

국무원은, 현재 8천만에 달하는 연소득 3백원 미만 人民幣 인민들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87개 조 빈곤타파계획>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2000년에 전까지 대부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1993. 11. 2

<鄧小平文選> 제3집이 출판되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 국민들에게 이 책을 학습하도록 지시하였다.

1993. 11. 22

중국의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다. 매년 자살하는 사람이 약 14만에서 16만인데, 주로 20-24세의 젊은층과 60세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한다.

1993. 11. 24

심천에 위치한 채용(蔡湧) 완구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노동자 등 막대한 사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심천 시청은 전 시내에 발령을 내려 모든 공장과 기업단지는 긴급 방침을 세우고 비상출구와 방화검사에 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1994. 2. 25

중국은 남자 22세, 여자 20세의 법적 결혼 연령보다 일찍 결혼한 부부들의 결혼을 무효화하고 강제로 떼어내기 위한 새로운 혼인법을 공포했다.

1994. 3. 4

중국의 대표적 경제특구인 광둥성 경제특구의 택시기사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3일 오전 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1994. 4. 13

중국 내 반부패 운동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최대민영기업 장성유한공사의 총재가 금융부 정 및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후 11일 처형당했다.

1994. 4. 29.

귀주성 남부에 지난 20일 6시간 동안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쳐 7명이 사망하고 2백 26명이 부상했다. 이 사태로 귀주성의 60개 도시와 7백50여 마을이 피해를 입었으며 5천 여 가옥과 7만여 Ha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1994. 5. 11

“중화민족 5천년 문화의 결정”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어대사전> 총 13권이 완성, 출판되었다.

1994. 6. 6

중국 서안에서 광주로 비행중이던 민항기가 이륙한지 8분만에 장안현 근교에 추락하여 160여명의 여객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최대의 비행기 사고였다.

1994. 6. 12

국무원은 중국의 47개의 현과 시를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승인했다.

1994. 6. 21

중국 남서부 베트남 접경지역인 광서 장족자치구와 후난성, 광둥성 등 6개 성에 지난 6주간 몰아닥친 폭우로 4백 38명이 숨지고 6천4백 70명이 부상당한 것을 비롯해 4천 8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금세기 최악의 홍수피해를 맞아 중국은 이날 국제원조를 요청했다.

1994. 7. 2

국가 외국인 전문가 국, 재정부 철도부, 교통부, 국가외환관리국, 국가계획위원회 가격관리국, 국가 계획위원회 가격관리국 등 6개 부문은 “외국인 전문가 증서”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 전문가들은 국가 외국인 전문가국에서 이 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1994. 8. 6

지난 6월 19일 중국 남부 지역에 대홍수가 발생, 7천1백90명이 사망하고 십만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5십만여 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7백만 헥타르의 농토가 유실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1994. 9. 20

20일 아침 북경시내 중심가인 건국문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무장 탈영병이 총기를 난사, 이란 외교관 등 외국인을 포함한 1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하였다.

1994. 10. 2

광둥성의 從化市 소재 은천 관광지 天湖 공원 내에서 쇠줄로 엮은 나무다리가 무너지면서 약 200 명의 관광객이 수심 30m의 호수에 빠져 40여 명이 사망했다.

1994. 11. 27

중국 요령성 심양 부근 푸신시의 한 가라오케에서 원인 모를 화재로 233명이 불에 타 숨지고 16명이 화상을 입는 최대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중국을 주께로 기도 캘린더

“형제여! 당신이 만일 그 지역을 얻고자 한다면 그 땅을 먼저 당신의 무릎으로 가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는 ‘기도’입니다. 매일 중국을 위해 무릎꿇는 기도가 중국을 주께로 드리는 일의 시작입니다. 중국의 영적 상황과 경제, 정치, 사회 전 영역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광활한 땅 중국은 변할 것입니다 !!!

▶국내의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통해 중국인들이 복음을 들으며, 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양육되어, 중국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미전도족속인 소수민족의 언어로 방송이 송출되어 이들에게도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방송사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길.

주일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를 위해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위해 『한중교회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를 통해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의 필요를 이해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중국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건전한 신학으로 교육받은 지도자들인데, 현재 신학교에조차 신학서적이 부족하여 지도자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교회가 문서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홍콩·대만의 교회, 선교기관들과 협력하여 문서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중국의 모처에서 한국의 신학 및 경건서적들이 번역되어 인쇄 작업이 진행중인데, 주님께서 이 작업을 지키시사 헌신된 일꾼들이 자원하게 하시고 보다 많은 양을 인쇄할 수 있는 기기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월

중국의 조선족 교회를 위해

▶아직도 많은 조선족 처소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다.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시킬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또한 현재 곳곳에서 말씀으로 지도자를 훈련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에 왔다가 조선족 크리스천들 가운데 물질주의와 교파·분열주의의 영향을 받고 중국에 들어가, 현지에 있는 기존 교회들과 잘 융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예가 많다고 한다. 이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조선족 교회가 중국교회의 부흥, 성장에 관심을 갖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화

삼자교회의 영적부흥과 순수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삼자교회가 변하고 있다. 정치성이 약해지며 젊은 목사들 가운데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목회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정부에 대한 충성보다 더욱 뜨겁게 하시고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갖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북경의 강와시교회와 심양의 동관교회 사건을 통해, 교회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재정을 횡령하는 정부의 악한 계계가 만인 앞에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회들을 도우시사 삼자교회 안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번 사건이 복음전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삼자교회가 가정교회, 처소교회와 협력함으로써 굳건한 중국교회가 세워지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등록하지 않는 가정교회를 꺾박하고 고발하는 행위를 더 이상 행하지 않도록.

수

방한 중국인 근로자 및 선원 선교를 위해

▶국내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해결책 모색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과 교회들이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며, 사회적으로 외국인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인천항에 정박중인 중국 선박의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외향선교회와 중국어문선교회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목

중국의 정치, 사회 상황을 위해

▶등소평 사후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천안문 사태와 같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인 안정이 계속되어 복음의 문이 넓게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구의 공급과잉으로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각 도시마다 넘쳐 흐르는 민공(民工)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경한 한 자녀 정책으로 출산율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구는 오는 20세기 말까지 1억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동시에 정부에서 강제 행하는 임신중절과 어린아이, 특히 여자 아이들을 살해하는 등의 비인간적인 악한 행위들이 단절되어질 수 있도록.

금

중국의 장애인들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현재 중국에는 약 5천만의 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궁핍한 농촌 지역에서 살면서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장애인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들에게도 영혼이 거둬지는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궁핍하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거주민 혹은 소수민족들은 불량한 위생상태와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 질병이 들어도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중국에 들어가 의술과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각국의 크리스천 의사들을 통해 영육을 고침 받는 중국인들이 더욱 많아지며, 중국정부 또한 이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 건립에 힘쓰도록.

▶중국에 9백만의 맹인들이 있다. 이들을 위한 녹음기, 테이프, 점자성경 등이 보급되어 흑암 중에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

중국의 소수민족을 위해

▶티벳 라사에 최초로 교회가 개척돼 30여 명의 티벳인과 한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마불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이들 신자들은 티벳 사회에서 구타당하고 쫓겨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티벳 교회의 부흥과 신자들이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감속성과 청해성에는 극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있으며 삼자교회도 있다. 크리스천들과 회교도들과의 장벽이 깨어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점점 더 많은 몽골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다. 외몽고의 복음의 불길이 내몽고 안에도 전달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몽골 민족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填字遊戲(퍼즐)정답

		賢		脚		雪	花
未	婚	妻		印	紐		
得		良	辰		約	伯	記
之		母		打		大	
民			書	架		尼	姑
	戴	德	生		交		娘
身	高			鷄	尾	酒	
	帽	子		蛋		店	鋪

고 신 선 단

『한중교회협력위원회』 설립

중국선교 창구의 일원화를 꾀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를 중심으로 『한중교회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중국선교에 참여하는 교단, 선교단체, 개교회가 선교정보, 훈련, 사역 및 행정 등의 면에서 상호협업하고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인 중국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된 본 위원회는 1994년 11월 18일의 준비모임을 거쳐 지난 12월 2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각 중국선교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총회를 갖고 결성되었다.

한중교회협력위원회는 앞으로 한국 교회 각 부서의 중국선교를 상의협의하고 협력하는 기구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것이다.

2월 중국선교세미나 개최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돕기 위한 중국선교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2월 중국선교세미나

일시: 1995년 2월 27일(월)

오후 7:00~9:00

주제: 중국선교를 통한 북한선교

강사: 박완신 박사(북한사회과학연구원 원장)

장소: 이수성결교회
(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33-5497, 594-8038

중국선교 특별세미나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중국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국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홍콩의 C.C.L.(Christian Communications Limited) 사역자를 초청,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는 중국선교”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C.C.L.은 중국대륙의 복음화 사역에 필요한 문서들을 출판하고 나아가서 지도자 양육 및 훈련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단체이다.

일시: 1995년 4월 28일(비공개:교단,

목회자 및 선교단체 책임자에 한하여 참석), 29일(공개 세미나)

주제: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는 중국선교

강사: 陳敏瀾 牧師(C.C.L. 협력목사)

祝民忠(발전부장)

장소: 한성중화교회 (중구 정동)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94-8038, 533-5497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

중국을 주께로 드리기 위한 기도합주회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중국어문선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 및 선교 헌신자,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를 통해 중국을 주께로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 현지 선교사들의 생생한 사역보고를 통해 최근 중국의 상황과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94-8038, 533-5497

갈릴리세계선교회 팀사역 충원

갈릴리세계선교회는 그 동안 송용호 목사, 김성복 목사가 팀 사역 대표로 일해 왔는데, 94년 11월부터 김만배 목사 1인을 충원하여 3명이 공동사역 대표로 섬기게 되었다.

제자들선교회 해외영어연수

제자들선교회(대표 김석환)에서는 해외선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독교인 대상의 해외 영어연수를 95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개최한다.

또한 95년 2월 4일부터 2월 21일까지 18일 동안 필리핀 단기선교 프로그램을 갖는다. 이 행사를 통해 10개의 필리핀 현지교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마을과 대학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제자들선교회로.

Tel: 736-9091

OMF Korea 동아시아 선교캠프

동아시아 선교사역을 감당해 온 OMF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태국(인도차이나) 선교 사역에 헌신할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단기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동아시아 선교캠프Ⅲ"를 마련했다. 1995년 1월 9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이번 캠프는 동아시아 선교의 준비과정, 중국과 인도차이나의 선교상황과 필요, 접근 방법 및 선교전략, OMF와 협력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보, 언어습득 등에 관한 강의로 진행되며, 희망자에 한하여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선교현지 정탐여행을 갖는다.

강사는 20여 년간 중국사역을 해온 마틴 싸이먼즈 선교사와 손승호 OMF태국 선교사, OMF Korea대표 한정국 선교사 등이다.

등록마감은 12월 12일까지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늦어도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류 및 문의사항은 OMF Korea 사무실로 Tel: 555-3958, 567-9859

한부선 선교센터(MTI) 훈련생 모집

한부선 선교센터(MTI:원장 손영준)에서는 1995년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달 간 반포동 한부선 선교센터에서 동계 MTI를 받을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동훈련은 전 영어 사용환경을 통한 공동체 생활과 함께 초교과적 타문화권 훈련을 하게 된다. 선교관심자나 헌신자로서 선교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동훈련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부선 선교센터 사무실
Tel: 593-8487~8

중국어문선교회 행정실에서 일할 간사를 모집합니다.

선교사역에 헌신된 분으로 본부 행정사역에 관심이 있고 재정관리의 은사가 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94-8038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기사 및 중국 단문 출판부 기사 및

자문보사자 모집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중국을 주께로』 출판 사역에 동역할 일꾼을 찾습니다. 타자, 교정, 번역, 발송 작업에 특히 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Tel: 533-5497 (석은혜 기사)

제10회 모퉁이들 선교학교 개최

모퉁이들선교회에서는 “북한교회 재건과 우리의 영적준비”라는 주제로 실제적인 북한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선교학교를 개최한다. 북한연구및 선교 전문가, 목회자, 귀순자, 파송 선교사들의 강의로 진행되며, 북한주민의 실상, 북한의 변화, 통일과 재사회화 방안, 한국 교회의 북한선교 사명 등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질 이번 선교학교는 영적전쟁터의 무장한 영적군사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의 장이 될 것이다.

1995년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ACTS 양평캠퍼스에서 열릴 이번 선교학교는 북방선교 관심자, 헌신자 및 예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마감은 1차 1995년 1월 7일, 2차 1월 14일까지(등록비 5천원 추가)이다.

자세한 문의는 모퉁이들선교회 사무실로.
Tel: 796-8846

미전도종족선교 정탐훈련원생 모집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AAP)에서는 '95년 제2기 선교정탐훈련원생을 모집한다. 선교 여행이 단순한 여행으로 그치는 비효율성을 배제하고 정탐여행으로 바뀌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번 훈련은 1995년 3월 부터 5월까지 12주간(매주 토요일 3:30~8:00) 계속되며, 선교지에 대한 정탐 이론과 실제를 배워 전문적 미전도종족정탐가로 성장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대상은 정탐훈련의 방법을 통해 미전도종족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대학생, 선교사 후보자, 선교단체 간사, 관심자들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AAP)로.
Tel: 402-4967, Fax: 402-4968

OMF 태국 선교사 모집

태국 OMF에서는 2년 내에 20가정의 한국 선교사가 와서 사역하길 요청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장기사역자(북부 태국 산지부족 제자훈련사역, 남부 태국교회 개척 사역), 단기 사역자(3개월 영어 훈련, 6개월 태국어 훈련, 1년 교회 개척 보조사역)로서 약간 명의 인원을 모집중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강남우체국 사서함 579호, OMF Korea로.
Tel: 555-3958, 567-9859

중국어문선교회 교역 간사 및 중국 단선 교역 간사 및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에서 교재개발 및 판매,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 지원 및 중국선교훈련원 지원 사역을 담당할 간사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간사의 경우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일정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이면 더욱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속히 와서 우리를 도우라!”

Tel: 594-8038, 533-5497
(김바울 간사)

편집자 주:

이 종교법규 정책학습 자료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종교사무국에서 편집 발행한 것으로서, 중국선교를 담당하고 있거나 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읽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우리가 중국현지에서 선교할 때 중국에 종교법규나 정책에 무지하여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선교전략과 자세를 가다듬기 위함이다.

총 100항의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이 자료를 지난호에 이어(2회) 게재한다.

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원문 그대로를 신되 괄호 안에 주를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100가지 문답

(종교법규정책 학습재료)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종교사무국 편집

머 리 말

애국적인 종교조직과 종교계인사 특히 광범한 신교 군중들은 위대한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 조국을 열애하고 정부의 령도와 관리를 접수하며 규율을 준수하고 훌륭한 공민으로 되려 하며, 더욱이 오늘날 개혁 개방의 시대에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족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기여하려 한다고 우리 국에 여러 차례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학습할 재료는 많지 못하며 전문적으로 그들의 학습에 제공하는 서적과 재료는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들 가운데의 많은 사람들은 당의 종교정책에 대해 알듯 말듯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문제에 관계되는 법률, 법규와 관리규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관리각도에서 말한다면 교도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과 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적은 것이다. 때문에 적지 않은 종교신도들은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비법, 위법종교 활동간의 계선을 똑똑히 가르치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안정단결에 불리하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해를 주는 일까지 하였던 것이다. 종교애국조직, 종교계인사 그리고 광범한 신교군중들은 우리 국에 해당하는 학습재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간절히(박절히) 요구하고 있으며 자야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본국에서는 바로 이런 정황에 비추어 <교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0가지 문답>을 편집 하였다. 이 책은 종교신도들에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학습재료가 될 뿐더러 각급 지도간부와 기층당원간부, 특히는 종교사업간부들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종교면의 해당한 법규와 정책을 선전하고 교육하는 실용교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의 종교 리론, 정책에 대한 우리의 학습이 아직 부족하고 리해가 깊지 못한데다가 시간이 긴박하고 경험이 결핍하며 참고할 재료가 적은 등 탓으로 본 책에 결함과 오류가 존재 하게 되는 것은 피면키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비평시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편집자

1992년 5월 15일
(연결에서)

29. 신로종교직업인원들에 대하여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

젊은 세대의 종교직업인원들은 모두 끊임없이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각성을 제고하고 문화수준과 종교학식을 제고하며 당의 종교정책을 충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정직하고 애국적이며 년로한 종교직업인원들을 존중하고 참답게 그들의 장점을 따라 배워야 한다. 동시에 일체 년로한 종교직업인원들은 마땅히 젊은 세대의 종교 직업인원들을 사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젊은 세대의 애국종교직업인원들과 원래의 종교계의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지식분자들이 서로 결합되어 우리 나라 종교계 조직이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담보하는 골간력량으로 될 수 있다.

30. 무엇 때문에 종교령도권이 반드시 애국종교계 인사들의 손에 장악되어야 하는가?

종교는 일종 신앙인 동시에 사회력량이기도 하다. 종교는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방면에 광범하고도 심도 있게 참여하여 부동한(각기 다른)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 처해 있다. 국내의 적들은 종교를 리용하여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고 나라를 분렬하는 활동을 하려 꿈꾸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천방백계(온갖 계락을 다하여)로 종교령도권을 장악하여 신교군중을 기편하고(속이고) 선동하려 한다. 국외의 적들도 중국이 변역 발전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고 각종 수단을 취하여 우리 나라의 종교계 애국력량을 분화하고 신교군중을 기편(속이고), 롱락하며 중국의 종교령도권을 찬탈하여 또 다시 그들의 통제하에 두고 그들의 평화적 이행의 목적에 도달하려 한다. 때문에 종교의 령도권 문제는 종교문제일 뿐만 아니라 많은 정도에서 정치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종교령도권이 오직 종교계 애국인사들의 손에 장악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 나라 종교조직이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의 안정과 조국의 통일을 수호할 수 있으며 신교 군중과 전국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할 수 있다.

31. 우리 나라에는 전국적인 애국종교조직이 몇 개 있는가?

목전 우리 나라에는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교협회>,<중국천주교교무위원회>, <중국천주교주교단>, <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 등 8개 애국종교조직이 있다.

32. 우리 나라 종교단체의 성질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 종교단체는 신교군중들 자신의 애국적 조직이다.

33. 각 애국종교조직의 기본적인 과업은 무엇인가?

각 애국종교조직의 기본적인 과업은 당과 정부를 협조하여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집행하고 광범한 신교군중과 종교계 인사들을 도와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각성을 부단히 제고하며 법적 관념과 정책관념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조직하고 교무사업을 잘하는 것이다.

34. 애국종교조직의 작용을 발휘하는 의의는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각 애국종교조직은 모두 광범한 군중기초를 가지고 있고 광범한 신교군중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광범한 신교군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희망과 요구를 반영한다. 때문에 애국종교조직은 당과 정부에서 광범한 신교군중들을 련계하고 단결하며 교육하는 뉴대(유대)와 교량이다. 오직 애국종교조직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야만이 당의 종교신앙자유정책이 더욱 잘 관철집행될 수 있고 종교조직의 자아교육과 제고에 리로우며 종교활동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데 리롭고 정상적인 사회질서, 생활질서, 생산질서를 수호하는 데 리로우며 안정단결의 정치국면을 수호하고 국외종교적대세력의 침투를 제지하는 데 리로우며 광범한 신교군중들을 단결하여 유쾌한 심정으로 사회주의 두 가지 문명건설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35. 애국종교조직의 직능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개괄하여 말하면 협조와 조직, 대표와 수호, 단결련의(聯誼), 자양경영, 교무결책이다.

36. 애국종교조직의 작용은 무엇인가?

당과 정부를 협조하여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하고 신교군중과 종교계 인사들을 도와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각성을 부단히 높이며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와의 조화를 촉진한다.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조직하며 교무사업을 잘 꾸린다. 정부 해당부문의 비준을 거쳐 종교서적을 출판, 발행하고 종교력사재료를 정리하며 종교학술연구활동을 벌린다.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꾸리고 신교군중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게끔 조직해 주고 추동(추진)해 준다. 종교면의 국제우호래왕을 진행하여 우리 나라 종교계 인사와 세계 각국 종교계와의 상호 료해(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킨다.

37. 각 애국종교조직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각 종교는 모두 그에 상응한 종교의식과 조직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여러 종교는 일률로 평등하며 통치지위를 점(차지한)한 종교가 없거나 또 허용하지도 않는다. 우리 나라의 정책은 각 종교조직을 똑같이 대하고 차별시하지 않는 것이다.

38. 정부와 애국종교조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나라에서 그 어떤 단체거나 개인이든지 모두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길을 걸어야 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열애해야 한다. 이 점을 떠난다면 전국인민과의 정치상의 일치성을 잃게 된다. 종교단체로서의 애국조직도 마찬가지로 당과 정부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정부 종교사무부문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39. 정부에서는 어떻게 애국종교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가?

애국종교조직이 자체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추동하고 그들을 도와 후계자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이 각종 규정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는 것을 협조하며 그들이 점차적으로 <자양>을 실현하게끔 부추겨 주고 그들이 종교활동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촉진하며 그들이 사회주의 두가지 문명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40. 향진, 촌, 가두(省 이하 행정단위)에서 종교단체를 세울 수 있는가?

현급 이상은 종교단체를 세울 수 있고, 향진과 촌 가두에 세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국가인민정부에서 사회단체를 등기할 때도 향진과 촌, 가두는 등기해 주지 않는다. 향진급 이하는 정부에서 비준한 종교활동 장소에서 민주관리조직을 내올 수 있다.

(2) 종교활동장소 배치방면

41. 종교활동장소란 무엇인가?

각 종교의 신자들이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정부에서 비준한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주로는 절간, 교회당, 도관과 종교활동점을 말한다.

42. 교회, 교회당, 활동점의 명칭에 대하여 어떤 통일적인 규정이 있는가?

천주교, 기독교의 정식공공활동장소(교회집체소유)가 있는 것은 일률로 교회라고 명명하고 그 활동장소를 교회당이라고 한다. 공공활동장소가 없이 지정된 모교도의 집에서 집회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점이라고 명명한다.

이슬람교에서 무릇 레베전, 욱실, 덕대방이 있는 것이면 청진사라고 하고 욱실, 덕대방만 있는 것이면 활동점이라고 명명한다.

43. 정부에서 각종 종교활동장소를 비준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① 고정된 지점과 명칭이 있어야 한다.
- ② 민주관리조직이 있어야 한다.
- ③ 종교활동을 책임지는 종교교직인원이거나 의무

전도원이 있어야 한다.

④ 법률, 법규와 현행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⑤ 일상지출을 담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제래원이 있어야 한다.

44. 정부에서 종교활동장소를 비준할 때에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세 가지를 정하는 방법>을 쓴다. 즉 점을 정하고 (고정된 활동장소), 면을 정하며 (고정된 범위), 사람 (고정된 종교활동 책임자)을 정한다.

45. 절당, 도관, 교회당을 새로 짓거나 확건함에 있어서 마땅히 주의해야 할 정책은 어떤 것들인가?

① 무릇 새로 짓거나 다시 짓거나 확장하는 절당, 도관, 교회당 등에 속하는 것은 모두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중 불교, 도교의 절당과 도관은 모두 성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② 종교정책시달범위에 속하는 것 외에 국가와 집체의 재물을 써서는 안된다.

③ 신교군중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새로 짓거나 다시 짓거나 확건할 때에는 그들을 인도하여 될 수 있는 한 적게 지어야 한다.

④ 건축규모를 적당하게 통제하고 기지선택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⑤ 외국종교조직에 부조를 요구하는 것을 엄금한다.

(3)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비법, 위법종교 활동

46. 어떤 활동들이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속하는가?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란 ① 교도들이 정부에서 비준한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각교의 교의에 따라 진행되는 종교활동과 교도들이 종교습관에 따라 자기 집에서 진행하는 종교활동을 말한다. 레컨대 부처에게 절하고 경을 읽고 향불을 피우고 레배하고 기도하고 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미사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계를 받고 재계를 지키고 종교명절을 쇠고 중부, 추사하는 것과 종교명절을 쇠는 것 등이다. ② 종교교직자들이 정당한 종교직무를 리행하는 활동. ③ 교회당, 절당에서 자원적으로 입교하거나 출가를 요구하는 새로운 교도를 받아들이거나 자원적으로 기증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④ 정부 해당부문의 비준을 거쳐 각 교에서 자기의 경전을 인쇄하고 지정된 절당, 도관, 교회당에서 일정한 수량의 종교 간행물과 종교용품 및 종교예술품을 경유하여 파는 것 등이다. 상술한 종교활동은 모두 정상적인 종교활동으로서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47.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이란 어떤 것이며 마땅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부 및 그 행정관리부문에 정한 종교활동에 관한 규정을 벗어난 종교활동을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활동들이 비법적이거나 위법활동이 아닐 수는 있지만 행정관리상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비평교육하고 제지하거나 처벌하여야 한다.

48.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이란 어떤 것인가?

① 비준받은 종교활동장소 밖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 레하면(예를 들면) 종교활동장소 밖에서 전교하고 종교선전품을 산발하고(유포하고) 유선론을 선전하며 교도가 아닌 가정에서 전교하고 남을 끌어당겨 입교시키는 것 등이다. ② 정부에서 규정한 종교활동행정구역 밖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 레하면(예를 들면) 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지역계선을 벗어난 교직원의 종교활동과 교도들이 지역계선을 벗어나 전교하는 것 등이다. ③ 직권범위를 초월한 교직인원의 종교활동과 교직신분이 없는 교도가 교직인원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 레하면(예를 들면) 세례를 주거나 설교하는 것 등이다. ④ 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각종 종교학습반, 의공반(전도자 훈련반)을 꾸리는 것. ⑤ 사회질서, 생산질서, 생활질서에 영향 주는 것. ⑥ 지나치게 빈번한 종교활동과 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종교범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 레하면(예를 들면) 종교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밑에 종교의 명의로 사회에서 이른 바 <문체활동(문화 오락 및 체육활동)>을 벌리는 것 등이다.

49. 어떤 활동들이 비법적 종교활동에 속하는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헌법, 법률과 정책이 허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법적이다.> 레하면(예를 들면) 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강박하여 교를 믿게 해서는 안 되며 특히 18세 이하의 소년 아동을 강박하여 교를 믿게 해서는 안 된다. 종교가 국가의 행정, 사법, 혼인, 학교교육과 사회공공교육을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미 폐지한 종교특권과 압박, 착취제도를 회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 어떤 <자유전도인>이 지역계선을 벗어나 전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어떤 종교조직이거나 교도들이 종교활동장소 밖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이다.

50. 종교를 리용하여 진행하는 위법범죄활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종교를 허울로 법률을 위반하고 형법을 범한 종교활동을 말한다. 레하면(예를 들면) 종교언어를 리용하여 당과 사회주의를 공격하거나 소위 말하는 <현성(顯聖)>, <예언>설로 군중을 기만하고(속이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고 민족단결과 조국통일을 파괴하며 종교를 방패로 비밀리에 반동조직을 내오며(결성하며) 종교를 리용하여 사람을 해치고 부녀를 간음하며 돈과 재물을 일러내는(사취하는) 등이다.

종교를 리용하여 위법범죄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좇아 징벌해야 한다. 우리 나라 <형법> 제10조에는 <일체 나라의 주권과 평등안정에 해를 주고 무산계급독재제도에 해를 주며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전민소유의 재산 혹은 로동군중의 집체소유의 재산을 침범하고 공민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합법적 재산을 침범하며 공민의 인신권리와 민주권리를 침범하는 행위와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때문에 일체 종교를 리용하여 진행되는 위법범죄활동은 마땅히 형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51. 종교를 리용하여 진행하는 위법활동에는 몇 가지 형식이 있는가?

개괄하면 주로 4가지가 있다. 첫째, 반동조직과 비법조직을 세우고 종교를 리용하여 신교군중을 기만하며(속이며) 네 가지 기본원칙을 공격하고 당과 정부의 평등을 반대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격하고 당과 신교군중을 이간시키며 제멋대로 반혁명활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외 적대세력들이 서로 결탁하여 종교지하세력을 자라우고 부추기며 애국종교조직과 대항하고 교회의 평등권을 쟁탈하고 신교군중을 쟁탈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반사회주의적 역량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것이다. 셋째, 종교의 기치를 들고 종교열광을 선동하여 일으키며 조국을 분열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죄악적 활동을 제멋대로 감행하는 것이다. 넷째, 종교를 리용하여 요언을 날조하고 군중을 미혹시키며 인심을 혼란시키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며 개혁개방과 네 가지 현대화 건설을 파괴하는 것이다.

52. 종교활동과 봉건미신활동에는 어떤 구별이 있는가?

종교와 미신은 비록 모두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신비한 힘과 허무하고 환상적인 세계를 믿지만 미신은 결코 종교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종교는 신앙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식 조직이 있고 성문화한 교의와 경전이 있으며 전직 혹은 겸직 교직인원과 규범화된 활동의식이 있는 등 특점을 가지고 있다. 종교활동은 종교신도들이 종교신앙권리를 실현하는 합법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신령계 빌고 관상을 보며 점을 치고 무꾸리 하는 등 미신활동은 모두 위에서 말한 종교의 특점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요언을 날조하여 사람을 미혹시키며 돈을 일러내고(사취하고) 사람을 해치며 사회에 해를 끼치고 인민의 건강을 해친다. 우리 나라 헌법과 법률은 봉건미신활동을 승인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일관적으로(시종 일관으로) 견결히(단호히) 없애 버릴 것을 주장한다.

53. 자유전도인이란 무엇이며 마땅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정부에서 비준한 종교활동장소를 벗어나 설교하며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유전도는 정책이 용허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전도인>에 대해서는 엄하게 비평하고 교육해야 하며 전교활동을 제지하거나 처벌해야 한다. 만약 <자유전도인>이 타지방 사람이라면 본고장에 돌아가게 하거나 혹은 종교 사업부문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본 고장에 돌려보내야 한다. 교육과 처벌을 접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안부문에 넘겨 처리한다.

54. <가정집회>란 무엇이며 마땅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가정집회>란 자체로 교도집에서 진행하는, 상당한 수량의 교도가 있고 종교활동책임자가 있는 집회활동을 말한다. 이런 집회활동은 <자유전도인>과 나쁜 사람들에게 쉽게 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상에서 용허하지 않는다. 그 처리방법을 놓고 말하면 ① 조사하여 확실히 국내외적대세력에게 리용되고 통제당한 집회점은 견결히(단호히) 없애버려야 한다. ② 교를 믿는 군중들을 정부에서 비준한 종교활동장소에 가서 종교활동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③ 조사연구와 등기를 거친 후 활동장소를 비준하는 요구에 부합되는 집회점은 <세 가지 고정>의 방법으로 비준해 주어야 한다.

55. 무엇 때문에 교를 믿는 환자에 대해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는>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교도개인집이거나 종교활동장소에서 교를 믿는 환자를 위하여 기도를 드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는>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는>활동은 인신을 유린하여 병세를 악화시킴으로써 나중에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나라 법률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는>활동으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엄격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4) 종교계의 국제친선래왕을 발전시키는 것과 종교반 침투방면

56. 우리 나라에서 종교방면의 국제친선래왕을 함에 있어서의 방침은 무엇인가?

종교방면의 국제 친선래왕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뿐

만 아니라 경외종교적대세력의 침투도 견결히(단호히) 저지하는 것이다.

57. 무엇 때문에 종교방면의 국제친선래왕을 해야 하는가?

① 벗을 널리 사귀고 친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는 세계상에서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서 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련계가 광범하다. 그들 가운데 의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나라와 친선적이다. 종교방면의 국제친선래왕을 하는 것은 각 나라 민간에서 친선래왕을 하는 형식의 하나로서 상호간의 료해를(이해를) 깊이하고 벗을 널리 사귀며 우리 나라 인민과 세계각국 인민지간의 친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② 자기를 선전하고 영향을 넓힐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친선래왕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선전하고 우리 나라의 대외영향을 넓히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③ 종교사업을 잘하고 종교 적대세력의 침투를 저지하는 데 유리하다. 우리 나라의 여러 애국종교조직과 애국적 종교계 인사들은 국제적 래왕을 통하여 여러나라 인민들이 우리에게 대한 리해와 지지를 촉진할 수 있으며 어깨 결고 함께 싸워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며 경외적대세력들이 종교를 리용하여 우리 사회주의 국가를 평화적으로 리행시키려는 망상을 분쇄할 수 있다. 총적(결론적)으로 종교계의 국제친선래왕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래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적인 조성부분으로서 우리 나라의 개혁개방과 조국의 통일 및 네 가지 현대화건설에서 날마다 큰 역할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58. 종교방면의 국제친선래왕에서 마땅히 견지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독립자주하고 자체로 교회를 꾸리며 당의 종교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경외종교적대세력의 침투를 견결히 저지하는 등 원칙이다.

59. 경외종교인사와의 래왕에서 마땅히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

열정적이고도 친선적이며 예모있게 대하고 비굴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으며 자중자애하는 것이다.

60. 종교침투의 함의는 무엇인가?

종교침투란 경외적대세력이 종교를 리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뒤엎고 조국통일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반동적인 정치활동과 선전, 우리 나라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를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활동과 선전 및 우리 나라 경내에서 비법적으로 종교조직과 활동거점을 건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61. 무엇 때문에 종교반침투세력을 강화하여야 하는가?

종교반침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전복, 반쟁탈과 평화적 리행을 반대하는 수효이다(필요에서이다). 최근 몇년 내에 경외적대세력들은 종교를 <평화적 리행> 전략의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우리 나라에 대하여 부단히 침투와 파괴를 진행하며 <평화적 리행>을 실시하여 왔다. 그들은 종교를 리용하여 군중을 쟁탈하고 특히는 청소년을 쟁탈하며 그들의 세력을 키우고 종교계의 애국역량을 분화, 와해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독립자주하고 자체로 교회를 꾸리는 방침을 반대하고 민족통일과 조국통일을 파괴하며 공산당의 령도와 사회주의체도를 공격하고 있다. 당면에 이러한 침투활동은 선명하게(뚜렷이) 심해져 이미 일부 지방의 불안정한 요소로 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고도의 경각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여(강구하여) 종교반침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62. 서방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무엇 때문에 종교를 리용하여 평화적 리행을 실현하려 하는가?

서방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나라를 전복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치상에서 고립시키고 군사상에서 침략하며 경제상에서 봉쇄하는 방법이 실패한 후 수법을 바꾸어 <평화적 리행>의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그들은 각종 도경, 각종역량, 각종 수단을 리용하여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평화적 리행을 다그치고 있다. 종교 자체가 리용가치를 가지고 있고 적응성이 강한 특점을 가지고 있기에 쉽게 리용될 수 있다.

1983년에 미국 국무장관 솔쯔는 미국 국무원회의에서 소집한 <사회주의국가민주화>회의에서 <종교신앙으로부터 정치행동에는 오직 한 발자국의 거리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종교는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며 면이 넓은 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한 농후한 종교감정을 지니고 있다. 서방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이런 특점을 파악하고 천방백계로 종교를 리용하여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침투, 전복과 평화적 리행을 진행하고 있다. 동 구라과의 급격한 변화와 소련의 해체가 바로 이 점을 증명하여 준다.

63. 경외적대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과 수단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종교침투를 진행하는가?

① 방송을 리용하여 <공중전교>를 하는 것, ② 종교선전품을 부쳐 보내거나 지니고 들어 오거나 전하여 주는 등 방법으로 <문서전도>하는 것, ③ 출국하여 친척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도를 발전시키거나 대리인을 몰색하고 양성하는 것, ④ 이른바 부조금이거나 교를 꾸리는 경비를 주는 등의 금전과 물질로 유혹하는 것 ⑤ 중국에 와서 유람하거나 친척방문하거나 벼를 방문하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리용하여 교를

전파하고 종교선전품을 산발(유포)하는 것, ⑥ 우리나라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 면의 합작교류를 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산업전교>를 하거나 <기술전교>를 하는 것, ⑦ 직접 손을 대어 우리나라 종교의 내부사무를 간섭하고 종교지하세력을 기르는 것, ⑧ 국외의 민족분열주의자들이 종교를 리용하여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조국을 분열하는 음모활동을 하는 것 등이다.

64. 종교방면에서 경외종교인사들을 방문하도록 초청하거나 그들의 초청에 의하여 방문을 나가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종교단체거나 종교신도의 명의로 경외종교신자들을 조직적이거나 개인의 명의로 방문하도록 초청할 경우에는 각급 정부관계 부문에 충충히 보고하여 성인민정부종교사무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사람을 조직하여 방문을 나가거나 종교계 인사들이 종교신도의 신분으로 방문을 나갈 때에는 반드시 당지 종교사무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충충히 보고하여 성인민정부종교사무국의 비준을 거친 후에 해당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약 중대한 섭외활동이 있다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65. 종교신도들이 경외종교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휴학하거나 진수하거나 국제적인 종교회의에 참가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국무원 종교사무국과 전국적인 종교단체에서 통일적으로 안배하고 조직한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자체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

66. 경외종교단체거나 교도개인이 우리나라 종교방면에 기증, 헌금하고 부조금과 교를 꾸리는 경비를 제공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는가?

우리나라 종교방면에 대한 경외종교단체거나 교도개인의 각종 형식의 기증은 그 금액의 많거나 적거나 조건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성인민정부종교사무국의 비준을 거친 후 접수할 수 있다. 경외종교신도들이 우리나라의 절당, 도관, 교당의 종교활동에 참가하여 보시, 네침, 헌금, 헌의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액이 만 원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성인민정부종교사무국의 비준을 받은 후에 종교단체에서 출면하여 받아야 한다. 각 종교단체거나 신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경외종교단체거나 종교신도에게서 재물을 토색질하여서는 안되며 그들이 제공한 부조금과 교를 꾸리는 경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67. 경외에서 우리 측에 종교경전, 종교인쇄품, 전교녹음과 녹음 녹화 테이프를 기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종교단체와 신도는 경외에서 기증한 다른 내용이 첨가되지 않은 종교경전은 가히 받을 수 있으나 총숫자가 열 권 이상일 때에는 성급인민정부종교사무국의 비준을 받은 후 받을 수 있다. 경외에서 출판제작된 기타 각종 종교인쇄품, 전교녹음테이프와 녹음, 녹화 테이프는 모두 접수하지 말아야 하며 종교활동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더구나 안 된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들어온 상술한 물품들은 마땅히 당지 정부종교사무국에 바쳐야 한다.

68. 경외에서 각종 종교용품에 기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원칙상에서 종교단체와 신도는 경외종교단체거나 신도들이 기증한 각종 종교용품, 종교활동에서나 종교활동장소를 장식하는 데 쓰이는 기타 물품들을 접수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대방에서 확실히 우호적인 넘임으로 출발하였고 다른 그 어떤 부대적 조건이 없을 때에는 성급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의 비준을 거친 후 받을 수 있다.

69. 경외방송국의 종교방송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그 어떤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그 어떤 장소에서나 경외방송국의 종교방송을 틀어 놓아서는 안 되며 군중을 조직하여 경외방송국의 종교 방송을 들어서는 안 되며 군중들에 향하여 경외방송국의 종교방송내용을 선전하여서는 안 된다.

70. 경외에서 중국에 온 종교신도가 종교활동에 참가하는 데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가?

경외에서 중국에 온 종교신도들은 종교직업인원의 신분이 있든지 없든지를 막론하고 종교활동에 참가할 때에는 오직 보통 신도의 신분으로 정부에서 비준 개방한 절간, 도관, 교당에 가서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그들이 그 어떤 장소에서 그 어떤 형식의 전교활동이나 종교의식을 주최하거나 종교선물을 산발하고(유포하고) 종교신도들의 기타 집회에 참가하거나 종교신도들의 집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그들이 참여하여 우리 내부의 종교사무를 간섭하는 것은 더구나 안된다.

(5) 독립자주하고 자체로 교회를 꾸리는 방법

71. 우리 나라에는 주로 어떤 종교들이 있는가?
우리 나라에는 지금 주로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도교 등 다섯 가지 종교가 있다.

72. 우리 나라 종교는 어떤 특점을 갖고 있는가?
<다섯 가지 성질>의 특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군중

성이다. 우리 나라에 교를 믿는 인수가 비교적 많다. 둘째는 민족성이다. 우리 나라의 근 20여개 소수민족은 거의 전민족이 어느 한 가지 종교를 신앙한다. 셋째는 국제성이다. 불교, 이슬람교와 기독교(천주교, 기독교신교, 동정교를 포괄)는 세계 삼대 종교라고 일컫는다. 넷째는 복잡성이다. 구체표현은 상술한 세 가지 특성과 종교표현형식의 다양성 등에 있다. 다섯 째는 장기성이다. 종교는 하나의 의식형태로서 그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73. 우리 나라의 종교의 교를 꾸리는 방침은 무엇인가?

독립자주하고 자체로 교회를 꾸리며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의 방침이다.

74. <3자>방침의 함의는 무엇인가?

<자치>란 주로 우리 나라의 종교사무는 외국종교세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 나라 애국적 종교조직에서 자기 절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양>이란 주로 우리 나라의 종교는 외국종교세력의 방조(도움)에 의거하지 않고 자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자전>이란 우리 나라에서 전교(계승을 포괄)는 외국의 종교세력에 의거하지 않고 애국적 종교조직과 광범한 교를 믿는 군중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75. <3자>방침은 어떻게 제출된 것인가?

우리 나라 헌법은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1949년 10월 1일, 새 중국이 건립된 후 우리 나라는 독립자주적인 국가로 되었으며 인민의 주인으로 되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의 천주교, 기독교는 의연히 제국주의 세력의 통제 밑에 있었으며 교회의 권력은 로마교정과 100여개 기독교 차회의 손에 통제되어 있었다. 해방전야에 전국의 천주교 신직인원 중에서 외국 전교사가 근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전국기독교 교목인원 중에서 외국 전교사가 17% 점하였다. 1946년, 로마교정에서는 중국 천주교를 20개 교성으로 획분하였는데 143개 총주교구, 주교구(감목구)가 있었다. 20명의 총주교 가운데서 중국적 총주교는 5명뿐이었고 주교 123명 가운데서 중국적 주교는 28명뿐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일찍부터 우리 나라의 천주교, 기독교계의 애국자와 광범한 교도들의 불만과 반대를 받아왔다. 우리 나라 종교계의 애국인사들과 광범한 교를 믿는 군중들이 새 중국의 탄생을 환호할 때 제국주의 세력과 로마교정은 우리 나라 종교계의 소수 상층인사들과 서로 결탁하여 <유신과 무신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다> <공산당이 종교를 소멸하려 한다>는 등의 반공여론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새중국을 반대하는 활동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나라 종교계의 반제정서를 더욱 크게 격발시켜 제국주의자들과 각

방면의 관계를 끊어버릴 결심을 내리게(하게) 되었다. 1950년 7월 기독교의 애국인사 오요중, 등유지, 류량모 등 40여 명이 연합으로 <중국기독교가 새중국 건설 가운데서 노력할 도경>이란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즉 <3자 선언>이다. 선언에서는 전국기독교들이 중국교회와 제국주의 관계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자치, 자양, 자전>을 실현할 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해 11월, 사천 광원현 천주교 신부 왕량좌와 교도 500여 명이 공동으로 <천주교 자립 혁신선언>을 발표하여 중국 천주교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입장에 입각하여 제국주의자들과의 각 방면의 관계를 견결히(단호히) 끊어버리고,……자치, 자양, 자전의 새 교회를 건립하자>고 호소하였다. 이 두 개 선언이 발표된 후 중국 정부의 지지와 광범한 교도와 종교계 인사들의 열렬한 옹호와 지지를 받았으며 종교계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일으켰다. 외국종교세력도 중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으며 119개 외국천주교사회에서와 173개 외국기독교 차회에서 뒤따라 중국에서 떠나고 7,200여 명 외국 전교사들이 선후하여 중국을 떠났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의 천주교, 기독교는 진정으로 중국 자신의 천주교, 기독교로 되었으며 독립하여 자체로 꾸리는 길을 걷게 되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삼자>방침은 외국종교세력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다.

76. 무엇 때문에 종교자양의 방침을 실행하는가?

이는 우리 나라 종교의 교회를 꾸리는 방침이다. 해방 초기에 우리 나라의 종교단체는 외국 교회의 통제와 리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상에서 <자양>을 실행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경외종교적대세력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그들이 경제 수단으로 중국의 종교를 다시 통제하려는 미몽을 깨뜨려 버리기 위한 데 있다. 우리 나라 종교가 자주하고 자체로 꾸리는 방침을 실행하고 종교단체의 자양사업을 잘한다면 경제수입을 늘여 정상적인 종교활동경비와 종교교직원들의 생활비용을 해결하고 나라와 교를 믿는 군중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뿐더러 또 나라를 위하여 재부를 증가하고 축적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네가지 현대화 건설을 위해 기여하게 된다.

77. 자양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도경들이 있는가?

자양문제를 해결하는 도경은 주로 아래의 몇 가지에 있다. 첫째로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꾸려 얻은 수입과 종교직업자와 교회의 생산수입이다. 둘째로는 종교 가족을 처리하여 얻은 수입과 종교가족을 세주어 얻은 수입이다. 셋째로는 교도들이 의연하는 것이다.

78. 여러 종교 단체와 절간, 도관, 교당에서 자양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교에 따라, 지방에 따라 알맞게 하고 힘에 알맞게 하며 적극적이고도 온당하게 각자는 자기의 전통, 특점과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특점과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동시에 나라의 해당법령과 정책을 준수하고 정부관계부문의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재무제도와 기타 규정제도를 건립하고 건진히 함으로써 자양사업이 건진하게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79. 우리 나라 정부에서 중국과 바티칸의 관계문제를 처리하는 두 가지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바티칸은 반드시 대만과의 이른바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여야 하고 둘째로는 바티칸은 우리 나라의 종교사무를 간섭하지 않을 것을 망라한 우리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80. 우리 나라의 종교단체와 경외종교조직간의 정치관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어떤 것인가?

그 어떤 경외종교단체이거나 개인이든지 우리 나라의 종교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에 판사기구를 설치하고 절간, 도관, 교당을 세우며 전교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6)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서로 조화하는 방면

81.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서로 조화한다는 함의와 근거는 무엇인가?

이른바 조화한다는 것은 서로 같지 않은 요소기간에 적당히 배합하여 원래 조화를 바라지 않던 여러 개 면이 자신의 본질적 특점을 버리는 것이다. 종교와 사회주의가 서로 조화한다는 것은 곧바로 종교는 사회주의의 두 가지 문명건설에 대해 일부 면에서 마땅히 적당한 배합작용을 늘어야 한다는 것이지 결코 쌍방의 신앙을 서로 개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와 조화될 수 있다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종교는 매우 강한 사회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 종교는 산생된 후에 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 등 다섯가지 사회형태를 거쳤다. 종교가 수천 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가 매우 강한 적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응성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정치경향면에서 사회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자신이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다. ② 사회주의 사회의 의식형태 가운데는 종교에 대해 일정한 용납성이 있다. 예하면 당과 정부에서 종교신앙을 사상신앙문제로만 믿고 교를 믿는 군중과 교를 믿지 않는 군중들의 정치상, 경제상에서의 리익은 일치하다고 인정한다. 종교는 나라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열애하고 로동을 사랑하며 과학을 사랑할 것을제창하는데 이는 사회주

의 도덕의 요구에 부합된다. ③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 교도일 뿐더러 역시 사회주의 나라의 공민이며 사회주의 교육을 받는다. ④ 당과 정부에서 정확한 종교정책을 실시하여 조화의 가능성이 현실로 되었다. 당의 종교신앙자유정책은 교를 믿는 군중들의 종교감정을 존중하여 주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며 위법종교활동을 타격하여 교를 믿는 군중들의 적극성을 불러 일으켰으며 조화의 가능성이 현실로 되게 하였다.

82.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서로 조화되는 원칙은 무엇인가?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서로 조화되는 원칙은 애국주의와 사회주의를 토대로 하고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83.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서로 조화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조화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조화란 있을 수 없다.

건국 이래의 40여년 간의 실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조화되는 기본 조건은 두 가지 면에 있다.

종교면을 놓고 말하면 기본조건은 종교신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지키며 전국인민들과 함께 사회주의 두 가지 문명건설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사회주의의 건립과 발전은 종교계인사들과 광범한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사회주의가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그들은 새 사회를 옹호하고 당과 국가,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각항 정책을 옹호하며 여러 가지 징조가 상서롭게 되고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할 것을 선전하는데 이는 민심에 부합되고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종파의 초기 신학사상과 연계하고 종교경전 가운데서 근거를 찾아 원래의 신앙과 교의(敎義)를 사회주의와 일치하게 해석하고 있는 바 또 이를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 아울러 초탈하고 엄세적인 태도를 개변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과 희망으로 충만되어 있다. 또 병이 있어도 약을 먹지 않고 영화와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방송을 듣지 않던 데로부터 나라의 대사를 관심하고 새 사회에 불리한 설법과 행위를 고치었으며 정부의령도를 접수하고 규율을 지키고 법을 지키며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진행하고 네 가지 현대화 건설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아변혁과 자아조절은 종교로 하여금 능히 사회주의와 서로 조화되고 서로 적응될 수 있게 하였다.

당과 정부를 놓고 말한다면 기본조건은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건결히 실행하는 것이다.

당과 국가에서는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의 과학적 원리를 견지하고 우리 나라의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종교신앙자유 등 일련의 정책을 제정하였다. 우리 나라 헌법은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의 민주권리를 보장하여 주고 인민정부는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당의 각항 종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관철하며 행정명령이거나 기타 강제수단으로 종교를 압제하고 기시하는(금지시키는) 그릇된 생각과 작법을 건결히 버리고 교를 믿는 군중과 믿지 않는 군중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다같이 네 가지 현대화 건설에 힘을 다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곧바로 사회주의로 하여금 종교에 대한 포섭성을 가지게 하였다. 종교신앙자유정책은 사회주의가 종교와 조화하는 기본정책이므로 당과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정책을 건결히 관철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84.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와 조화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와 조화함은 주로 교를 믿는 군중들의 사회실천을 통하여 실현된다. 조화의 내용에는 주요하게 아래의 몇 가지 점들이 망라된다. ① 애국통일 전선 가운데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작용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애국종교조직과 광범한 교를 믿는 군중들은 이미 당을 옹호하고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 한 갈래의 애국역량으로 되었으며 종교계는 이미 당이 령도하는 애국통일전선의 한개 구성 부분으로 되었다. ② 경제건설 가운데서 작용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광범한 종교 신앙자들은 우리 나라 네 가지 현대화 건설의 한 갈래 생력군으로서 그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우리 나라의 번영창성을 위하여 공헌하게끔 하여야 한다. ③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에서 작용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종교신앙자들이 규율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에 적극 참가하고 악한 것을 버리고 착한 일을 하며 양호한 사회도덕기풍을 수호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복리사업을 꾸리도록 인도하여 사회와 인민에게 공헌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과학을 믿도록 인도하여 병이 있어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약이 있어도 먹지 않는 비과학적인 작법을 개변하게끔 하여야 한다. ⑥ 역사를 연구하고 민족을 연구하며 국제적인 친선래왕을 진행하며 경의종교적대세력의 침투를 저지하는 등 면에서 특수한 작용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85. 종교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와 조화되지 않는 현상들이란 주요하게 어떤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가?

사회주의사회의 포섭성 특점과 종교의 적응성 특점이 우리 나라 종교와 사회주의의 상호 조화를 결정하였

다. 그러나 의연히 서로 조화되지 않는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종교와 사회주의사회가 조화되지 않는 현상은 주요하게 우리 나라 헌법, 법률, 법규와 정책을 위반하는 현상과 정부가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면에서 허락하지 않는 일체 종교활동 및 종교의 의의를 걸친 일체 반동활동을 말한다. 예하면 정부에서 비준한 종교활동장소를 떠나서 비법전교하여 사람을 끌어당겨 입교시키는 현상,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는다며 인신건강을 해치는 현상, 경외종교 단체거나 신도에게 돈과 물건을 요구하거나 그들이 제공하는 교를 꾸리는 경비를 받는 현상, 종교를 리용하여 반혁명활동을 하는 것 등이다.

(7) 종교사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종교문제에 대한 공산당인들의 태도

86. 종교사업면의 당과 정부의 기본과업은 무엇인가?
금후 한 시기 종교사업면의 당과 정부의 기본과업은 다음과 같다. 당의 종교정책을 참답게 관철하고 공민의 종교신앙자유의 권리를 수호하며 교를 믿는 군중과 종교계 인사들에 대한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종교계 애국역량의 적극적인 요소를 불러 일으키며 그들이 유익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종교계의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법에 따라 종교 사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종교를 리용하여 위법, 범죄활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타격하며 경외종교적대세력의 침투를 견결히 저지하고 안정을 수호하고 단결을 증강하기 위하여 조국통일과 중화의 진흥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다.

87. 정부에서 종교사무에 대해 관리한다는 그 함의는 무엇인가?
법에 따라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인민정부의 한낱 중요한 직책이다. 이런 관리는 정부에서 종교사업 중에서 해당 법률, 법규와 정책의 관철 실시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가리킨다.

88. 정부는 무엇 때문에 종교사무에 대하여 관리를 진행하는가?
우리 나라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권력의 집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국가행정권을 행사하며 책임지고 국가행정사무에 대한 조직과 관리를 진행한다. 종교신앙자유는 공민자신이 자유로 선택하는 사사로운 일이므로 정부에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조직은 하나의 사회조직이고 종교활동도 하나의 사회활동인 만큼 인민정부에서는 반드시 관리를 진행하여 국가의 헌법, 법률과 정책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종교신도가 종교의 계율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종교내부의 일이다. 종교신도는 공민으로서

공민의 권리를 향수할 뿐만 아니라 공민의 의무도 감당하여야 하며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법에 따라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바로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전면적이고도 정확하게 관철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이며 종교로 하여금 헌법, 법률과 정책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담보하고 종교활동이 정상화를 촉진하며 교를 믿는 군중들의 적극성을 불러 일으켜 네 가지 현대화에 힘다하고 나라의 안정과 건설을 위하여 복무하기 위한 것이다.

89. 종교사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원칙은 무엇인가?
①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원칙이다. 종교사무에 대하여 관리하는 가운데서 당의 정치 령도를 견지하고 종교계에서의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의 관철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②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견지하는 원칙이다. 반드시 헌법, 해당법률과 법규, 정책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종교사업과 종교활동이 법제의 궤도에서 진행되게 하여야 한다. ③ 평등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견지하는 원칙이다. 종교계 인사와 교를 믿는 군중들과 접촉하고 사업할 때에는 신앙에 대하여 존중해 주고 태도는 성근하여야 하며 사람을 화기롭게, 대하고 사업에 열정적이어야 하며 일처리는 공정하여야 한다. ④ 각종 종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을 견지하는 원칙이다. 우리 나라에는 지금 <다섯 가지 종교와 여덟 개의 애국종교조직이 있는데 모두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각종 종교와 그 애국조직은 똑같이 대하여야 하지 기시하여서는 안된다. ⑤ 애국적 종교조직의 작용을 발휘시키는 것을 견지하는 원칙이다. 애국적 종교조직을 신임하고 그들에 의거하며 그들을 방조하여 자아교육과 자체관리의 수준을 제고하게 하여야 하지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대체하여 도맡아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종교자체의 고유한 객관규률을 존중하는 것을 견지하는 원칙이다. 종교는 자신의 고유한 특점과 운행규률을 가지고 있다. 사업 가운데서 반드시 이 특점과 규률을 존중하고 정황에 따라 인도하여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90. 종교사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내용은 무엇인가?
종교사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주요하게 법률과 정책에 쫓아 교육과 행정, 법률적 수단을 통하여 종교와 사회 기타 방면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는 대체적으로 아래의 세개 방면의 내용들을 포괄한다.

첫째, 공민의 종교신앙자유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교단체와 절간, 도관, 교당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종교교직원들이 정상적인 교무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보호하고, 교를 믿는 군중들이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보호한다.

둘째, 법률, 법규와 현행정책에 의거하여 정부관리

에 속하는 종교방면의 대내와 대외방면의 사무들을 비준, 심사하고 처리한다. 예하면 종교단체를 건립하고 종교활동장소를 세우며 종교방면의 대외교류사항들을 처리하는 것 등이다.

셋째, 헌법, 법률과 정책의 범위를 초월한 종교활동에 대하여 인도하고 교육하고 처리하며 종교와 종교활동을 리용하여 위법범죄활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타격하며 경외종교적대세력의 침투를 견결히 제지하는 것이다.

91. 종교문제를 처리하는 정부의 출발점과 낙착점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여 긴밀히 단합하여 중화를 진흥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전체 교를 믿는 군중과 교를 믿지 않는 군중들을 연합하고 그들의 의지와 역량을 현대화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이 공동한 목표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는 당과 정부에서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집행하고 모든 종교문제를 처리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며 낙착점이다.

92. 민족과 종교간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해야 하는가?

민족과 종교는 구별되면서도 련계된다. 소수민족 가운데서 민족문제와 종교문제는 흔히 한데 엉켜져 있으므로 종교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곧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족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민족과 종교는 두 가지 부동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종교신앙은 민족형성의 표징이 아니며 어느 한 민족을 식별하는 표준도 아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민족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는다. 종교는 상층건축에 속하는 사회의식형태의 일종으로서 사상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때문에 본민족의 대다수가 어느 한 종교를 신앙한다고 하여 그것을 본민족의 특징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민족사업과 종교사업 가운데서 민족문제와 종교문제의 련계에 대해 유의해야 할 뿐더러 더우기는 양자간의 구별을 똑똑히 보아내고 한데 뒤섞여 말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문제이면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종교문제이면 종교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양자를 억지로 뒤섞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족단결에 해를 끼치게 되고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하는데도 불리한 것이다.

93. 기독교교파 문제를 처리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연합을 제창하고 적당히 돌보며 호상(상호) 존중하고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과 국가 및 애국적인 기독교 조직에서 기독교교파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연합을 제창한다는 것은 여러 교파조직을 내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적당히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교파의 특수성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호상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호상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로 합치어야 한다는 것은 각 교파는 서로 <양>을 자기 교파에로 끌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94. 유신론과 무신론을 선전하는 그 장소와 방식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은 어떤것인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활동장소에 가서 무신론을 선전하거나 신교군중들 가운데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변론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종교조직이거나 교도들도 종교활동장소 밖에서 전도하고 전교하며 유신론을 선전하거나 종교 빠라와 정부해당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발행하는 기타의 종교서간을 산발하지 말아야 한다.

95. 종교계에서 사상교육을 전개하는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다섯 가지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다. 즉 ① 당을 옹호하고 공산당의 령도를 접수하는데 대한 교육, ② 애국주의교육, ③ 사회주의를 열애하고 사회주의 길을 걷는 데 대한 교육, ④ 규율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데 대한 교육, ⑤ 독립자주하고 자체로 교회를 꾸리는 데 대한 교육 등이다.

96. 종교계 특히는 종교계 인사들이 마땅히 수립하여야 할 주요 관점들은 무엇인가?

① 종교가 사회주의와 주동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교와 사회주의가 서로 조화하는 것은 기실 종교가 사회주의와 서로 조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여러 종교는 부단히 사회주의와의 관계를 조절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의 부단히 발전하는 객관요구에 적응하여야 한다. ② 종교 조직과 교를 믿는 군중들에 대하여서나 당과 정부에 대하여서나 일치하게 책임지는 관점을 수립하여야 한다. 애국종교조직과 종교계 인사는 당과 정부가 광범한 교를 믿는 군중을 련계하고 교육하며 단결하는 유대이고 교량으로서 교를 믿는 군중들의 정신신앙생활에 만족을 주고 교무사업을 잘하는 기둥이다. 그들의 신성한 직책과 작용은 반드시 상술한 두 가지 방면에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③ 교를 사랑하는 것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서로 통일시키는 관점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여야 하고 나라를 사랑하여야 비로소 교를 더욱 잘 사랑할 수 있다. 이는 고통스러운 역사경험의 결론으로서 애국적인 종교계 인사들과 광범한 교를 믿는 군중들의 공동한 견해이다. ④ 종교활동이 정상적인 사회생산질서, 생활질서, 사회질서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두가지 문명건설의 순리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교계에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견지하고 명목이 번다하게 너무

빈번하게 종교활동을 하는 등 현상을 두절하여야 한다.

97. 공산당인이 종교에 내린 정의는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공산당인들은 <온갖 종교는 인간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외적인 힘이 인간의 머릿속에 환상적으로 반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반영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힘이 초인간적 힘의 형태를 취한다.>고 인정한다. 초인간적인 신령을 믿고 숭배하는 것은 온갖 종교의 본질적 특징이며 역시 유신론과 무신론의 근본적인 구별의 하나이다.

98. 종교문제에 대한 당과 정부의 근본태도는 무엇인가?

종교는 상당한 수량의 군중들의 하나의 정신적 신앙으로서 공민이 자유로 선택하는 사사로운 일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 <종교신앙자유>라고 규정한 데 근거하며 광범한 교를 믿는 군중들의 종교신앙에 대한 당과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는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지 <제한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며 <고무>하거나 <지시>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국가 정권은 당연히 모종의 종교를 추행하지도 않고 모종 종교를 금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99. 공산당인들은 종교자체의 객관법칙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가?

<종교는 인류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현상이다.> <우리 공산당인들은 철저한 유물주의자로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며 종교는 일종 사회의 식형태로서 사회존재의 한 가지 반영이며 그 자체의 존재하고 발전하고 소실되는 객관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소실이란 광의적 의미에서 말하는 것으로 발생이 있으면 곧 소실이 있게 되는데 이는 변증법적 법칙이다. 우리 공산당 자체도 나중에는 소실된다. 우리는 반드시 객관법칙을 장악하고 운영하여 종교문제를 정확히 대하고 처리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역사조건하에서 일부분 사람들 가운데서의 종교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당의 령

도 아래에서 약간 세대 사람들의 장기적인 분투를 거쳐서야 비로소 종교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때문에 종교문제를 정확히 대하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사업 가운데서의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서 역시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100. 공산당인들은 종교를 믿는 군중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여야 하는가?

<우리 나라는 여러가지 종교가 있는 나라이다. 역사상에서 종교는 우리 나라 사회생활의 많은 면에 대하여 극히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군중들이 비록 전국 총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숫자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절대 숫자는 그렇게 적지 않다. 특히 우리 나라의 근 20여개 소수민족은 거의 전민족이 어느 한 가지 종교를 믿는다. 종교는 우리 나라에서 의연히 비교적 광범한 군중기초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모종의 의미에서 말하면 종교문제를 정확히 대하는 것은 바로 군중문제를 정확히 대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조건 아래에서 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군중들의 정치적, 경제상의 근본리익은 일치하며 첨예한 모순이 없고 대항적인 모순은 더구나 없다. 그들은 모두 나라의 주인이고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그들의 사상신앙상의 차이는 차요적인(부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전사회에서 이러한 기풍을 조성하여야 한다. 즉 단결을 말하고 교를 믿는 군중과 교를 믿지 않는 군중사이에, 부동한 종교를 신앙하거나 부동한 교파의 군중들 사이에 피차간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단결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야 한다. 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대다수 군중들이 교를 믿지 않는 지방에서는 소수의 교를 믿는 군중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 주는데 주의하여야 하며 대다수 군중들이 교를 믿는 지방에서는 소수의 교를 믿지 않는 군중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 주는데 주의하며 광범한 교를 믿는 군중과 교를 믿지 않는 군중들이 단결하여 함께 우리의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선교 적응훈련

제 6 기 훈련생 모집

선교현장에 임하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한 선교사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입니다.

선교현장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투자하는 6개월은 결코 많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상

- 교회, 교단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선교사.
-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선교사.

참가인원 : 10명 내외.

선 발 :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능력이 배양됩니다.
-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이 구체화됩니다.

훈련기간

1995년 3월 4일~1995년 8월 31일 (6개월)
개강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95년 3월 4일(토), 오후 3시.

일시 및 장소

일시 : 매주 월, 화, 수, 목, 금.
월(오후 1시~5시 20분),
화·수·목·금(오전 8시~12시 20분).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훈련내용

언어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본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성경, 전도, 찬양 등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하도록 합니다.

교육내용

전반(10주)/ 초급중국어1·2, 선교중국어 기본 어휘, 사도신경, 주기도문,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후반(10주)/ 중국어성경, 耶穌의好消息,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신앙독본, 福音話劇, 예수님의 비유, 전도실제, 기도문, 중국어 간증, 전도중국어.

연구 중국문화 및 선교 연구세미나

매주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중국문화와 중국선교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세미나주제

중국문화개관, 중국역사, 중국공산주의 연구, 중국교회현황과 선교 전략연구, 중국기독교사, 중국타종교 이해1·2, 최근정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해외에서의 중국선교, 전문인선교, 세계선교현황, 산동선교의 경험과 교훈, 중국정치인물론, 중국의 문화 이해, 조선족 현황,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중국 선교사의 출국수속과 현지 정착과정.

합숙 중국어 공동체훈련

전·후반 2회에 걸친 합숙훈련을 통해 강도높은 언어 실습, 공동체 섬김 및 문화충격에 대한 적

응능력을 배양합니다.

답사 선교현지답사 실시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95년 8월 중에 4주간 현지답사를 실시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 접수 순서대로 면접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 개인 통보하고 훈련원에서 지정한 일자

까지 등록된 순서에 따라 합격 인원을 확정함.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1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추천서(소정양식) - 3통
자기소개서 - 1통

참가비 : 등록비 1만 원, 원서대금 1,000원
전·후반 각 32만 원(합숙훈련 및 선교현지답사 경비는 별도)

제 7 기 훈련은 95년 9월에 개강합니다.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프로그램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수료자 또는 그에 상당한 수준에 달한 분들을 위하여 중급 이상 수준의 과정으로 개설합니다.

훈련기간
1995년 3월 4일~1995년 7월 29일 (5개월)
참가인원 : 10명 내외
일시 : 매주 화·수·목·금·토
(오전 06:30~07:30)

교육내용 : 중국어 회화
(일반회화 및 선교회화)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1통
서약서 (소정양식) - 1통
추천서 (소정양식) - 3통
자기소개서 - 1통
참가비 : 등록비 1만 원,
원서대금 1,000원
전·후반 각 12만 원

문의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 - 7
신우빌딩 402호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장희락 총무)
TEL : 594 - 8038, FAX : 599 - 2786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훈련원(원장:박진국 장로)은 선교언어훈련과 중국문화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선교의 여러 사역 중 특히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훈련사역:

중국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지망자들을
위해 **중국선교훈련원**을 통해 중국어와 현지적
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역:

정기적으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내
외 선교정보의 수립 및 자료화, 중국교회 동향
분석, 중국소수민족 및 각 성별 연구, 최근중국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중국선교 전략 연구 등
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문서사역:

중국선교의 필요성과 전략이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격월간 **“중국을 주제로”**를 발
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선교책자 번역, 출
판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교회가 필요로 하
는 신앙 및 신학서적을 중역(中譯)하는 일도 추
진중에 있습니다.

▶ 중국현지 사역:

국내에서 방한 중국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집회 및 **“사랑의 집”**에서 제자화 양육
을 수행하였습니다. 교포들이 한국에 나오는 것
이 어렵게 됨에 따라 중국현지에 **“사랑의 집”**사
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승선전도사역:

한국에 들어온 중국배에 매주 올라가 중국인 선
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3-5497

팩스 / 599-2786

섬기는 사람들

고문 방지일 목사·김지일 장로/대표 박성주 장로/총무 이요한 /
행정실 실장 장희락/행정간사 기드온/재정간사 강영옥/기획협력간사 문민/해외협력간사 루디아/
전산협력간사 김형동/교육부 운영위원 김성곤/간사 김바울/협력간사 안거안/연구부 운영위원 석은혜/
간사 권수영/협력간사 배다니엘/출판부 운영위원 석은혜/간사 차이나/협력간사 한영혜·전하리/
홍보협력간사 김정하/편집디자인 정光淑/훈련원 운영위원 장희락/간사 김바울/
선교부 운영위원 정선영/간사 임화평/인천지부 협력간사 김성수/사랑의 집 운영위원 박애린/
파송연구원 주안도/파견간사 김광석·주미애·최동신 선교사 박애린(국내)·예보람(해외)·정선영(본부)·
강성광(홍콩)·이성은(해외)·윤승일(해외)/협력선교사 주성지·고대위·이사돈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

오늘처럼 기도가 요구되는 시대가 있을까요?

그러나 요즘처럼 기도가 잠들어 있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열어 짓히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얽매는 대적의 진영을 산산히 깨뜨려 버립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불가능이란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기를 명하시는 일이 기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국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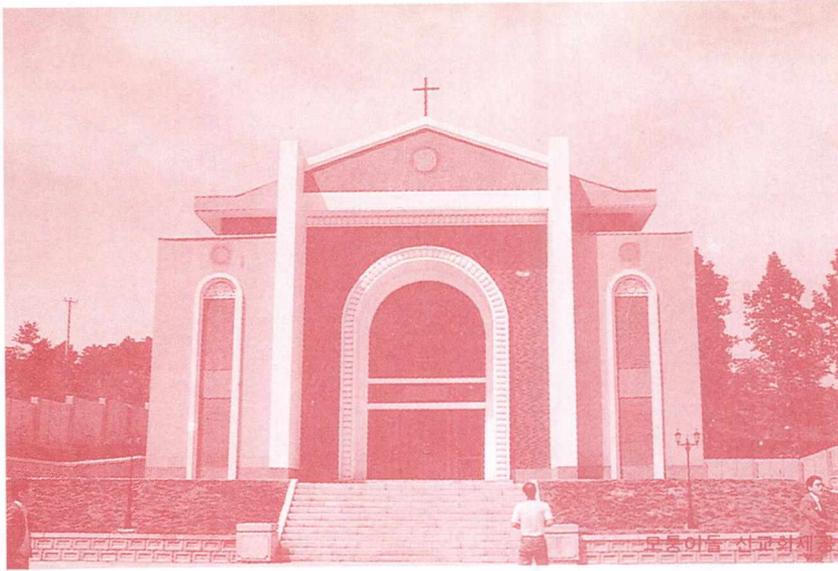
그렇다면 먼저 모이십시오.

중국을 위해,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무릎꿇읍시다.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는

기도의 광장을 마련해 놓고 기도의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어선교훈련원
- **문의** : 중국어문선교회 (Tel : 594-8038, 533-5497)



중국선교를 통한 북한선교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길이 있습니다.

중국선교!

바로 북한선교의 지름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이미 오래 전에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본회는 북한 사회과학연구원의 원장 박완신 박사를 모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북한선교의
구체적인 길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주제 : 중국선교를 통한 북한선교

강사 : 박완신 박사 (북한사회과학연구원 원장)

일시 : 1995년 2월 27일 (월) 오후 7시 - 9시

장소 : 이수성결교회 (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주최 : 중국어문선교회

문의처 : Tel. 594-8038, 533-5497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는 중국선교

오늘날 중국선교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열정 못지 않게 전세계적인 협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더구나 중국선교에는 중국인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회는 중국선교에 있어 문서선교로 그 역사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홍콩의 CCL(福音證主協會)의 사역자들을 모시고, 중국복음화를 위한 현지의 실제적인 필요와 그 대책, 그리고 한국교회와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틀에 걸친 본 세미나는 선교 보안상의 이유로 첫째날 비공개로 진행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주 제 :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는 중국선교
일 시 : 1995년 4월 28일~29일 오후 12시 30분~7시 30분
28일 (비공개 세미나), 29일 (공개 세미나)
강 사 : 陳敏瀾 (CCL 협력목사)
祝民忠 (發展部長)

참석대상: 비공개시(28일): 중국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단, 교회의 목회자나 선교단체 책임자.

공개시 (29일): 중국선교 헌신자, 신학생, 중국선교에 비전을 가진 사람
장 소 : 한성교회 (중국 정동 25번지, Tel. 755-7630)
회 비 : 비공개 1만 5천 원, 공개 1만 5천 원
(두 강의를 다 들을 때는 3만원)

주 관 : 중국어문선교회
주 최 : 중국어문선교회, 중국복음선교회
문 의 처 : Tel. 594-8038, 533-5497

선교 도서 안내

선교도서

- | | |
|------------------------------------|--------|
|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 3,000원 |
|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3,500원 |
| 3.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서원) | 4,800원 |
|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 1,500원 |
| 5.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 1,500원 |
| 6. 神愛世人 | 1,500원 |
| 7. 만 남 | 2,000원 |
| 8. 전도중국어(漢語傳福音) | 1,500원 |

교재

- | | |
|------------------------------------|------------------|
| 1. 中國語 聖經
(신약+시편+잠언:주음부호) | 7,000원 |
|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 2,000원
1,000원 |
| 3. 經文背誦
經文背誦 Tape | 1,500원
1,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我的第一本聖經 Tape | 2,500원
1,000원 |
| 5.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 10,000원 |
| 6. 信仰讀本
信仰讀本 Tape (2개) | 5,000원
1,600원 |
| 7. 中國語 신약성경(한어병음) | 10,000원 |
| 8. 중국어신약테이프(25개 한어병음) | 20,000원 |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하여 주십시오(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 : 김바울 간사 (전화: 594-8038, 533-5497)

음이온 발생

공기 청정기

清風

CHONGPUNG IONIZER

- 무소음
- 무필터

살아있는 공기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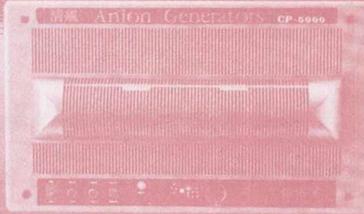
세계 최초
국제 발명품전 2연패

- 93.11 독일 국제발명품전 환경부문 금상수상!
- 94. 4 스위스 국제발명품전 환경부문 금상수상!



CP-3000 (가정용) 가격: 248,000

청풍 II (차량용) 가격: 165,000



CP-5000 가격: 350,000



CP-1000 (가정용) 가격: 8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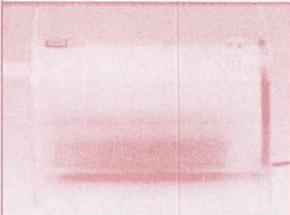


CP-500 (가정용) 가격: 58,000
청풍 III (차량용) 가격: 5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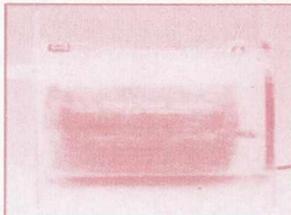


청풍 I (차량용) 가격: 98,000

담배연기제거실험



담배연기 투입 실험전



즉시 연기를 분해 5초후



깨끗한 공기로 변함 10초후

환경기기 전문제조업체
三祐電子

판매원 **빈엘유통**

TEL (0346) 5724-973

호출 012-295-6591

"전국 주문즉시 배달"

- * 무소음, 무필터, 무팬
- * 전력소비는 극미
- * 자동센서에 의한 공기오염 감지(CP-3000)
- * 수명은 반영구적
- * 음이온 발생량 조절기능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5년. 1, 2

발행처 /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발행·편집인 / 이동화
편집장 / 석은혜
편집기자 / 한영혜
 차이나
 권수영
편집디자인 / 정광숙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 바 - 2078
발행일자 / 1994년 12월 10일
인쇄인 / 김수민(신성기획사)
값 / 3,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5-4255
팩스 / 599-2786

훈련원: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5-4255
팩스 / 599-2786

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 032-872-0742

사랑의 집: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 873-2570

스마트폰
오라지번호

7602362

펼치기
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언제나 '새'자가 붙는 것에는 기대가 따르나보다. 무언가 어찌하는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 것같은 그런 특별한 느낌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날이 험등고 어려움수록 그런 바깥은 더욱 적실해 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새해는 지난해의 그 땀만큼이나 험등 수고를 요구하며 새로운 개척의 땅덩이를 우리 눈 앞에 펼쳐 보이고 있다. 어쩌면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개척의 여지가 있기에 새해는 우리에게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쁜 희망이다.

물 한해도 <중국을 주께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갈" 것이다. 주님이 거두게 해주실 그 풍성한 단을 기쁨으로 거둔 것을 굶주면서 말이다.

新年快樂!
萬事如意!



<중국을 주께로>가 이번 호부터 3,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간 본지를 꾸준히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본지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자들의 구독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구독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본지가 좀 더 널리 읽혀 중국선교에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로 일하는 간사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재정형편은 날로 질 높은 잡지이기를 바라는 독자의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는 이번 호부터 본지의 구독료를 **3,500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옵기는 구독자 여러분께서 본회의 이러한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십사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독자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총판/에영커뮤니케이션

서울시 중구 정동 1-23 구세군중앙회관내/ TEL.722-9577, FAX.722-9578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외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_____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_____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성광선교센터



• **선교정보 자료실**
선교지역 및 종족, 선교단체,
선교활동 및 전략 등에
관한 문서자료와 비디오
자료 구비

• **레스토랑**
저렴한 가격의
정성이 담긴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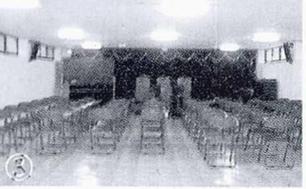
• **도서관**
선교 및 신앙 관련 도서

• **한식당**
300석의 한식 온돌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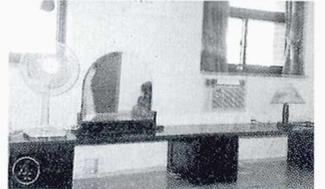
• **외국어훈련원 (F.L.T.C)**
현대식 LAB 시설완비

• **게스트 하우스(특실)**
TV, 냉장고, 욕실, 주방



• **세미나실**
30~200석까지 다양

• **게스트 하우스**
냉난방 완비된
온돌 및 침대방



• **유치원**
선교사 자녀 100%
장학금 (단, 국교부터
고교생은 50%)

• **의료봉사**
선교사 가족 무료진료
(내, 외, 치과)
의료봉사진: 필립
선교회, 길선교회)



♣ **교통편**

주안역에서 5번 41번
마을버스 1번
인하대 후문 한 정거장
전에서 하차 (20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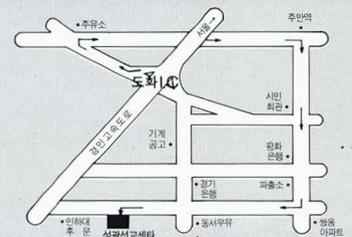
성광선교센터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4동 89번지

양치호 목사

TEL : (032) 872-2336~8

FAX : (032) 862-0642



세계속의 카타딘 정수기

그 명성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스위스까지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을 허가 주

1. 품질보증

- 세균 적리 아메바, 살모넬라, 콜레라, 이질, 위장염균, 비브리오패, 바이러스 완전 100% 제거되며 방사능까지도 제거됨
- 염소, 비스, 카드뮴, 납, 수은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은 완벽히 제거하며
-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등의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 미 하버드대학, 미 육군연구소, 미 환경보호청, 미시간대학, 스위스 바젤대학, 스위스 중앙연구소, 미 예일대학,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 서울의대, 서울시 종합기술연구소등 세계 유명 시험기관에서 입증.

3. 경제성

- 필터의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반 영구적 (타입제 1년 정도)
- 필터의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 (타입제 1만 리터)
- 5인가족 연간 유지비 4만원선 (타입제 40만원 이상)
- 생수 이용시 보다 경제적이며 사용시 세균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음.

2. 세계적인 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고있는 세계 고객은 :Coca-Cola, Pepsi-Cola, Heinek, McDonald's, Red-Cross, Lotte Hotel, Swissair, Esso, Shell, Dole, Mobil, Philips Petroleum, Unionoil, Statoil, Amoco Norway, Jebson Drilling, Texa USSR Shipping lines, India shipping, Mitsui, Nedlloyd, Hapag-Lloyd, Ben L. British Petroleum, 91,500여개의 정수 3,000여개의 세계 유명 음료업체
- 국내는 한라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제주생수, 현대상선(주), 한국해운(주) 등

4. 사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의 제품 종류는 ;
 - 가정용 • 등산용 • 생수회사용 • 음료회사
 - 대형호텔용 • 수도국 정수장용 • 제약회사
 - 시설용 • 종합병원용 • 가두리 양식장용
 - 선박용 • 주류회사용 • 비행기시설용
 - Tablets • Spray • Powder 등 다양하며
- 정수 시스템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음.
- 타회사 제품의 추종을 불허하며
- 열성과 패기가 있는 대리점 사업주는 카타딘 정수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

“요주의” 허위 선전 업체 고

모 정수기 업체에서는 전기분해기나 TDS를 가지고 다니며 허위선전으로 판하고 있으므로 보사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실 수요자에게 눈속임으로 사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속지 마시고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21번)

속임수에 의하여 정수기를 선택하신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리점 개설문의:
(02)582-4505
구입상담:
592-0132(방배대리점)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달라도
모두가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